


2001 연구보고서 230-18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과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책임자 : 문 유 경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주 재 선

: 전 기 택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남녀의 삶을 비교할 수 있는 젠더통계 구축은 남녀의 불평등한 현실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1975년이래 유엔은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도구로서 젠더통계의 구축을 각국에 촉구하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단위로 혹은 지역단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젠더통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본원은 젠더통계 생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86년과 1994년 두 해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고, 1994년 이후로는 신속한 젠더통계의 반영을 위해 매년 「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성통계연보」의 작성은 여성과 관련된 기존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고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구성으로 여성관련 연구자와 정책수립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간 이래 「여성통계연보」는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여건의 반영에 소극적이었으며, 이용자 중심의 변화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보고서의 특성상 부분개편으로 그쳤던 「여성통계연보」의 전반적인 체계 개편과 이용행태 면에서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변화와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여성통계연보」의 통계체계를 개편하고 1998년이래 본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 각 매체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통계연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통계보고서로서 변화되길 바라며, 끝으로 「여성통계연보」지표체계 개편을 위해 자문을 해주신 자문위원들과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연구자에게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2002년 4월

한국여성개발원
원 장 장 하 진

연구개요

1. 연구목적

- 국내의 대표적인 젠더통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통계연보」의 수록내용 및 이용행태에 대한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젠더통계의 발전에 기여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외국과 국내의 젠더통계 현황
- 전문가 자문회의: 분야별로 3차례에 걸쳐 실시
- 이용에 대한 설문지조사: 이용경험이 있는 197명을 대상으로 조사

3. 연구의 한계

- 연구의 내용이 「여성통계연보」의 체계개편과 활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국의 젠더통계의 전반적인 생산개선방안에 대해 폭넓게 다루지 못함.
-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는 통계는 통계의 개선안에 포함하지 못하여 별도의 통계개발항목으로 제시함.
- 조사의 표본추출을 임의로 하였으며, 미사용자들을 제외하여 분석내용에 한계가 있음.

4. 연구결과

4-1. UN과 주요 선진국의 젠더통계현황

- UN의 통계국 사회 및 주택통계부는 The World's Women을 1991년 최초로 발간한 이후 약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배포는 책자와 CD-ROM,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통

제표 및 그림과 함께 각 분야의 중요한 경향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주요 개념 및 참고 자료 등을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통계보고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춤. 주요 수록 분야로는 인구, 가족, 보건, 교육 및 정보통신, 노동, 인권과 정치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제6장 인권 및 정치 참여에서는 신체적 학대, 성폭력, 전시 성폭력, 여성 매매, 강제 매매춘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지역별 통계 및 해설을 실어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음. 또한 UN 난민 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난민 통계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남녀 난민의 서로 다른 요구와 경험을 지적하면서, 난민 통계의 성별 분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스웨덴 통계청은 젠더통계 간행물의 국제적 전형이 되고 있는 *Women and Men in Sweden*을 1984년 스웨덴어판으로 처음 발간했으며, 약 3년 단위로 스웨덴 통계청 양성통계부에 의해 발간되고 있음. 인구, 보건, 교육, 시간사용, 육아, 노인 개호, 취업, 임금, 수입, 폭력과 범죄, 영향력 및 권력 등 11개 분야별로 주요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내용 구성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시간사용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성하고 임금 통계와 함께 소득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캐나다 통계청의 주택, 가족 및 사회통계부에 의해 발간되는 *Women in Canada*는 1985년 최초로 발간한 이후 약 5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음. 인구, 가족, 보건, 교육, 노동, 수입 및 소득, 주택 및 가구 설비, 치안, 이민 여성, 주요 소수 민족 여성, 원주민 여성, 여성 노인 등으로 내용이 구성됨. *Women in Canada*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여성 집단인 이민 여성, 소수 민족 여성, 원주민 여성 등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임.
- 1994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Women and Men in Finland*는 핀란드 통계청 인구통계부에서 현재까지 약 4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음. 인구, 가족, 교육, 고용, 수입, 사회 참여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 부분에서는 편부, 편모,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비율과 함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4-2. 국내 젠더통계 현황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통계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실정으로 여성부와 통계생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대부분의 정부 조사통계의 조사표에는 성별 문항이 있어 성별로 조사가 되고 있으나 발표는 제한적으로 되고 있음.
- 젠더통계발간물은 부처별로 1~2종이 있으나, 여성개발원의 「여성통계연보」가 가장 대표적인 발간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여성통계연보」는 여성과 관련된 기존통계 및 지표의 한계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범위의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여성관련 연구자와 정책수립자에게 필요한 자료원이 되고 있음.

4-3. 「여성통계연보」의 체계개편

4-3-1. 체계개편의 원칙

- 「여성통계연보」의 체계개편은 남녀의 불평등 현상을 성별비교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평등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젠더통계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포괄성, 압축성, 간결성, 이해가능성, 시의적절성, 생산여부 등 통계책자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 짐.

4-3-2. 전체 체계개편

- 현재 10개 부문에서 '남북한 비교'부문을 새로 신설하여 11개 부문으로 확장함.

4-3-3. 부문별 주요 개편안

- 인구: 세부관심영역을 인구의 동태성과 정태성으로 나누어 균형을 맞추었으며, 인구이동은 국제화 시대임을 감안하여 국내이동과 국외이동으로 나누어 제시함.
- 가족: 가족과 가구관련 통계를 분리하였으며, 여성가구주 중 특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편모가구주, 독거노인가구주 등을 집중적으로 다룸. 또한 가족관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주관적 지표를 추가함.
- 교육: 공교육의 부실화, 교사의 이직문제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에서의 성차를 볼 수 있는 통계를 제안함.

- 경제활동: 여성의 실업상태를 보여주는 대안실업률을 제시하고, 비구직사유를 추가함. 장기적으로는 경기구조조정 이후 더욱 심각해진 취업 불안정성을 다룰 수 있는 통계와 성별 소득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을 제안함.
- 보건: 단순한 기대수명의 연장보다는 건강한 상태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건강수명을 추가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검진 실태 등을 추가함.
- 복지: 국민의 4대 기본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가입률 뿐 아니라 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볼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생활보호’관심영역을 ‘국민기초생활보장’관심영역으로 교체하고, 개별지표의 내용도 보강함. 또한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포함.
- 정치 및 사회참여: 여성공무원 육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여성공무원의 분포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지방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보충함.
- 문화 및 정보: 문화예술 활동자의 성별 통계를 추가하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수혜결과에 대한 성별차이를 파악하는 통계를 제안함.
- 안전: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를 제안하였으나 현재 제한적인 통계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보고통계와 실제 발생건수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통계의 개발을 제안함.
- 남북한 비교: 통일 후 여성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한 부문임. 남북한 여성의 현상과 지위를 비교하는 기본적인 통계를 제안함.
- 국제비교: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지원 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률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을 도모함.

4-4 「여성통계연보」의 이용 활성화 방안

- 인터넷 「여성통계」와 긴밀한 연계하에서 모색, 즉 각각에 대한 이용현황과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두 매체의 성격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

4-4-1.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

-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자료갱신을 위해 「여성통계연보」의 연구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여 수시로 최근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분기별로 나누어 인터넷 「여성통계」의 갱신에 사용하는 안을 제안

4-4-2. 발간형태의 다양화

- 여성통계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통계 소책자와 핸드북의 형태를 「여성통계연보」와 병행하여 발간할 것을 제안

4-4-3. 통계서비스 및 품질의 향상

- 조사결과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부분에서 가장 낮은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통계 서비스 부문임. 이에 통계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여성통계에 대한 문의점이나 문의 사항을 즉각 응답해 주는 시스템을 제안함.
- 단순한 통계의 수정과 질문 사항은 「여성통계연보」담당자가 전담하고 이외 각 분야 통계에 대한 질문은 전공 연구자가 응답하도록 함.
- 「여성통계연보」의 정기구독회원과 구입자, 그리고 필수 배포처의 E-mail과 주소를 DB화하여 통계오류와 수정사항이 발생 시 즉시 E-mail 혹은 전화, 편지 등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
- 인터넷 「여성통계」의 경우 자료 갱신과 더불어 어떤 자료가 갱신되었는가를 통계 이용자에게 알리며,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여성통계의 이용을 활성화시킴.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의 한계	6
제2장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젠더통계 현황	7
1. 젠더통계 생산과 배포	9
2. 젠더통계 생산의 국제적 동향: UN을 중심으로	11
가. 젠더통계 관련된 UN의 주요 권고안	11
나. UN의 주요 통계 생산물	13
3. 주요 선진국의 젠더통계 생산 현황	17
가. 스웨덴	17
나. 핀란드	21
다. 캐나다	25
라. 아이슬란드	28
제3장 「여성통계연보」 체계 개편	35
1. 국내의 젠더통계와 「여성통계연보」	37
가. 국내의 젠더통계 현황	37
나. 국내의 대표적 젠더통계로서 「여성통계연보」의 의의와 한계	39
2. 「여성통계연보」 전체 체계의 개편	42
3. 부문별 체계 개편	48
가. 인구부문 체계의 개편	48
나. 가족부문 체계의 개편	53
다. 교육부문 체계의 개편	61
라. 경제부문 체계의 개편	70

다. 보건부문 체계의 개편	82
바. 복지부문 체계의 개편	92
사.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체계의 개편	98
아. 문화 및 정보부문 체계의 개편	103
자. 안전부문 체계의 개편	107
차. 남북한 비교부문 신설	111
카. 국제비교부문 체계의 개편	112

제4장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활성화 방안 115

1.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생산	117
가. 생산개요	117
나. 생산과정	117
2.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자 실태 분석	119
가. 「여성통계연보」의 이용현황	119
나.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현황	122
3. 「여성통계연보」 및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126
가.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	126
나.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134
4. 부문별 활용정도	137
5. 이용활성화 방안	141
가. 여성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41
나. 여성통계 이용의 활성화 방안	146

제5장 결론 153

참고문헌 159

부 록 161

1. 부 표	163
2. 설문지	181

표 목 차

<표 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
<표 II-1>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의 장별 구성	14
<표 II-2>	스웨덴 통계청 Equal X의 표준 변수	20
<표 II-3>	주요 젠더통계간행물의 특징	33
<표 III-1>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와 「여성통계연보」의 연도별 구성	42
<표 III-2>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와 「여성통계연보」의 부문별 통계표 수록 현황	44
<표 III-3>	부문별 이용경험률	46
<표 III-4>	많이 사용하는 부문	46
<표 III-5>	취약한 부문	47
<표 III-6>	추가해야 될 부문	47
<표 III-7>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인구부문 젠더통계	49
<표 III-8>	인구부문 지표체계 변화	50
<표 III-9>	인구부문 개편안	52
<표 III-10>	인구부문 통계개발 항목	53
<표 III-11>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가족부문 젠더통계	54
<표 III-12>	가족부문 지표체계 변화	55
<표 III-13>	가족부문 개편안	59
<표 III-14>	가족부문 통계개발 항목	61
<표 III-15>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교육부문 젠더통계	62
<표 III-16>	교육부문 지표체계 변화	64
<표 III-17>	교육부문 개편안	68
<표 III-18>	교육부문 통계개발 항목	70
<표 III-19>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활동부문 젠더통계	71
<표 III-20>	경제활동부문 지표체계 변화	72
<표 III-21>	경제활동부문 개편안	80
<표 III-22>	경제활동부문 통계개발 항목	82

<표 III-23>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보건부문 젠더통계	83
<표 III-24> 보건부문 지표체계 변화	85
<표 III-25> 보건부문 개편안	90
<표 III-26> 보건부문 통계개발 항목	91
<표 III-27> 주요 선진국의 복지부문 젠더통계	92
<표 III-28> 복지부문 지표체계 변화	93
<표 III-29> 복지부문 개편안	96
<표 III-30> 복지부문 통계개발 항목	97
<표 III-31> 국제기구와 스웨덴의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젠더통계	98
<표 III-32>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지표체계 변화	99
<표 III-33>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개편안	102
<표 III-34>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통계개발 항목	103
<표 III-35>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문화 및 정보부문 젠더통계	104
<표 III-36> 문화 및 정보 부문의 지표체계	105
<표 III-37> 문화 및 정보부문 개편안	106
<표 III-38>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안전부문 젠더통계	107
<표 III-39> 안전 부문의 지표체계 변화	108
<표 III-40> 안전부문 개편안	110
<표 III-41> 남북한 비교부문 신설안	111
<표 III-42> 국제비교부문의 수록 항목	113
<표 III-43> 국제비교 부문 개편안	114
<표 IV-1> 성별, 직업별 「여성통계연보」 이용정도	119
<표 IV-2> 「여성통계연보」 사용용도	120
<표 IV-3> 「여성통계연보」의 입수 경로	121
<표 IV-4> 문제점/문의사항 해결 방법	121
<표 VI-5> 「여성통계연보」의 장점	122
<표 VI-6>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경험	123
<표 VI-7> 인터넷 「여성통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24
<표 VI-8>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 중 주로 이용하는 매체	124
<표 VI-9> 「여성통계연보」 책자를 더 자주 이용하는 이유	125
<표 VI-10> 인터넷 「여성통계」를 더 자주 이용하는 이유	125
<표 VI-11> 「여성통계연보」 품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26

<표 VI-12> 「여성통계연보」의 수록내용에 대한 만족도	127
<표 VI-13> 직업별 「여성통계연보」의 수록내용에 대한 만족도	127
<표 IV-14> 직업별 「여성통계연보」 특집의 주제 선정 및 내용 불만족 이유	128
<표 IV-15> 「여성통계연보」의 통계표 제시형식에 대한 만족도	129
<표 IV-16> 「여성통계연보」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130
<표 IV-17> 바람직한 「여성통계연보」의 크기	130
<표 IV-18> 특집/내용분석/그림/통계표 구성 분량에 대한 만족도	131
<표 IV-19> 「여성통계연보」 분량의 증감에 대한 견해	132
<표 IV-20> 「여성통계연보」의 이용시 만족도	133
<표 IV-21> 직업별 바람직한 발간 주기	134
<표 IV-22>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 만족도	134
<표 IV-23> 인터넷 「여성통계」의 내용 만족도	135
<표 IV-24> 인터넷 「여성통계」의 편집과 형식 만족도	136
<표 IV-25>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시 만족도	137
<표 IV-26> 기관별 여성통계보고서의 이용현황	138
<표 IV-27> 각 항목별 통계자료 이용현황	140
<표 IV-28>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 개선 방향의 최우선순위	141
<표 IV-29> 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간행물의 발간주기 및 부문	144
<표 IV-30>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발간 매체	146
<표 IV-31> 발간형태의 다양화 방안 제안	149

그림 목 차

<그림 II-1> 스웨덴 통계청의 “Equal X” 서비스 화면	21
<그림 II-2> 핀란드 통계청의 조직과 업무분장	24
<그림 III-1> 「여성통계연보」 수록 통계표의 부문별 구성 비율 변화	45

부 표 목 차

◁부표 1>	「여성통계연보」의 입수경로	163
◁부표 2>	「여성통계연보」의 가격	163
◁부표 3>	「여성통계연보」에 대한 문제점/문의사항 해결 방법	164
◁부표 4>	「여성통계연보」의 수록내용 포괄성에 대한 만족도	164
◁부표 5>	「여성통계연보」의 수록내용 간결성(압축성)에 대한 만족도	164
◁부표 6>	「여성통계연보」의 성별통계제시정도에 대한 만족도	165
◁부표 7>	「여성통계연보」의 통계 지표화 작업정도에 대한 만족도	165
◁부표 8>	「여성통계연보」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 만족도	165
◁부표 9>	「여성통계연보」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 불만족 이유	166
◁부표 10>	「여성통계연보」의 통계표 제시 형식에 대한 만족도	166
◁부표 11>	「여성통계연보」의 책 크기에 대한 만족도	166
◁부표 11>	특집/분석/그림/통계표 구성 분량에 대한 만족도	167
◁부표 12>	특집의 분량 바람직한 구성	167
◁부표 13>	분석의 분량 바람직한 구성	167
◁부표 14>	그림의 분량 바람직한 구성	168
◁부표 15>	통계표의 분량 바람직한 구성	168
◁부표 16>	발간 주기 만족도	168
◁부표 17>	바람직한 발간 주기	169
◁부표 18>	통계의 정확성 만족도	169
◁부표 19>	통계의 신속성 만족도	169
◁부표 20>	용어의 해설 만족도	170
◁부표 21>	구입의 용이함 만족도	170
◁부표 22>	사용의 편리함 만족도	170
◁부표 23>	인구 부문 이용 여부	171
◁부표 24>	가족 부문 이용 여부	171
◁부표 25>	교육 부문 이용 여부	171
◁부표 26>	경제활동 부문 이용 여부	172
◁부표 27>	보건 부문 이용 여부	172

<부표 28> 복지 부문 이용 여부	172
<부표 29>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 이용 여부	173
<부표 30> 문화 및 정보 부문 이용 여부	173
<부표 31> 안전 부문 이용 여부	173
<부표 32> 국제비교 부문 이용 여부	174
<부표 33> 인터넷 「여성통계」 이용 만족도	174
<부표 34>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 중 주 이용자료	174
<부표 35> 책자를 더 자주 이용하는 이유	175
<부표 36> 인터넷을 더 자주 이용하는 이유	175
<부표 37> 인터넷을 이용하신 적이 없는 이유	175
<부표 38> 인터넷 「여성통계」의 수록내용 포괄성에 대한 만족도	176
<부표 39> 인터넷 「여성통계」의 수록내용 간결성(압축성)에 대한 만족도 ..	176
<부표 40>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제시정도에 대한 만족도	176
<부표 41>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 지표화 작업정도에 대한 만족도	177
<부표 42>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표 제시 형식에 대한 만족도	177
<부표 43> 인터넷 「여성통계」의 그래프 제시 형식에 대한 만족도	177
<부표 44>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	178
<부표 45>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178
<부표 46> 인터넷 「여성통계」의 용어 해설에 대한 만족도	178
<부표 47>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수치 저장방법에 대한 만족도	179
<부표 48> 인터넷 「여성통계」의 접속속도에 대한 만족도	179
<부표 49> 인터넷 「여성통계」의 검색방법에 대한 만족도	179
<부표 50> E-mail을 이용한 질문 또는 건의 시 답변 만족도	180
<부표 51> 여성통계 내용 수시 갱신 시 「여성통계연보」 변화 방향	180
<부표 52> 전문화된 소형 통계물 발간하는 것에 대한 의사	180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의 한계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계자료의 생산과 발표는 국가의 정책입안과 학문적인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젠더통계의 구축은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남녀의 불평등한 현실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된다. UN의 여성관련 기구들은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도구로서 젠더통계의 구축을 각국에 촉구하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단위로 혹은 지역단위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원은 이러한 젠더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 이후 매년 「여성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여성통계연보」는 여성연구자들과 여성정책입안자들에게 여성관련 통계자료의 종합적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10여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사회문화적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왔고 여성정책이 전문화되면서 「여성통계연보」의 내용이 개편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통계연보라는 책의 특성상 시계열적 비교를 위하여 임의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자제하여 온 만큼, 10여년이 지난 현재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 사회복지제도의 확산, 성폭력, 가족폭력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범죄 등에 관심이 증가한 만큼,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통계연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원의 홈페이지에 「여성통계연보」의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나 그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유통이 막강한 전파력과 신속함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통계연보」 역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이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여성통계연보」가 그 수록내용과 이용행태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회변화와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여성통계연보」의

통계체계를 개편하고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게재내용을 이원화하여 각 매체의 특성을 살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여성통계연보」는 현재의 두꺼운 분량을 지양하고 되도록 간결한 형식으로 바꾸어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인터넷 「여성통계」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필요에 맞게 발췌하여 가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 3, 4장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제2장은 UN과 주요선진국의 젠더통계 생산현황을 살펴보았다. UN의 젠더통계 관련 주요 권고안과 생산물을 살펴본 후,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4개국의 젠더통계 생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과 통계생산물 및 주요 조사활동들을 소개하였다. 제3장은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전체의 체계안을 제시하고, 각 부문별로 기존의 체계를 분석한 후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개편안은 해당부문과 관련되는 사회여건의 변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설문지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마련되었다. 새로운 개편안에 포함된 통계 및 지표항목들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로서 발표가 가능한 것 중에서 선정한 것이며, 현재 생산되고 있지 않으나 젠더통계로서 필요한 내용들은 향후 개발항목으로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설문지 조사결과를 기초로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향후 젠더통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와 설문지조사이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자문회의에서는 「여성통계연보」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및 인터넷 「여성통계」와의 바람직한 관계와, 부문별로 본 연구진이 제시한 개편안에 대

해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성통계연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197명의 응답이 사용되었다. 조사일시는 2001년 12월 13일에서 20일까지이며, 조사문항은 전반적인 이용현황, 「여성통계연보」 만족도, 「여성통계연보」 추가 통계,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실태, 인터넷 「여성통계」 만족도,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참조).

조사결과 응답자는 주로 여성부 등 여성정책관련 정부조직, 여성개발원 등 연구기관, 여성학 연구 교수/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공무원이 44.7%로 가장 많고, 연구직이 23.4%, 교수직이 18.8%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77.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45.4% 가장 많고, 30대, 20대, 50대의 순서로 나타난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자	153	77.7
	남자	44	22.3
	전체	197	100.0
연령별	20~29세	16	8.2
	30~39세	64	32.7
	40~49세	89	45.4
	50~59세	24	12.2
	60세 이상	3	1.5
	전체	196	100.0
직업별	공무원	88	44.7
	연구원	46	23.4
	교수	37	18.8
	사무직원	13	6.6
	학생	10	5.1
	자영업	1	.5
	여성운동가	1	.5
	단체장	1	.5
	전체	197	100.0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과 활용에 중점을 두어 연구의 내용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연구 본래의 한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젠더통계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전반적인 생산현황을 폭넓게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추후 과제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통계연보」가 자체 생산되는 통계가 아닌 편집, 가공통계인 만큼 여성의 지위상승에 필수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되지 않는 통계는 통계체계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부문별로 향후 생산이 필요한 통계항목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여성통계연보」의 이용 조사 대상 선정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는 조사대상자의 선정이 임의로 된 점이다. 조사대상자 모집단이 지극히 적어 표본추출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추출하기가 불가능하여 임의추출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능한 고루 분포되도록 표본 할당량을 정하였다. 또한 조사 목적이 주로 이용현황과 개선에 있었기 때문에 미사용자를 제외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통계연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미사용이유가 조사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젠더통계 현황

1. 젠더통계 생산과 배포	9
2. 젠더통계 생산의 국제적 동향 : UN을 중심으로	11
3. 주요 선진국의 젠더통계 생산 현황	17

1. 젠더통계 생산과 배포

젠더통계란 단순히 남녀로 분리된 통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불평등한 현상을 철폐하기 위해 관련되는 모든 측면에서의 통계를 의미한다(문유경, 1999). 그리고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여성 세력화(empowerment)를 통한 양성 평등 실현과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한 국가적, 세계적 관심 사항이 됨에 따라 젠더통계의 중요성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1975년 UN의 제1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젠더통계의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에서는 ‘성별 분리 자료와 정보의 생성과 배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젠더통계 및 지표 관련 권고안들이 채택되었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UN 여성특별총회 역시 통계 자료 수집, 통계 사무소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더불어 성의 주류화와 관련된 젠더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에 대한 문서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젠더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 때문이다. 즉 젠더통계는 남녀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대중들의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정책 입안자를 납득하여 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과 조치에 대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정책과 관련하여 편견 없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정책의 점검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Hedman et al, 1996; Hedman, 1999). 특히 여성 정책을 포함한 모든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 성과에 대한 성 인지적 분석(gender analysis)과 양성 평등 영향 평가가 강조됨에 따라 젠더통계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문유경, 1999; Sabaddin, 2000).

전체 공식 통계와 여러 통계분야의 자료를 포함하는 젠더통계의 생산, 분석, 제시를 위해서 우선 모든 개인 통계는 성별로 수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변수와 특성은 성을 일차적이고, 포괄적인 분류기준으로 하여 분석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분석과 제시가 성별로 구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통계는 성 이슈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젠더통계가 남녀 통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 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자료라는 것을 의미한다(Hedman et al, 1996). 이와 함께 정확한 문제를 찾아내고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젠더통계의 생산자와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 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산된 젠더통계의 제시와 배포 역시 중요한 분야이다. 젠더통계의 제시와 배포는 다양한 형태의 통계 생산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통계와 지표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통계서적, 통계 소책자, 포스터, 팜플렛, 디스켓, 테이프, CD,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통계 생산물들은 정확하고 시기적으로 적할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시, 배포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친화적으로 제작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명확한 도표를 사용하고 적절한 크기와 형태를 취하고 일반인에게 호감을 주어야 한다(Hedman et al, 1996; UN, 1997).

젠더통계의 생산과 배포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젠더통계의 생산과 배포가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이다. 즉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후속 조치로 각 회원국은 1996년 시작되는 북경 행동 강령의 이행과 관련된 국가별 행동 계획을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여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포함된 젠더통계와 지표에 관련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성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그리고 젠더 통계 데이터 뱅크의 설립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제시되었다. 스웨덴과 같이 1994년부터 이전에 특별한 반대 이유가 없는 한 개인들에 관련한 모든 공식 통계를 성별에 의해 분리할 것을 명시한 정부 규정을 통과시켜 성별 통계를 수집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4차 북경여성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성별 분리 통계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었다(문유경, 1999; Hartl 2000).

2. 젠더통계 생산의 국제적 동향: UN을 중심으로

가. 젠더통계 관련된 UN의 주요 권고안

1)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

1975년 유엔의 세계여성회의는 젠더통계 개발의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의 행동강령 제161절에서 제173절까지는 ‘조사연구, 자료수집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61절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상태에 대한 국내, 지방, 국가간 차원의 조사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에 우선권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자료와 통계가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정책수립과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제163절은 여성의 경제활동의 공헌에 대한 과소평가를 언급하고 있고, 제164절은 가구주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 제165절은 국가간의 비교의 필요성에 대해, 제168절은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제170절은 여성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관련되는 사회경제적 지표의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1980년 코펜하겐 세계여성회의

1980년 유엔 여성 10년의 중간 점검과 후반기 계획을 목표로 세계여성회의가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행동강령 역시 여성에 관한 통계의 개선이 한층 구체적으로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분석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고용과정, 예를 들어 평가, 노동, 일, 고용, 사회적 생산성, 가구, 가족 등에 대한 조사기법과 개념들을 재검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제206절에서 제209절까지는 젠더통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더욱 다양해진 동시에 체계를 잡아가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개인 관련 통계의 성 및 연령별 수집, 편집, 분석, 제시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비공식 부문의 참여를 포함한 경제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기여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개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계정에 포함된 무보수 노동과 포함되지 않은 무보수 노동 모두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적절한 측정 방법으로 시간사용 연구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빈곤, 보건 서비스, 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자료 수집 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

북경 행동 강령 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장애물에 대한 점검을 위해 조직된 2000년 북경+5 유엔여성특별 총회에서도 젠더통계와 관련된 북경 행동 강령의 수준을 넘어서는 권고안들이 채택되었다. 제64조에서는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장, 단기 목표와 측정 가능한 목표의 기준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후속 장치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통계 사무의 지원과 관련하여 제92조(a)에서는 국제 협력체가 무엇보다 우선 국가 통계 사무소에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 인지적 분석과 통계의 개발 및 활용에 노력하는 지역과 국가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80조에서는 분석틀, 가이드라인과 기타 실천적 수단과 지표를 성 주류화의 가속화에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제77조(b)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법 집행의 추세를 점검하기 위해 범죄 통계의 편집과 발간을 포함하는 여성 폭력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여성 폭력 측정 방법과 지표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발전을 제안하고, 기존 통계에 기반해서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제93조(d)에서는 원주

민 여성과 관련된 자료 수집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Hartl, 2000).

나. UN의 주요 통계 생산물

1984년에 유엔에서 발간한 두 보고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여성 통계에 대한 필요성의 확산에 따른 결과이다. 첫 번째 보고서 *Compiling social Indicators of the Situation*은 새로운 통계자료의 개발보다는 각국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보고서 *Improving Concepts and Methods for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은 우선 현재 일반적으로 수집되는 통계자료들의 개념 및 수집 방법들이 여성의 삶의 상태를 나타내기에 편파가 없고 적합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통계 용어 및 생산관행에 대한 가능한 개선점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 발간된 *Handbook for Producing National Statistical Reports on Women and Men*은 양성통계간행물의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양성통계간행물 발간 기획 및 업무 구성, 통계 수집 및 분석, 통계표 작성 예, 자료 제시 및 도표 구성 방식, 출판 및 배포 등 발간 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UN은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여성의 현황과 지위를 통계로 제시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이들 통계간행물 가운데 유엔 통계국 사회주택통계부에서 발간하는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가 대표적이다. 1991년 *The World's Women 1970-1990: Trends and Statistics*이라는 제목으로 1991년 처음 출간된 이후 1995년판과 2000년판을 발간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세계 여성들의 현황과 지위 변화를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2000년판을 중심으로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은 해당 분야의 중요한 경향들과 특징들을 국가별, 지역별로 보여

주는 도표 및 분석 내용과 함께 주요한 통계와 지표를 수록한 통계표를 해당 장의 후반부에 실고 있다. 또한 여성과 관련된 주요한 경향을 부각시키는 통계와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계와 관련된 정의, 자료원, 주요 사례 등과 같은 참고사항을 수록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책자의 배포는 주로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요한 분석 결과 및 통계표 등 본문의 일부를 UN 통계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¹⁾

<표 II-1> *The World's Women 2000: Trends and Statistics*의 장별 구성

장별 제목	주요 내용	수록 도표/통계표
1장 인구	· 인구변화 · 여성과 남성 인구의 지역별 분포 · 도시, 농촌 지역의 주거 조건	18/1
2장 가족	· 결혼 및 기타 가족 구성 · 가족 해체 · 자녀 · 가족 형태	24/1
3장 보건	· 기대 여명 · 아동 및 청소년 보건 · 출산 · HIV 감염과 AIDS · 기타 질병 및 사망 원인 · 노령 인구 보건	17/1
4장 교육과 정보통신	· 성평등과 교육 · 교사 및 교육 시설 · 정보와 통신	16/1
5장 노동	· 여성과 남성 노동력 · 비공식부문 노동 · 시간 사용 · 노동 조건과 기회	23/4
6장 인권과 정치참여	·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 · 정치적 의사 결정	13/1

자료: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의 목차 재구성

1) <http://www.un.org/Depts/unds/ww2000/index.htm> 참고.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의 근간이 되는 것이 UN 통계국의 여성 관련 통계 데이터 베이스인 *Women's Indicators and Statistical Database(Wistat)*이다. 1975년 멕시코 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 관련 통계 데이터 베이스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데이터 베이스 설계 기술 및 소형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1984년 UN 사무국 통계사무소는 UNPFA(UN Population Fund)을 지원을 받아 Wistat 개발을 시작하여 1987년에 완료한다.²⁾ 그 결과 1988년 5월 초판인 United Nations Women's Indicators and Statistics Microcomputer Data Base Version 1이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 4판(Wistat 4)이 제작, 배포되고 있다. 초기에는 디스켓을, 그리고 3판 이후에는 CD-ROM의 판매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일부 통계와 지표가 UN 통계국 종합 데이터 베이스(UN SD Common Database)를 통해 수록 통계 및 지표의 접근 역시 가능하다.³⁾ UN 통계국은 Wistat를 바탕으로 중요한 여성 관련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89년에 발간된 *Compendium of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1986*과 1991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The World's Women* 시리즈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Wistat의 개발 및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국가에서 여성 관련 통계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Handbook for National Statistical Data Bases on Women and Development*(1990)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최신판인 Wistat 4는 총 77종의 각종 통계 및 지표를 9개 주제별로 수록하고 있다. 특히 206개 국가 및 지역의 젠더, 인구, 사회 발전과 관련된 통계 및 지표와 함께 가정 폭력, 출산 및 출산권(reproductive rights)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⁴⁾

UN 통계국과 함께 UN 산하의 각 지역 위원회에서도 젠더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Arab Women 1995: Trends, Statistics and Indicators*(1995), *Women & Men in the Arab Region: A Statistical Portrait 2000*(1999)

2) Wistat 개발과정에 대해서는 UN(1989, 1990) 참고.

3) UN SD Common Database는 http://unstats.un.org/cdb_help/cdb_quick-start.htm/ 참고.

4) Wistat Version 4의 특징과 구체적인 수록 내용은 UN 통계국의 Wistat 홈페이지 <http://www.un.org/Depts/unsd/gender/wistat/wistat.htm> 참고.

(ESCWA: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Women and Men in the ESCAP Region*(1999)(ESCAP: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Women and Men in Europe and North America*(2000)(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등이 UN 산하의 각 지역 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표적인 젠더통계간행물이다.

이외에도 ECE 지역 국가들의 젠더통계 생산 및 이용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변화 점검을 위한 젠더통계 웹사이트”(“Gender Statistics website for monitoring change”) 구축 프로젝트가 ECE 통계국, ECE 지역 국가의 통계담당 부서, UNDP 등이 참여하여 3년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젠더통계의 개선과 함께 이 프로젝트는 주요 개념과 지표의 정의, 측정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젠더통계의 일반적 틀을 개발하며, 국가간, 지역간 비교가능성의 증진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다.⁵⁾

이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개발, 생산되고 있는 젠더통계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성불평등 해소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실천적인 성격이 강하다. 둘째, 양성(兩性)의 통계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통계가 남성 위주의 제도와 이론에 기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성 모두의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여성의 지위개선을 위해서는 여성만의 통계는 의미가 없고, 남성과의 비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셋째, 젠더통계는 기존의 통계를 재검토하고 통계분야를 확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통계의 사용에 있어, 통계가 일부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의 전유물이 아닌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통계 이용자와 사용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5) “Gender Statistics website for monitoring change” 프로젝트의 소개와 웹사이트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ECE/UNDP(2000)과 <http://www.unec.org/stats/gender/> 참고.

3. 주요 선진국의 젠더통계 생산 현황

가. 스웨덴

1) 제도적 장치

1994년 평등 기회에 대한 스웨덴 의회 선언(Swedish Parliamentary Bill on equal opportunity)은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 제안서의 계획 단계와 분석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이 여러 사회 집단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문이 전국 수준과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항상 제기된다.

1994년부터 젠더통계가 스웨덴 공식 통계 체계의 일부로 통합되었다. 또한 1994년 공식통계에 관한 법령(the Ordinance on Official statistics)에 신설 조항, 10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특별하고, 모순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개인과 관련된 공식 통계는 성별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이 단순히 다른 많은 변수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통계 분석과 제시에 있어서 기본적인 분류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개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통계가 성별로 수집, 편집,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사회 분야의 양성 관계와 그 효과의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⁶⁾

스웨덴 통계청 내부에서 젠더통계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독립적인 단위 부서로 출발하였다.⁷⁾ 즉 기존의 통계간행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여성과 남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1980년 스웨덴 최초의 평등기회법 등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통계에 대한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내, 외

6) 스웨덴 이외에 통계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로 성별 분리 통계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와 해당 법령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8년 통계법(The South Africa Statistics Act of 1998), 필리핀 공화국법 7192(여성발전과 국가-건설법the Women in Development and Nation-Building Act) 등이 있다(UN,2000:xviii).

7) 이하의 스웨덴 통계청 내부의 양성 통계 부서와 관련된 내용은 스웨덴 및 핀란드 통계청의 양성 통계 업무와 관련된 연구진의 e-mail 질의에 대한 스웨덴 통계청의 양성 통계 담당자 가운데 한 사람인 Pehr Sunderström의 답변에 기반한 것이다.

적인 압력의 결과 1983년 스웨덴 통계청에 독립 부서로 양성 통계부가 설치된다. 설치 당시 양성통계과는 상근직의 부서장 1명과 주무 업무와 양성 통계 업무를 시간제로 병행하는 6명을 총원하였다. 그리고 매년 140,000달러(USD)의 부서 예산을 배정 받았다. 이후 양성통계과는 1984년 “스웨덴의 여성과 남성”을 시작으로 권력, 임금 격차, 교육, 범죄 등과 같은 주제별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였다. 또한 양성 통계의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스웨덴 통계법의 개정을 이루게 된다. 모든 통계의 생산에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통합하는 주류화에 따라 양성통계과는 1999년 스웨덴 통계청의 인구분석과에 통합되었으며 현재 2명의 선임 통계원이 양성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B)} 그리고 이들의 주요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요구와 위임 업무에 따른 양성 통계 생산
- 다양한 이용자 대상의 강연, 교육과정과 세미나를 통한 양성 통계의 이념의 교육과 확산
- 사회의 성 이슈를 좀더 잘 반영하기 위한 통계 시스템 변화 작업과 통계 전문가 교육
- 국제 업무 참여

2) 주요 통계 생산물 및 조사활동

스웨덴 통계청은 “스웨덴의 여성과 남성, 현상과 통계”(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를 정기적(3년마다 스웨덴어로)으로 발간하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은 이 책을 1984년 최초로 스웨덴어판으로 공개한 이후 1985년 나이로비에서 영문 개정판을 공개함으로써 젠더통계간행물 생산에 있어서 선두 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UN, 2000). 이후 1990년, 1995년, 1998년과 2000년에 영문판을 발간하였다. 2000년 영문판의 경우, 11개 분야

B) 스웨덴 통계청 Pehr Sunderström은 2001년 11월 보내온 e-mail에서 양성통계과의 통합 시점을 '2년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의 총 122개의 주요 그림 및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스웨덴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⁹⁾

1997년 6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여러 관리직급의 남녀 관리자에 대한 심층 연구서인 "상위직의 여성과 남성, 1995년 인원과 임금 현황"(*Women and Men at the Top. Facts on Numbers and Salaries 1995*)이 스웨덴 노동부 평등과(the Equality Affairs at the Ministry of Labour)의 위탁을 받아 발간되었다.

이와 함께 1996년 발간된 *Engendering Statistics: A Tool for Change*는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젠더통계 훈련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2000년 현재 스웨덴 통계청이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기구(SIDA)의 지원을 받아 젠더통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국가는 아프리카 13개국, 아시아 8개국, 라틴 아메리카 4개국, 유럽 7개국 등이다(Statistics Sweden 1998; Statistics Sweden 2000).¹⁰⁾

이외에 스웨덴 통계청의 주요한 조사활동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공헌을 파악하기 위해 1990/1991년 20-64세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 사용 조사가 있다. 조사 결과는 여러 하위 집단의 여성과 남성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그리고 스웨덴 통계청은 시간 사용 연구 분야에서의 개발 작업을 책임지고 있다. 가구 생산과 소비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가구 구성원의 수입, 지출 그리고 시간사용을 측정하고 분석할 방법을 개발하였다. 시간사용조사는 가구 생산에 집중된다. 또한 스웨덴 통계청은 18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모델인 Eurostate의 시간사용조사 프로젝트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9) <http://www.scb.se/eng/befovalfard/levnadsforhallanden/jamstalldhet/publikation.asp> 참고.

10) 이들 가운데 22개 국가가 "Women and Men in X-country. Facts and Figures 19"라는 제목으로 해당 국가의 남녀 상황을 보여주는 소책자 형태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였다(Statistics Swede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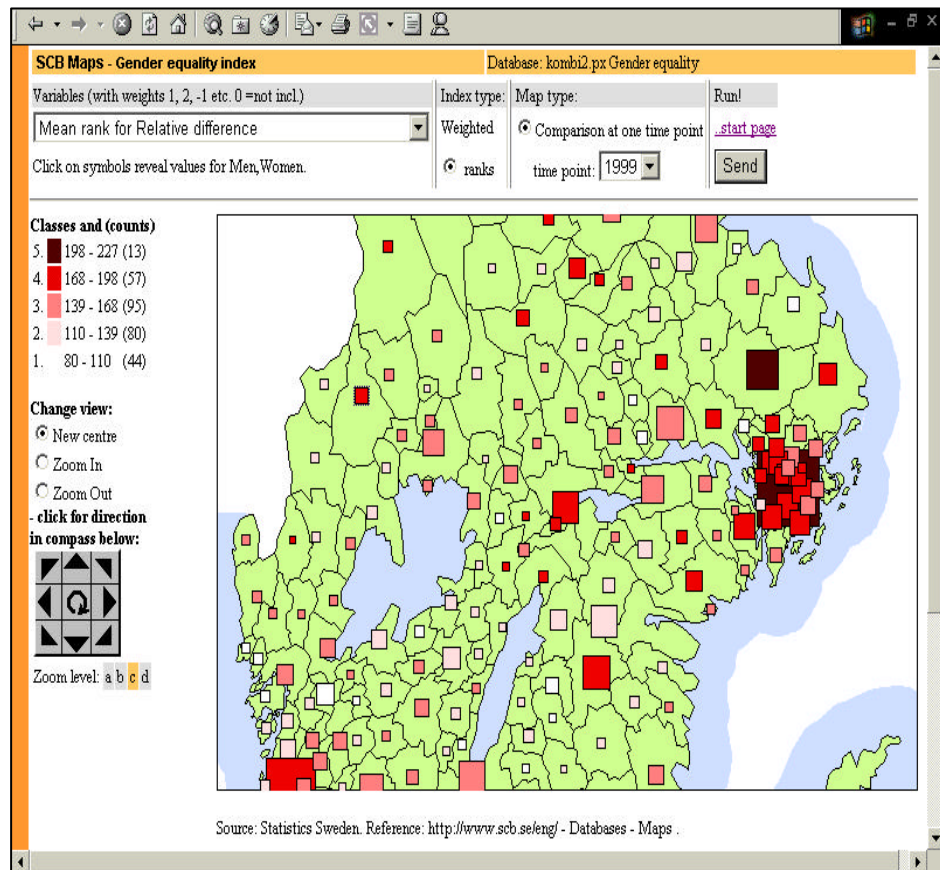
<표 II-2> 스웨덴 통계청 Equal X의 표준 변수

- 중등 이상 학력 소지자 인구 비율
- 취업 인구 비율
- 전일제 취업 인구 비율
- 구직자 비율
- 취업에 의한 총수입
- 육아 휴가 급여 일수
- 단기 육아 휴가 급여 일수
- 시립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비율
- 유병률
- 시의원 비율
- 시청 간부 비율
- 9인 이상 고용 기업주
- 20-64세 인구의 평균 연령

한편 스웨덴 통계청은 스웨덴의 도시별 성 평등 지수를 산출하여 그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제시하는 “Equal X”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II-1> 참고). 2001년 1월 최초의 Equal X 버전이 공개된 이후, 현재는 도시별 성 평등 지수와 다음과 같은 표준 변수의 도시별 상황을 지도와 표를 통해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¹¹⁾

11) 스웨덴 통계청의 “Equal X”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h.scb.se/SCB/BOR/SCBBOJU/jam_html_en/index.html 참고. 노르웨이 통계청 역시 도시별 성 평등 지수를 공개하고 있다(<http://www.ssb.no/emner/00/02/10/likekom/> 참고). 1999년 노르웨이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양성 평등 촉진에 있어서 지역 정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노르웨이 지역별 성평등 지수(a 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의 개발과정과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Randi Kjeldstad and Jan Erik Kristiansen(2000) 참고.

<그림 Ⅱ-1> 스웨덴 통계청의 'Equal X' 서비스 화면



나. 핀란드

1) 제도적 장치

핀란드의 젠더통계의 위상을 개선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은 1995-2000 젠더통계 발전 계획(*Plan for the development of gender statistics, 1995-2000*, 이하 '발전계획')과 양성 평등 촉진을 위한 핀란드 정부 행동 계획(*the Government's plan of action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Finland*, 이하 '행동계획')이다.

‘발전계획’은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초안이 작성되어, 핀란드 노동부 장관, 평등 옴부즈맨, 여성 지배적 노동조합의 지도자, 최초의 핀란드 평등 옴부즈맨이었던 의회 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세 미나를 거쳐 1996년 가을 핀란드 통계청 관리자 그룹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젠더통계가 확고한 자리를 잡았을 뿐 만 아니라 매년 활동 계획 과정이 용이해지고 추가적인 지원 자원의 충당이 촉진되었다.

‘발전 계획’의 주요한 목표는 핀란드 여성과 남성의 평등 기회에 대한 정보 욕구를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상적일 뿐 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키면서도 해당 정보를 가능한 유연하고, 빠르게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소비자 서비스의 개선이다. 그리고 ‘발전 계획’은 기존 통계들을 재검토하여 의사 결정,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적 참여/무급 노동 등을 발전이 필요한 통계 분야로 제시한다.

이외에도 통계 내용과 방법의 개선, 평등 지표의 개발, 개발 작업에 있어서 사용자와 생산자의 연계 향상, 지역 수준에서의 양성 통계 생산, 좀더 효율적인 자료 배포를 위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안서는 개선 활동이 있어야 하는 분야로 의사결정과 권력 행사,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남성의 경제 참여, 국가 계정에 따라 무급 노동으로 묘사되는 위성 계정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것들과 연계하여 남녀간의 평등과 평등 기회 지표의 구성을 제안한다. 좀더 효율적인 자료 배포를 위한 제안으로는 통계 요약집의 발간, 정기적인 남성과 여성 지위의 제시, 핀란드 통계청 자료에 기반한 맞춤형 특별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시작, 그리고 양성 통계 배포에 있어서 전자 매체의 활용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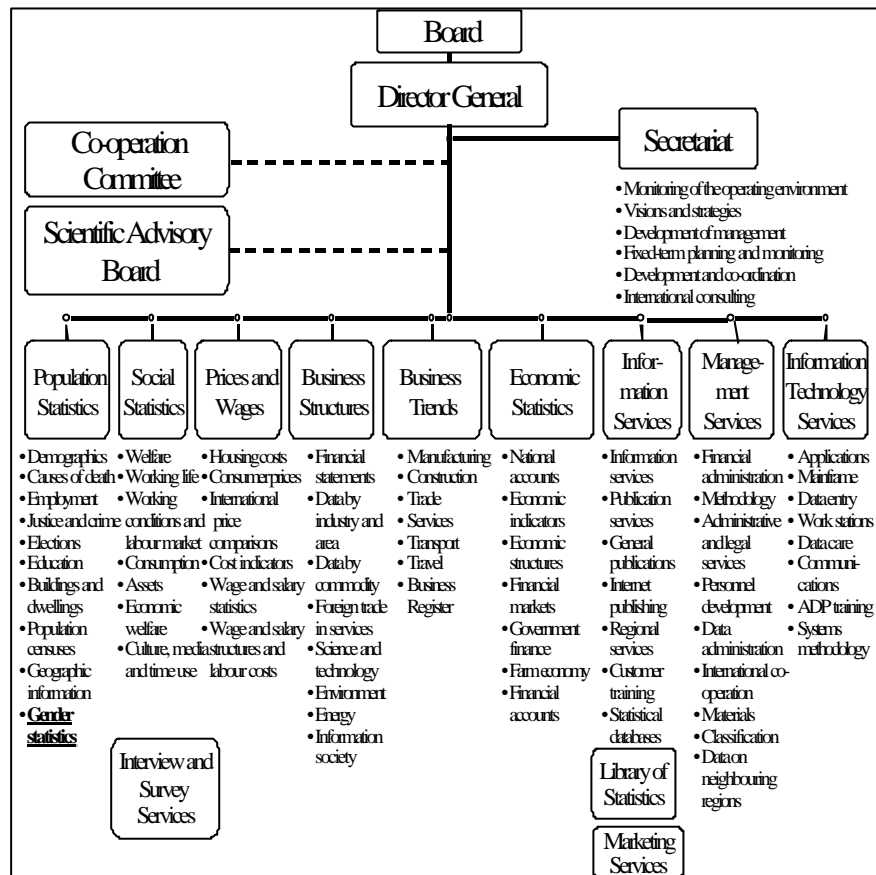
1997년 겨울에 공개된 “행동 계획”에도 통계에 관한 장이 포함되어 있다. “행동 계획”에서는 주류화와 함께 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행동 계획”에 따라 새로운 수단인 평등 척도의 개발이 제안된다. 즉 “성인지적 관점을 국가 행정에 통합하는데 있어서 통계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젠더 분석은 통계 데이터와 그것의 가공에 있어서 새로운 필요조건을 제기한다. 여러 정부 부처와 핀란드 통계청은 보건사회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류화 프로젝트의 일부로 기존 통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핀란드 정부는 또한 “양성 평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점점하여 상황을 변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인간 관계, 가족 생활, 조직, 노동 생활과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과 관련된 여성과 남성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인 평등 척도는 최소한 매년 발전,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은 또한 평등 척도 개발에 있어서 핀란드 통계청과 이용자의 공조를 강조한다.

핀란드 통계청의 양성 통계 업무는 현재 인구통계과(the Population Statistics unit)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전 계획”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양성 통계는 스웨덴 통계청의 인구, 가족 생활, 교육, 노동력, 고용, 임금과 봉급, 선거, 범죄, 폭력 등과 같은 주제별 데이터의 수집, 생산 부서별로 생산한 여성과 남성 관련 데이터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여러 통계 분야의 조정관과 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으며, 협동 프로젝트와 특별 프로젝트 그리고 통계요약집 생산은 대부분 이들 조정관에 의해 조정, 관리, 시행된다. 처음 시간제 업무였던 조정관의 지위는 1994년 정규직이 되었다. 이후 “발전 계획”에 따라 핀란드 통계청에서 양성 통계 조정 업무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양성 통계 조정은 별개의 업무 영역이 되어, 인구와 가족 통계, 교육 통계, 선거와 범죄 통계, 고용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가 집약되는 인구통계과에 배치된다(<그림 Ⅱ-2> 참고). 현재 핀란드 통계청 인구통계과의 양성 통계 업무는 1명의 선임 통계원과 2명의 보조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¹²⁾

12) 이하 핀란드 통계청의 조직도와 인원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핀란드 통계청의 Pia Pulkkinen의 답변에 기반한 것이다.

<그림 II-2> 핀란드 통계청의 조직과 업무분장



주: 핀란드 통계청의 양성 통계 업무는 2001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운 "인구 및 양성 통계과(Demographic and gender statistics)"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자료: 핀란드 통계청(Statistis Finland) 내부자료 재구성.

2) 주요 통계 생산물 및 조사 활동

핀란드 통계청은 1980년과 1984년에 여성 관련 통계간행물인 *Naisten asema*¹³⁾를 각각 핀란드어판으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1994년과 1995년에 *Women and Men in Finland*를 핀란드어판과 영문판으로 발간한 이후 1998년과 1999년 그리고 2001년에 동일한 제목의 젠더통계간행물을 발간하였다.

13) 영문으로는 *Women's position*에 해당.

또한 리플릿 형태의 간행물인 *Facts and figures about women and men in Finland*를 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인구, 가족, 교육, 취업, 소득, 사회참여 등 6개 분야의 총 23개의 그림과 통계표를 공개하고 있다.¹⁴⁾

핀란드 통계청은 민간 부문 남녀 지도자의 1993년 상황과 1990년~1993년까지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1996년에 완결하여 그 결과를 1996년 가을 핀란드어판, 1997년 말 영문판으로 발간하였다. 그리고 1997년 가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지도자에 대한 비교가능한 통계의 획득을 위해 공공 분야의 지도자 직업을 확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피해자 면접 조사를 1997년 핀란드 보건사회부와 공동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핀란드 통계청은 “행동 계획”에서 제안한 평등척도 계획을 1997년 가을 평등 위원회(the Council for Equality)의 여성 연구 소위원회와 함께 수립하였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는 15세에서 74세 연령 집단의 약 2,400명과의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다. 약 30분간 이루어진 면접을 통해 양성 평등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의식 그리고 경험, 예컨대 인간 관계, 가족 생활, 조직, 노동 생활 그리고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과 관련된 태도와 경험 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다. 캐나다

1) 제도적 장치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북경 행동 강령이 채택된 이후 캐나다에서도 성과 관련된 연구와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모든 연방 정부 부서는 양성 평등을 위한 연방 계획(the Federal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에 의거해서 성 인지적 분석 시행 책임을 갖는다. 연방 계획에는 양성 평등 증진에 있어서 캐나다 정부의 기여를 요약하고 정부의 평등 공약을 강

14) http://www.kilastokeskus.fi/tk/he/tasaarvo_en.html 참고.

화하고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독립)과 복지 향상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평등의 달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연방 계획의 8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연방 정부와 기구에서의 젠더 분석 시행
2.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과 복지 향상
3.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 향상
4. 사회의 폭력,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축소
5. 캐나다의 모든 문화 생활에서의 양성 평등 촉진
6. 통치와 여성 관점의 통합
7. 세계 양성 평등의 촉진과 지원
8. 연방 정부와 기구 고용인의 양성 평등 증진

캐나다에서는 집중화된 통계 기관인 캐나다 통계청이 국가 통계의 수집을 책임진다. 연방법인 통계법(the *Statistics Act*)에 따라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의 모든 사회, 경제적 측면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 정보를 수집, 편집, 분석, 요약, 발간한다. 캐나다 통계국은 조사와 정부 자료 처리를 통해 통계 정보를 생산한다.

여러 측면에서 캐나다 통계국의 성 주류화는 성공적이다. 즉 가구 조사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성별에 의해 분리되고, 많은 젠더 분석 전문가들이 캐나다 통계청에 두루 포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통계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의 조정 및 협조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Statistics Canada, 2000).

2) 주요 통계 생산물 및 조사활동

캐나다 통계청은 1985년부터 5년 주기로 *캐나다의 여성(Women in Canada)*을 발간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최신판이 발간되었다. 이 통계자료

는 캐나다 통계청과 기타 자료원의 관련 통계를 편집한 것으로, 캐나다 인구의 특징을 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2000년판의 경우 본문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5개의 도표와 190개의 통계표를 통해 캐나다 여성의 지위를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문의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민 여성, 주요 소수민족 여성, 원주민 여성, 여성 노인 등 개별 여성 집단의 주요한 특징들을 제시하고 있다.¹⁵⁾ 그리고 5장 유급 및 무급 노동(Paid and Unpaid Work) 부문의 내용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되어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¹⁶⁾

이 외에도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여성 지위부와 함께 1998년 *여성 자료 검색: 캐나다 통계청 주요 자료원 가이드(Finding Data on Women: A Guide to Major Data Sources at Statistics Canada)*라는 참고문헌을 발간하였다¹⁷⁾. 그리고 1997년에는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여성 지위 담당 부서의 의뢰에 따라 보고서 *남녀경제평등지표(Economic Gender Equality Indicators)*를 발간하였다.

젠더통계의 수집과 관련된 주요 활동으로 캐나다 통계청은 시간사용조사를 통한 무급 노동의 측정과 가치평가, 폭력의 측정 그리고 종단 조사(longitudinal surveys)를 실시하였다.

가사 노동의 양과 가치에 대한 최초의 추정이 1978년에 캐나다 통계청에 의해 발표되었다. 1986년 전국 수준의 시간사용정보가 사회통조사(the General Social Survey, GSS)를 통해 최초로 수집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급 노동 활동을 측정하고 그것을 가치 평가하였다. 가치 평가 방법에 따라 무급 가사노동은 1992년 국내총생산(GDP)의 32%에서 54%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간사용조사는 1992년과 1998년에도 이루어졌

15) *Women in Canada 2000*의 구성은 <http://www.statcan.ca/english/lps/Data/89-503-XPE.htm> 참고.

16) 2001년의 갱신된 내용은 <http://www.statcan.ca/english/freepub/89F0133XIE/free.htm> 참고.

17) 이 외에 캐나다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은 2000년 27쪽 분량의 소책자 형태의 *Women and Canada: A Statistical Glance*를 발간하였다(<http://www.swc-cfc.gc.ca/> 참고).

으며, 1996년과 2001년에는 무급 노동과 관련된 질문들이 인구 총조사에 추가되었다.

1993년 캐나다는 최초로 전국 여성 폭력 조사(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VAWS)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성인 여성의 절반이 평생동안 최소한 한번의 폭행이나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9년 범죄피해에 대한 GSS에 VAWS에서 사용된 문항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배우자 학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은 남성과 여성에게 이루어져 처음으로 배우자 학대의 양상을 성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 당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8%와 남성의 7%가 지난 5년 사이에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하지만, 배우자 폭력의 성격과 결과는 여성에게서 좀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실시한 종단 조사 역시 젠더통계를 보충한다. 노동과 수입 변화 연구(the 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 SLID), 전국 아동과 청소년 장기 조사(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청소년 변화 조사(the Youth in Transition) 전국민보건조사(the 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 업체 및 고용인 조사(the Workplace and Employee Survey)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종단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가 있는 여성의 강한 노동시장 애착이나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Statistics Canada, 2000).

라. 아이슬란드

1) 제도적 장치

아이슬란드의 젠더통계는 아이슬란드 통계청과 평등지위국(the Equal Status Bureau)을 중심으로 생산된다. 아이슬란드 통계청에서는 한 명의 직원이 젠더통계 생산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젠더통계 생산의 중요한 법적 근거는 200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

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Act on the Equal Status and Equal Rights of Women and Men)*이다. 이 법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지위와 평등한 기회를 확립, 유지하고 그에 따라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 a.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 b. 사회의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영향력을 갖고 활동.
- c. 여성과 남성 양자가 직장가 가정 의무의 병행을 가능하게 할 것.
- d. 특히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고 사회에서 여성의 기회를 확대할 것.
- e. 평등 교육의 확대.
- f. 성에 의한 통계 분석.**
- g. 성 연구 확대(여성학 연구 확대).

항목 f와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은 21조에서 공식 통계 생산, 면접과 여론조사에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정보는 성별로 수집, 편집, 분석 그리고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tatistics Iceland, 2000).

아이슬란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과 더불어 *의회*의 평등 문제에 관한 4년 행동 계획 결의(parliamentary resolution on a 4 years plan of action on matters of equality)를 도입했다. 이 행동 계획은 198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최근 1998년~2001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되었다. 아이슬란드 정부의 양성 평등 업무의 초석이 되고 있는 행동 계획은 정부부처와 평등 지위 위원회의 기획안에 기반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 교육, 대의 기구, 사회 문제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려는 특별 조치들을 제시한다. 행동 계획에도 역시 공식 성별 통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주요 통계 생산물 및 조사 활동

1994년과 1997년, 특히 양성 통계와 관련된 소책자 *아이슬란드의 여성과 남성(Women and Men in Iceland)*이 발간되었다. 그것은 여성과 남성의 지위와 관련된 중요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 의료, 교육, 고용, 임금과 수입 그리고 의사결정을 포함하는 사회의 여러 측면을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포괄한다. 소책자는 아이슬란드어판과 영문판이 있다. 2000년 현재 신판이 준비중이며, 1997년판의 주요 통계표 및 그림이 아이슬란드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¹⁸⁾

그리고 아이슬란드 통계청은 다른 북유럽 국가의 통계 부서와 공조하여 1985년부터 북유럽 국가의 여성과 남성, 현상과 통계(*Women and Men in the Nordic Country. Facts and Figures*)를 북유럽 각료 회의(the Nordic Council of Ministers)의 지원으로 1993년, 1994년 그리고 1999년 세 번에 걸쳐 발간하였다.

아이슬란드 통계청이 1991년 시작하여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조사는 해당 분야에서 매우 필요한 성별 통계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996년 시작된 학위취득자 그리고 1998년에 시작된 교원 인력(personnel in schools)에 대한 데이터 정기 수집은 해당 분야의 새로운 양성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성별 보건 통계는 부분적으로 등록자료(사망 원인, 암 등)와 조사 또는 기타 자료원에 기반하고 있다. 보건 면접 조사는 드물고 종종 특별한 보건 문제가 조사되었기 때문에 좀더 일반적인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1998년에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개된 결과물은 거의 없다. 흡연 조사는 1987년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건강 증진 관련 조사는 1994년과 1996년 두 번 실시되었다. 이들 조사는 모두 성별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의약품 사용에 대한 성별 정규 통계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개선될 계획이다.

18) <http://www.statice.is/stat/konur1.htm> 참고.

이와 더불어 여러 해 동안 사회 보장 혜택 유형별 수혜자 통계를 발간해 온 국립 사회보장 연구소(the State Social Security Institute)는 1996년부터 성별 통계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의 젠더통계 가운데 임금과 수입, 경제적 소유권, 기업의 경영자와 간부와 같이 영향력 있는 지위 등과 보건, 과학, 시간 사용, 무급 노동 같은 분야에서의 개선이 지적되고 있다.

UN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젠더통계간행물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¹⁹⁾ Wistat를 기반으로 발간되는 The World's Women은 1991년 최초로 발간된 이후 약 5년 주기로 UN 통계국 사회 및 주택통계부에 의해 발간되고 있다. 배포는 책자와 CD-ROM의 판매와 함께 간행물의 일부 내용과 통계표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함께 UN 통계국의 종합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접속을 통해 접근 가능토록 하고 있다. 통계표 및 그림과 함께 각 분야의 중요한 경향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주요 개념 및 참고 자료 등을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통계보고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주요 수록 분야로는 인구, 가족, 보건, 교육 및 정보통신, 노동, 인권과 정치 참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6장 인권 및 정치 참여에서는 신체적 학대, 성폭력, 전성 성폭력, 여성 매매, 강제 매매춘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지역별 통계 및 해설을 실어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UN 난민 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난민 통계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남녀 난민의 서로 다른 요구와 경험을 지적하면서, 난민 통계의 성별 분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의 베스트 셀러로 젠더통계간행물의 국제적 전형이 되고 있는 *Women and Men in Sweden*은 1984년 스웨덴어판으로 최초 발간된 이후 약 3년 단위로 스웨덴 통계청 양성통계부에 의해 발간되고 있다. 책자와 스웨덴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문 공개에 의해 주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

19) “여성통계연보”와 관련된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 인구, 보건, 교육, 시간사용, 육아, 노인 개호, 취업, 임금, 수입, 폭력과 범죄, 영향력 및 권력 등 비교적 세분화된 11개 분야별로 주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 구성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시간 사용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구성하고 임금 통계와 함께 소득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부분에서는 임금, 이자, 자본 소득 및 다양한 사회보장 급여 등을 포함한 연령별 남녀 소득 격차 등을 보여주고 있다. 영향력과 권력 부분에서는 1973년 이후 실시된 스웨덴 총선의 남녀 투표율, 1998년 국영 기업체 운영진의 성별 분포, 노동조합 집행부 및 노조원 성별 분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경영자의 성별 분포 등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 주택, 가족 및 사회통계부에 의해 발간되는 *Women in Canada*는 1985년 최초로 발간된 이후 약 5년 주기로 발간되고 있다. 주로 책자 판매를 통해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5장 무급 및 유급 노동 부분의 내용이 매년 갱신되어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인구, 가족, 보건, 교육, 노동, 수입 및 소득, 주택 및 가구 설비, 치안, 이민 여성, 주요 소수 민족 여성, 원주민 여성, 여성 노인 등으로 내용이 구성된다. 5장 유급 및 무급 노동에서는 여성 취업과 관련된 내용 뿐 만 아니라 여성 자원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Women in Canada*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여성 집단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민 여성, 소수 민족 여성, 원주민 여성, 노인 여성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각 집단의 교육, 가정, 직업, 언어 등에서 나타나는 경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1994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Women and Men in Finland*는 핀란드 통계청 인구통계부에서 현재까지 약 4년 주기로 발간되었다. 책자와 함께 주요 통계가 핀란드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인구, 가족, 교육, 고용, 수입, 사회 참여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가족 부분에서는 편부, 편모, 동거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비율과 함께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고용 부분에서는 자녀수별 여성의 노동력 참여 통계와 더불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취업자수를 성별

로 제시하고 있다.

<표 II-3> 주요 전더통계간행물의 특징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	Women and Men in Sweden, Facts and Figures	Women in Canada: a gender-based statistical report	Women and Men in Finland	여성통계연보
최초 발간년도	1991	1984 (1985) ¹	1985	1994 (1995) ¹	1994 ²
발간주기	5년	3년	5년	4년	1년
발간부서	UN 통계국 사회 및 주택통계부	스웨덴 통계청 양성통계부	캐나다 통계청 주택, 가족 및 사회통계부	핀란드 통계청 인구통계부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
배포형태	책자/인터넷 ^a /CD-ROM (WISTAT)	책자/인터넷 ^c	책자	책자/인터넷 ^a	책자/인터넷 ^b
수록분야 ⁴	인구	인구	인구	인구	인구
	가족	보건	가족	가족	가족
	보건	교육	보건	교육	교육
	교육 및 정보통신	시간사용	교육	고용	경제활동
	노동	육아	유급 및 무급노동	수입	보건
	인권과 정치참여	노인 간호	수입 및 소득	사회참여	복지
		취업	주택 및 가구설비		정치 및 사회참여
		임금	치안		문화 및 정보
		수입	이민 여성		안전
		폭력과 범죄	주요 소수민족 여성		국제 비교
		영향력과 권력	원주민 여성		특집
			여성 노인		

주: 1. 해당 통계간행물의 영문판 발간년도.

2.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라는 제목으로 1986년과 1994년 2회 발간 후, 1994년 "여성통계연보"로 명칭 변경과 함께 매년 발간.

3. 배포형태의 인터넷 a는 해당 통계간행물의 본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b는 해당 통계간행물에 수록된 통계 또는 지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가 재가공할 수 있는 경우, c는 해당 통계간행물 이외의 양성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여: 스웨덴 통계청의 "Equal X", 노르웨이 통계청의 "Gender Equality Index" 등).

4. 각 통계간행물의 수록분야는 2000년판을 중심으로 구성.

「여성통계연보」 체계 개편

-
1. 국내외 젠더통계와 「여성통계연보」 37
 2. 「여성통계연보」 전체 체계의 개편 42
 3. 부문별 체계 개편 48
-
-

1. 국내의 젠더통계와 「여성통계연보」

가. 국내의 젠더통계 현황

1) 젠더통계 생산에 대한 정책

젠더통계 생산에 대한 기본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에는 성별통계작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에서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부의 성격 상 여성과 관련된 모든 통계생산을 직접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통계청과 각 부처의 통계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부에서는 「성 인지적 통계의 구축」,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행정부문」 등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 부처에서 통계를 생산할 때 성 인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사 시행령 제25조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① 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 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② 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제25조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 정부 통계의 성별 분리 현황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성 차별적인 현상을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되고 있는 모든 개인적 차원의 통계를 성별로 수집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부통계의 성별분리현황을 분석하면, 대부분의 조사통계시 조사표에 성별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발간단계에서는 모든 통계를 성별 분리하여 발표하기보다는 연령, 지역 등 다른 독립변수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여 일부 범위에 한정하여 분리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에 통계청과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는 6개부처의 통계조사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광공업 통계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등 산업조사에서 대표자와 종사자에 대한 성별 문항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성별 문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유경, 1999). 그러나 발간된 통계표 중에서 성별로 분리되지 않은 통계표가 상당량 보여지는데 이는 편집과정에서 담당자가 통계표의 내용상 성별분리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문별 생산현황을 보면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등의 국가운영에 필요한 기초통계는 비교적 내용이 풍부한 편이나 사회복지, 범죄, 정치참여, 사회참여 등 삶의 질을 보여 줄 수 있는 통계들이 부족한 편이다.

3) 젠더통계 간행물 발간현황

기존 통계의 성별 수집과 발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와 함께 젠더와 관련된 현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젠더통계 간행물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젠더통계로 가장 먼저 발간된 것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86년에 발표한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로서 여성과 관련된 중요한 통계들을 취합하여 성별로 비교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후 1993년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가 2차로 발간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의 명칭으로 매년 발간되었다.

통계청에서는 발표된 주요 젠더통계 간행물로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총 3번 발간한 「여성의 사회활동 실태 국제비교」와 1997년부터 매년 발

간하고 있는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 있다.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은 여성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직접 생산된 통계자료를 가공하여 미발표된 최신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취급하고 있는 통계내용이 그다지 풍부하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다.

이 외에 노동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여성과 취업」과 행정자치부의 「여성과 공직」, 여성부의 「여성백서」, 서울시의 「서울여성백서」 등은 통계간행물은 아니지만 부처내 내부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무부의 「법무부 여성통계」는 법무부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발표하여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나 성별비교가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여성부의 「통계속의 여성의 생활과 지위」, 보건복지부의 「여성보건복지: 현상과 통계」 등은 기존의 통계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가공함으로써 젠더통계의 보급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농림부는 농촌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촌여성의 복지지표를 현재 개발 중에 있다.

나. 국내의 대표적 젠더통계로서 「여성통계연보」의 의의와 한계

1) 「여성통계연보」의 의의

현재 발간되고 있는 「여성통계연보」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지표가 여성의 삶의 질을 측정에 있어서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여성의 상태 파악, 여성의 지위평가,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986년과 1994년 각각 발간된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²⁰⁾ 「여성통계연보」는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와 달리 급격한 사회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상태와 지위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도별 변화에 따른 시계열적

20)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의 발간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는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pp.3-5 참고.

분석이 가능하도록 명칭 및 체계 변화와 함께 1994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현재 「2001여성통계연보」까지 총 8개 년도에 걸쳐 발간되었다.²¹⁾

「여성통계연보」는 국내에서 발간된 젠더통계물로서 가장 역사가 길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젠더통계라 할 수 있다. 「여성통계연보」를 통하여 제시된 젠더통계들은 여성문제의 이슈화와 정책수립에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자체 생산통계는 아니지만 통계 원자료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존의 간행물을 재편집하여 가능한 남녀비교를 하거나 여성고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차별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동시에 이러한 차별의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이후 발표된 젠더통계 간행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통계연보」의 한계와 과제

「여성통계연보」가 8년간의 발간을 통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젠더통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시초부터 내재된 문제점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는 작업은 단지 「여성통계연보」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의 젠더통계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여성통계연보」의 한계는 크게 내용의 포괄성과 축약성사이의 갈등과 생산통계가 아닌 편집통계로서의 한계로 귀결된다. 먼저 내용의 포괄성과 관련된 문제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각 부문에서 기본적인 통계만을 다룰 뿐 보다 자세한 통계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지역통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인구부문을 예로 들면 연령별, 성별분포에 대한 통계는 전국통계만 제시되어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별로 나와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여성노인인구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지역통계가 적은 이유는 지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1) 「여성통계연보」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여성개발원(1994), 「여성통계연보」, 발간사 및 pp.1-4 참고.

비슷한 선상에서 게재연도의 문제가 있다. 한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 십년간의 경향을 볼 수 있는 통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지면의 한계상 몇 개 연도 만을 선택적으로 게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면상 한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개발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여성통계」를 활용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인터넷 「여성통계」에서는 수록내용과 게재연도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향후 포괄적인 젠더통계DB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통계연보」는 대표적인 통계만을 요약적으로 게재하여 간결성이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통계연보」가 갖는 한계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 발표된 통계를 재분석, 재편집하는 가공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의 신속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고, 동시에 통계의 고유성이 없는 한계가 있다. 게재시점의 지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인터넷 「여성통계」의 활용이 필요하다. 즉 「여성통계연보」는 연간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길게는 1년의 시차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 「여성통계」는 통계생산부처에서 발표하는 즉시 재분석하여 게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개발원이나 여성부 등에서 자체 조사를 기획하여 기존 통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생산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통계생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의 해결방안은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가공통계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성별차이가 확연히 간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지표 혹은 그림 등을 보다 많이 개발하여 게재하여 현재와 같이 통계수치 위주에서 탈피한다면 「여성통계연보」의 경쟁력이 제고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여성통계연보」가 지표보다 통계를 많이 게재하고 있는 것은 역시 지면상 한계로 인한 것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가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통계를 우선적으로 게재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의 문제가 인터넷 「여성통계」를 통하여 해결된다면 「여성통계연보」의 성격을 단순 통계제시에서 분석적인 지표의 제시로 전환할 수 있다.

2. 「여성통계연보」 전체 체계의 개편

「여성통계연보」의 전체 체계는 전부 10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에는 지금까지의 「여성통계연보」의 전체 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조사표 결과와 자문회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개편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연도별 구성부문을 중심으로 「여성통계연보」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²²⁾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의 경우, 1986년 발간 당시 영양과 주택

<표 Ⅲ-1>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와 「여성통계연보」의 연도별 구성

1986	인구	가족 가구	교육	소득고 용·경제 활동	보건	영양	사회 복지	주택	사회활동		공안		
1994 ^a	인구	가족 가구	교육	고용 경제 활동	보건		사회 복지		사회활동		공안	국제 비교	
1994 ^b	인구	가족 가구	교육	경제 활동	보건		사회 복지		사회활동		공안		특집
1995	인구	가족 가구	교육	경제 활동	보건		사회 복지		사회활동		공안		특집
1996	인구	가족	교육	경제 활동	보건		사회 복지		사회문화 활동		안전	국제 비교	특집
1997	인구	가족	교육	경제 활동	보건		사회 복지		정치 및 사회문화 활동		안전	국제 비교	특집
1998	인구	가족	교육	경제 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국제 비교	특집
1999	인구	가족	교육	경제 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국제 비교	특집
2000	인구	가족	교육	경제 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국제 비교	특집

주: 1) 1994a는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1994」, 1994b는 「여성통계연보1994」임.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각년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각 연도.

22) 발간물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통계연보」는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포함한다.

부문을 포함한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나, 1994년에는 영양과 주택 부문이 제외되고 국제비교가 새로이 추가된다. 소득·고용·경제활동 부문은 고용·경제활동으로, 「여성통계연보」로의 개편 이후에는 경제활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통계자료의 부재(소득),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젠더통계로서의 의미상실(영양, 주택),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강화(국제비교)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994년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의 구성체계에 따라 발간되기 시작한 「여성통계연보」는 1996년 가족·가구 부문, 사회활동 부문의 명칭 변경과 함께 국제비교가 추가되어 지속적으로 수록된다. 「여성통계연보」 구성의 중요한 변화는 1998년에 나타난다. 우선 이전의 사회복지 부문이 복지 부문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정치 및 사회문화활동 부문이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과 문화 및 정보 부문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문화에 대한 관심제고와 정보화 사회에서의 성차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표현이다.

「여성통계연보」의 부문별 통계표 수록 현황을 각 연도별로 보면 <표 III-2>와 같다. 2000년 현재까지 총 9회가 발간된 「여성통계연보」와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에는 매년 평균 184.6개의 통계표가 수록되었다.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의 경우, 1988년 211개, 1994년 174개의 통계표가 수록되었다. 명칭 변경과 함께 1994년 140개의 통계표가 수록, 발간된 「여성통계연보」는 이후 지속적으로 수록 통계표의 양이 증가하여, 2000년판에는 총 222개의 통계표가 수록, 발간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통계표가 수록된 부문은 경제활동 부문으로 매년 평균 51.9개(23.1%)가 수록되었다. 다음으로는 교육(25.8개, 14.0%), 보건(24.8개, 13.4%), 복지(21.2개, 11.5%) 순으로 통계표가 수록되었다.

수록 통계표의 증가와 함께 부문별 통계표 구성 비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림 III-1> 참고). 인구 부문과 가족 부문의 경우에는 1994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 전체 통계표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구성 비율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석은 경제활동 부문과 문화 및 정보 부문이다. 즉 경제활동 부문의 경우 1986년 당시 전체의 33.6%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

에는 23.4%를 차지하여 다른 부문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문화 및 정보 부문은 1998년 이전의 기존 문화 부문 통계표에 정보 부문의 통계표가 첨가됨에 따라 1986년 3.8%에서 2000년 9.5%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문화 및 정부 부문의 비율 확대와 함께 이전에 문화 부문의 통계표를 포함하고 있던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의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I-2>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와 「여성통계연보」의
부문별 통계표 수록 현황

단위: 개, %

	인구	가족	교육	경제 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계
1986	7 (3.3)	18 (8.5)	19 (9.0)	71 (33.6)	41 (19.4) ²⁾	25 (11.8) ³⁾	9 (4.3)	8 (3.8)	13 (6.2)	211 (100.0)
1994 ^{a)}	3 (1.7)	11 (6.3)	22 (12.6)	67 (38.5)	32 (18.4)	15 (8.6)	8 (4.6)	4 (2.3)	12 (6.9)	174 (100.0)
1994 ^{b)}	3 (2.1)	11 (7.9)	24 (17.1)	40 (28.6)	18 (12.9)	15 (10.7)	9 (6.4)	8 (5.7)	12 (8.6)	140 (100.0)
1995	4 (2.8)	11 (7.8)	23 (16.3)	40 (28.4)	18 (12.8)	15 (10.6)	10 (7.1)	8 (5.7)	12 (8.5)	141 (100.0)
1996	8 (4.7)	15 (8.8)	23 (13.5)	47 (27.5)	20 (11.7)	23 (13.5)	11 (6.4)	10 (5.8)	14 (8.2)	171 (100.0)
1997	8 (4.7)	15 (8.8)	25 (14.6)	46 (26.9)	19 (11.1)	23 (13.5)	12 (7.0)	9 (5.3)	14 (8.2)	171 (100.0)
1998	12 (5.6)	21 (9.8)	32 (15.0)	52 (24.3)	24 (11.2)	25 (11.7)	11 (5.1)	21 (9.8)	16 (7.5)	214 (100.0)
1999	12 (5.5)	23 (10.6)	32 (14.7)	52 (23.9)	25 (11.5)	25 (11.5)	11 (5.0)	21 (9.6)	17 (7.8)	218 (100.0)
2000	12 (5.4)	25 (11.3)	33 (14.9)	52 (23.4)	26 (11.7)	25 (11.3)	11 (5.0)	21 (9.5)	17 (7.7)	222 (100.0)
평균	7.67 (4.1)	16.67 (9.0)	25.89 (14.0)	51.89 (28.1)	24.78 (13.4)	21.2 (11.5)	10.2 (5.5)	12.2 (6.6)	14.1 (7.6)	184.7 (100.0)

주: 1) 문화 및 정보부문의 1998년 이전 수치는 각 년도 사회문화활동 부문에 수록되었던 문화 관련 통계표의 개수임.

2) 1986년 보건부문의 수치에는 영양 관련 통계표 7개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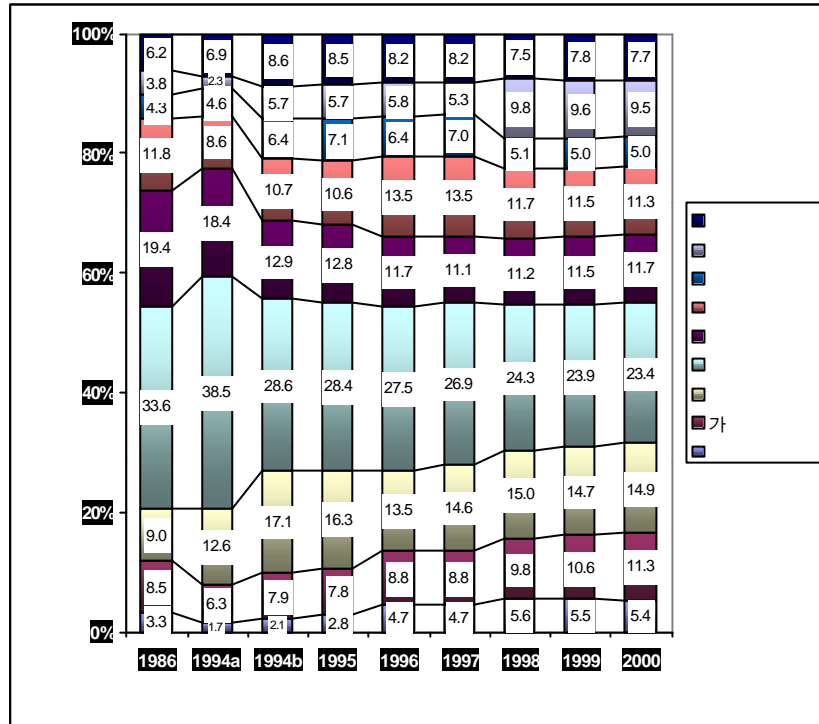
3) 1986년 복지부문의 수치에는 주택 관련 통계표 4개가 포함됨.

4) 1994a는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1994」, 1994b는 「여성통계연보1994」임.

5) 부문별 구분은 「여성통계연보2000」을 따름.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각년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Ⅲ-1> 「여성통계연보」 수록 통계표의 부문별 구성 비율 변화



「여성통계연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문별로 이용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제활동부문의 이용률이 가장 높아 응답자 197명중 84.8%인 167명이 '이용한 적이 있다'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육, 인구, 가족 복지부문의 순서로 모두 70%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이용률이 낮은 부문은 안전으로 29.4%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문별로 이용률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문별 통계의 게재량의 차이가 있어 경제활동 부문의 통계가 가장 풍부한 반면 안전부문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계들의 생산이 빈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관심분야를 반영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표 III-3> 부문별 이용경험률

단위: 명, %

	이용경험자수	이용경험률	이용경험률 순위
인구	150	76.1	3
가족	147	74.6	4
교육	156	79.2	2
경제활동	167	84.8	1
보건	104	52.8	9
복지	146	74.1	5
정치 및 사회참여	139	70.6	6
문화 및 정보	110	55.8	8
안전	58	29.4	10
국제비교	137	69.5	7

이러한 경향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문 상위 3개를 선택하게 한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경제활동부문은 112명이 선택하여 다른 부문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차순위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여 2순위가 인구부문, 3순위가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의 순서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표 III-4> 많이 사용하는 부문

단위: 명, %

	빈도수	비율	순위
인구	74	13.9	2
가족	65	12.2	5
교육	58	10.9	6
경제활동	112	21.0	1
보건	14	2.6	9
복지	67	12.6	4
정치및 사회참여	71	13.3	3
문화및 정보	21	3.9	8
안전	4	0.8	10
국제비교	47	8.8	7

취약한 부문으로는 국제비교를 가장 많이 선택하여 국제비교통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 및 정보, 안전의 순서로 통계내용의 취약함이 지적되었다.

<표 III-5> 취약한 부문

단위: 명, %

	빈도수	비율	순위
인구	12	3.0	10
가족	21	5.2	8
교육	17	4.2	9
경제활동	34	8.4	7
보건	35	8.7	6
복지	41	10.1	5
정치및 사회참여	45	11.1	4
문화및 정보	66	16.3	2
안전	64	15.8	3
국제비교	69	17.1	1

다음은 현재의 10개 부문 외에 더 추가해야 될 부문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 결과들은 특정집단에 대한 통계,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등으로 그 분류가 가능해진다. 이 중 특정집단에 대한 통계는 젠더통계의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통계연보」에서 취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III-6> 추가해야 될 부문

분류	추가해야 될 부문
특정 집단 통계	여성 비정부조직의 별도 통계 여성 자원봉사자 여성 농업인 관련 통계 청소년 부문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통계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 내부의 변화 성관련 문제 정보화 부문 환경
기타	보육관련 자료 제도 및 정책

이와 같은 기존의 「여성통계연보」 전체 체계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개편안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결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제, 교육, 인구부문은 관련 부문 통계생산량이 풍부하므로, 모두 게재하기보다는, 성별비교가 의미를 갖고있는 통계를 선별해서 게재하고, 기본적인 통계는 원래의 통계발간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내용이 빈약하고, 잘 이용되지 않는 국제비교, 안전, 문화 및 정보 부문의 통계는 적극적으로 통계를 발굴하여 새로운 통계를 보완하고, 현재 게재가 불가능한 내용은 향후 생산을 제안한다. 셋째 사회변화에 따른 성별 차이 혹은 차별의 상태와 문제점의 진단을 위해 각 부문별 개편시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넷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통계수치보다는 여성비율이나 남성대비 여성의 상황 등 가공, 편집된 지수 혹은 지표형태의 통계를 제공한다. 다섯째 객관적 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불평등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주관적 지표를 보충한다.

3. 부문별 체계 개편

가. 인구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출산율이 2000년에 1.47로 저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함.
- 사망률의 감소로 인해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의 급증하면서 노인부양비가 가파르게 상승함. 이에 따라 여성 노인인구 규모의 장래추이와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짐.
- 왜곡된 출생성비 여전.
- 지역별 인구분포와 이동에 대한 관심 증대.

2) 국제적 경향

스웨덴, 캐나다의 젠더통계 생산물과 UN, UNDP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인구부분의 젠더통계는 아래와 같다.²³⁾

<표 III-7>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인구부문 젠더통계

	인구부문 주요 주제
World's Women	전체 인구분포와 인구증가, 연령별 성비, 노인인구 구성비, 인구의 이동, 지역별 분포, 수돗물 공급률,
Human Development Report	평균수명, 40세와 60세 사망률 20세미만 출산,
스웨덴	인구, 평균수명, 사망, 이민, 이주, 국적, 혼인상태별 노인인구
캐나다	전체 인구, 성별분포, 지역별 여성, 이동, 이민, 사용언어, 원주민, 종교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인구부분의 주요 젠더통계로는 전체 인구의 성별 증감, 연령별 성비, 노인인구 구성비, 평균수명 등이다. 특히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연소인구대비 노인인구의 비중, 노인인구 중 여성인구의 비율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특별히 보여지는 것은 인종별 분포, 해외 이민자 등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이며, 국제기구에서는 수돗물공급 등 개발도상국의 문제와 중장년층의 사망, 20세 미만 여성의 출산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3) 기존의 통계체계

인구부분의 경우, 1986년 「인구규모와 변동」, 「인구구조와 분포」를 관심 영역

23) 참고한 통계생산물은 아래와 같다.

UN: World's Women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스웨덴: Women and Men in Sweden

캐나다: Women in Canada

<표 III-8> 인구부문 지표체계 변화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인구규모와 변동	인구규모	총인구추이
		인구변동	조출생률 조사망률 이민율 자연증가율 지역간 인구이동률
	인구구조와 분포	인구구조	인구구성 및 성비 연소연령·생산연령·노령인구분포 가임여성비 가임여성구성비 모아비
		인구분포	인구분포, 시부인구 및 여자인구 비율
1994a-1995	인구규모	인구규모	총인구추이
	인구구조	인구구조	인구구과 성비 연소연령, 생산연령, 노령인구분포
1996-1997	인구규모	인구규모	총인구추이
	인구구조	인구구조	인구구성과 성비 1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6세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 (1997부터 미수록) 인구구조
	출산(1997부터 출생)	출산(1997부터 출생)	출생성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출생구성비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1998-2000	인구규모와 이동	인구규모	총인구추이 (추계)
		인구이동	국내이동인구
	인구구성	성별인구	출생성비
		연령별인구	연령별인구 국민의 평균연령 인구구조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지수
		혼인상태별 인구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출생	출생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모의 출생구성비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주: *는 개별지표로는 설정되었으나 통계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임.

으로 설정하고, 다시 ‘인구규모’, ‘인구변동’, ‘인구구조’, ‘인구구조’를 각각의 세부관심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당 통계표를 수록하였다(<표 Ⅲ-8> 참고). 1994년과 1995년은 기존의 체계에서 ‘인구변동’과 ‘인구분포’의 세부관심영역과 인구구조의 일부 개별지표들이 제외되어 단순화된다. 반면 1996년에는 보건부분에 수록되었던 ‘출산’을 포함한 3개 관심영역으로 확대 재편되면서 수록 통계표 역시 증가한다. 한편 1997년부터 ‘인구구조’의 개별지표로 수록되었던 ‘6세 이상 인구의 교육과정별 분포’가 교육부문으로 이동, 수록된다. 1998년 ‘인구이동’과 ‘연령별인구’와 같은 새로운 세부관심영역을 포괄하는 ‘인구규모와 이동’, ‘인구구성’, ‘출생’ 등 3개 관심영역으로 지표체계가 구성된다. 이에 따라 ‘국내이동인구’, ‘부양 인구비 및 노령화지수’ 등과 같은 개별지표들이 추가된다.

4)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인구의 정태성과 동태성을 고려하여 정태성을 보여 주는 관심영역으로 인구규모, 인구구성, 인구분포를, 동태성을 보여주는 관심영역으로 인구이동, 출생, 사망영역을 제시함.
- 출생과 사망의 경우 인구변화와 관련되는 기본 통계는 인구부분에, 건강 수준과 관련되는 세부통계는 보건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개편내용

- 관심영역을 기존 3개에서 6개의 영역으로 나누었고, 세부관심영역은 6개에서 11개로 재분류하여 개별지표의 경우 12개에서 18개로 증가하였음.
- 첫째, 관심영역 중 ‘인구규모와 이동’을 ‘인구규모’와 ‘인구이동’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고, ‘인구분포’와 ‘사망’을 새로운 관심영역에 포함시킴.
- 둘째, 인구이동은 해외 이민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세부관심영역을 국내이동과 국제이동으로 세분하고, 인구분포는 지역별인구와 도시인구(수도권인구)의 두 부분으로, 그리고 사망은 사망률을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음.

셋째, 추가시킨 개별지표를 보면, 인구규모에서 장래추계인구를, 인구분포에서 시도별 인구분포와 수도권 인구 구성비를, 그리고 인구이동에서 해외 이주허가자 수를 포함시켰음.

<표 Ⅲ-9> 인구부문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지표	집계항목	비고
인구규모	인구규모	총조사 인구	성별	
		추계연앙인구	성별	연평균인구성장률 포함
		장래추계인구	성별	장래인구 성장률 포함
인구구성	성별인구	출생성비	출산순위별,	
			지역별	
		아들선호도	성 및 연령별	
	연령별인구	연령별인구 (연령집단별 성비 포함)	성별	
		국민의 평균연령	성별	
		인구구조	지역 및 성별	
		부양인구비 및 노령화지수	성별, 연도별	
	혼인상태별인구	혼인상태별 인구구성비	성별, 연도별	
인구분포	지역별 인구	시도별 인구(구성비)	성별	신규
	도시인구	수도권 인구 구성비	성별	신규
인구이동	국내이동	인구이동	성별 및 지역별	
	국제이동	해외이주 허가자 수	이주목적, 이주국별	신규
출생	출생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연령별	
		모의 출생구성비	연령별	
		기혼부인당 평균출생아수	연령별, 교육정도별	
사망	사망률	사망률	성별, 주기별	신규
		사망성비	연령별	신규

<표 Ⅲ-10>은 인구부문에서 성별 평등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있어 「여성통계연보」에 게재하지 못하는 통계들이다. 출생성비는 인구부문의 성차별을 명료

하게 보여주는 통계이지만, 출생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에 대한 통계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부당한 인공임신중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해야 하지만,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여아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행위자, 이유, 시술경로 등에 대한 정부의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미혼출산율은 개방적 성문화의 과급과 상업적인 성상품화의 경향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추산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표 III-10> 인구부문 통계개발 항목

관심영역	개발이 필요한 통계내용	생산방안	산식
출산	결혼상태별, 태아출생 서열별 여아 인공 임신중절을	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조사」에서 조사분항 추가	-
출산	산모연령별, 시/군별 미혼출산율	별도의 조사 실시	미혼출생아수/전체출생아수

나. 가족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핵가족 중 빈둥지가족, 독신자가족의 증가 등 가족 및 가구형태의 변화.
- 가족관의 변화와 이를 반영하는 주관적 지표의 필요성 제고
-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 및 의식을 보여주는 지표의 필요성 제고.

2) 국제적 경향

가족관련 젠더통계의 국제 경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성의 혼인상태와, 출산율, 가족형태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다. 이에 추가하여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유배우, 이혼, 별거, 사별’이라는 전형적인 혼인상태 분류기준 외에 동거, 혼외 출생, 미혼모,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통계가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가 증가하면서 여성 빈곤문제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한 통계를 게재하고 있다. 캐나다와 스웨덴의 젠더통계도 국제경향과 비슷하여 기본적인 통계이 외에 이혼, 재혼한 여성과 그 여성의 자녀 문제 등을 가족관련 젠더통계로서 비중을 두고 취급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현실적으로 법적 혼인보다 실질적 동거상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의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의 전형적인 혼인상태별 분류를 ‘거주형태’라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대체하고 있다. 거주형태는 동거, 비동거, 독거(Cohabiting, Single, but not Living alone and Living alone)로 범주화하고 있다. 비동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는 1)부모의 집에서 사는 16세 이상의 자녀들 2) 친구들 만으로 구성된 집단 3) 형제자녀집단, 4) 성장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들 등이다. 이 분류에 의하면 스웨덴의 16-19세 여성 중 약 5% 정도가 동거상태임이 나타난다.

<표 III-11>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가족부문 젠더통계

	가족부문 주요 주제
World's Women	연령별 혼인상태, 동거, 피임, 출산율, 혼외 출생, 어린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 한부모가정, 독신자가구, 여성가구주
Human Development Report	이혼
스웨덴	거주형태별 분포, 유형별 가족, 17세이하 자녀수별 거주형태 분포, 자녀의 연령별 거주형태, 무자녀여성, 피임실천율, 유산율, 가족유형별 평균수입
캐나다	여성의 혼인상태, 재혼, 한부모가정, 이혼한 가족의 자녀, 출산율, 가족형태

3) 기존의 통계체계

가족 부문의 경우, 1996년 이전에는 ‘가족’과 ‘가구’를 관심영역으로 설정, ‘가족형성’, ‘가족해체’, ‘가족관계’, ‘가구구성’, ‘여성가구주’ 등의 각 세부관심 영역에 해당하는 통계표를 수록하였다(<표 III-12> 참고). 1996년 기존의 ‘가

구' 관련 지표가 '가족구성'의 세부관심영역으로 포함되고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라는 새로운 관심영역과 함께 '가족형성과 해체'로 구성된 지표체계로 재편된다. '가구소득과 거주형태'는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따라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삽입하였다. 그러나 가구소득의 경우 자료가 불완전하고, 거주형태 통계는 민간통계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개선 또는 추가 생산이 필요한 통계이다. 1998년에는 기존의 3개 관심 영역에 '가족생활'과 관련된 세부관심영역과 개별지표가 추가된다. 이는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 지표가 개인의 안녕감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지표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1999년 '가족생활'에는 생활시간 및 가사노동과 관련된 개별지표로 구성된 세부관심영역 '가사노동' 그리고 '가구소득', '거주형태' 등이 추가된다. 그리고 '가족생활'의 세부관심영역 '가족관'은 개별지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가족생활선호'로 변경된다. 가사노동은 통계청이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가사노동 배분정도와 시간사용량의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삽입하였다.

<표 III-12> 가족부문 지표체계 변화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가족	가족형성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분포(성별)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 분포(지역·성 및 연령계층별)
			평균초혼 연령(지역 및 성별)
			평균초혼 연령(지역·성 및 연령계층별)*
			평균초혼 연령(지역·성 및 교육정도별)*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평균출생아수
			18세 미만 자녀연령별 기혼부인 비율
			재혼건수 및 재혼비율
		가족해체	이혼율
			이혼수 및 구성비(성 및 연령계층별)
			이혼수 및 구성비(이혼 사유별)
			이혼수 및 구성비(성 및 교육정도별)*
			이혼수 및 구성비(성 및 결혼년수별)*
			이혼수 및 구성비(자녀수별)*
			독신자 비율*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가족	가족관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노후준비방법 (지역성 및 연령계층별)
			노후준비방법 (지역성 및 교육정도별)
			가족내 중요 문제의 결정권자 비교*
			여성의 가정경제여의 기여정도*
	가구	가구구성	평균가구원수
			가구구성형태별 구성비
			가족형태별 구성비*
		여성가구주	가구주분포
			혼인상태별 여성가구주분포
			단독가구주 분포
1994a-1995	가족	가족형성	혼인상태분포
			평균초혼연령
			재혼건수, 재혼비율
		가족해체	이혼수
			이혼수, 구성비 (성, 연령계층별)
	가구	가구구성	이혼수, 구성비 (이혼사유별)
			평균가구원수
			가구구성형태별 구성비
		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분포
			가구주분포
			단독가구주 분포
1996-1997	가족형성과 해체	결혼	단독여성가구주 분포
			평균초혼연령
			혼인구성비
		이혼	재혼건수 및 재혼비율
			혼인수 및 이혼수 (조혼인율, 조이혼율)
	가족구성	가구규모 및 가족형태	이혼수 및 구성비
			가족의 세대구성 형태 및 평균가구원수
		가구주	가구주분포
			여성가구주분포
			단독가구주분포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	가구소득	단독 여성가구주 분포
		거주형태	월평균가구소득
			입주형태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8	가족형성과 해체	결혼	평균초혼연령 및 평균재혼연령
			혼인가구성비 (연도 및 부부상호간 연령별)
			혼인가구성비 (연도 및 혼인형태별)
			혼인수 및 이혼수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재혼건수 및 조재혼율
			첫 자녀 출산연령
		이혼	이혼수 및 구성비
			이혼 사유
	가족구성	가족규모 및 가족형태	가족형태별 분포
			가족의 세대구성 형태 및 평균가구원수
		가구주	가구주분포
			1인가구주 분포
			여성가구주 분포
			여성 1인가구주
	가족생활	가족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족규범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	생활안정	노후준비방법
		가구소득	가계수지 (소득, 지출)
		거주형태	입주형태
1999~2000	가족형성과 해체	결혼	평균초혼연령 및 평균재혼연령
			혼인 인구성비 (연도 및 부부상호간 연령별)
			혼인 인구성비 (연도 및 혼인형태별)
			혼인수 및 이혼수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재혼건수 및 조재혼율
			첫 자녀 출산 연령
		이혼	이혼수 및 구성비 (연도 및 동거기간별)
			이혼수 및 구성비 (연도, 성 및 연령계층별)
			이혼사유
	가족구성	가구규모 및	가족의 세대구성 형태 및 평균가구원수
		가족형태	가족 형태별 분포
			1인 가구주 분포
			가구주 분포
		가구주	여성가구주 분포
			1인 여성가구주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9~2000	가족생활	가족생활선호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족규범	청소년 고민 상담 대상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생활안정	노후준비방법
		가사노동	생활시간(2000년 추가)
			가사분담 및 시간(2000년 추가)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평소 가사분담 상태
		가구소득	가계수지(소득, 지출)
		거주형태	입주형태

주: *는 개별지표로는 설정되었으나 통계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임.

4)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다양한 가족 및 가구형태의 파악을 위해 미혼모, 동거가족 혹은 대안가구에 관한 통계를 추가함. 그러나 현재 일정 수준이상의 통계가 없으므로 향후 통계 개발을 시도함.
- 현재 혼재되어 있는 가구와 가족통계를 가능한 분리하고, 제목을 가구 및 가족으로 개명.
- 일반적인 여성가구주 통계보다는 특정 형태의 여성가구주 편모(혹은 편부)가구의 여성가구주에 대한 통계가 필요.
- 변화하는 가족관과 이에 따른 여성의 지위와 의식변화를 보여주는 주관적 지표 추가.

나) 개편내용

- 관심영역은 가구,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생활의 총 3개로 구분하였음.
- 관심영역 '가구'에서는 세부관심영역에 '가구규모'를 추가하여, 일반가구수와 평균가구원수가 개별지표로 포함하고 가족생활에 있던 거주형태를

<표 III-13> 가족부문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비고
가구	가구규모	일반가구수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신규
		평균가구원수	지역별, 가구주 연령별	신규
	가구구성	가구 세대구성 분포	지역별, 주기별	
		가족 유형별 분포	지역별, 주기별	
		주택소유형태	행정구역 및 가구주 성별	
	가구주	가구주분포	지역·연령계층 및 성별	
		한부모 가구주 분포	지역·연령계층 및 성별	신규
		여성가구주 분포	지역 및 혼인상태별	
		독거노인가구	지역·연령계층 및 성별	신규
가족형성 및 해체	혼인	평균초혼연령 및 평균재혼연령	연도 및 성별	
		혼인수 및 조혼인율	연도별	
		혼인구성비	연도 및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연도 및 부부상호간 연령별	
		재혼건수 및 조재혼율	연도 및 성별	
	자녀출산	첫 자녀 출산 연령	연령별, 교육정도별	
		평균이혼연령	연도 및 성별	
		이혼수 및 조이혼율, 이혼율비	연도별	
		이혼수	성 및 연령계층별	
		이혼구성비	통거기간별	
		이혼사유	연도별	
	생애주기	생애주기별 평균연령	성별, 코호트별	
가족생활	가족관	결혼에 대한 태도	성별, 교육정도별	신규
		이혼에 대한 태도	성별, 교육정도별	신규
		재혼에 대한 태도	성별, 교육정도별	신규
		호주제 존폐에 대한 태도	성별	신규
		기대자녀 및 이상자녀수	연령별, 교육정도별	신규
	가족활동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성별	
		가사분담 및 시간	가구 및 성별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성별, 부부의 취업여부별	
		평소 가사분담 상태	연령별, 교육정도, 취업여부별	
		1일 시간사용현황 성별		
	노인부양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성별, 연령별	
		노부모 생계부양	성별, 연령별	신규
		노후준비 방법	성별, 교육정도별	

‘주택소유형태’로 개칭하고 가구부문으로 이전시킴.

- ‘가족형성 및 해체’는 ‘자녀출산’을 ‘혼인’과 ‘이혼’ 사이에 삽입하여 가족의 단계별 특성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관심영역에 생애주기를 새로 삽입하여 한 사람의 일생과 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가족생활’에 ‘가족관,’ ‘가족활동,’ ‘노인부양’의 3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분리함. 가족관은 모두 주관적인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결혼, 이혼, 재혼, 호주제, 이상자녀수 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음.
- 기존에 있던 가구소득의 경우 경제활동 부문에 소득영역으로 이전하여 세부관심영역에서 제외하였음.
- 개편된 가족부문은 3개의 관심영역, 10개의 세부관심영역, 44개의 개별지표로 구분하였음.

가족부문에 개발이 필요한 통계는 가족형태가 다양화를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미 현실적으로 동거, 공동체 집단, 동성애자 동거 등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족개념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있음에도 통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시 재산분배와 친권양육권 등에서 여성이 처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표 III-14> 가족부문 통계개발 항목

관심영역	개발이 필요한 통계내용	생산방안	산식
비정형가족	1. 동거부부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 2. 동성애자 규모 3. 동성애자, 동거부부에 대한 태도	1. 「인구 및 주택총조사」 문항 추가 2. 별도 조사 3. 별도 조사	
가사노동	1. 취업여부별, 가족구성원별 가사노동 조역자 유무 2. 지출비	1.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분석 2.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에서 계산	2. 지출비/전체 지출
이혼	1. 이혼시 친권양육권 분포 2. 이혼시 이전소득 3. 성별 재판이혼 제기비율 4. 이혼관, 결혼관	1. 별도 조사 2. 별도 조사 3. 별도 조사 4.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에 문항 추가	1. 모친/전체, 부친/전체, 기타/전체 2. 부인 이전소득/부부 전체재산(결혼 이후) 3. 여성/전체, 남성/전체

다. 교육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정부는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면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껏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2000년에 들어와서 급속히 확산됨.
- 공교육의 부실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교육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탈, 부적응 학생의 문제가 심각해짐.
-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교원정년단축, 성과급제도 등의 조치로 인해 교사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됨.

-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학생과 교사에 대한 성평등교육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2) 국제적 경향

<표 III-15>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교육부문 젠더통계

	교육부문 주요 주제
World's Women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취학률, 대학진공, 문맹률, 학교급별 교사, 주요 결정직, 대중매체와 정보 이용률, 대중매체 종류별 종사율
Human Development Report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 등록률, 문자해독률, 과학분야 여대생 등록률
스웨덴	출생국가별 학교급별 학생수, 학생의 연령, 1000명당 전공자 분포, 공학/별학, 학교재단별 학생수, 고등교육기관 종사자(학생과 교수), 사회교육 학생수
캐나다	취학률, 행정구역별 대학종업자, 여성의 시간제대학등록률, 지역대학, 도제훈련, 컴퓨터 사용

국제기구에서 교육부문의 주요 관심은 기본적으로 각급학교 취학률과 문맹률의 성별차이에 있다. 국제기구와 스웨덴, 캐나다 모두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참여에 대한 통계를 다루고 있고, TV와 컴퓨터 등 대중매체의 보급과 이용에서 성 차이가 없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 스웨덴의 교육부문 젠더통계의 특징을 보면 출생국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보고 있다. 국제기구와 유사하게 전공자 분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학교의 특성(공학/별학, 학교재단)등에 따른 성별차이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교육에의 남녀참여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는 취학을 등 기본적인 통계외에 시간제 대학, 지역대학 등 비정규대학과 직업훈련에서의 성별 참여현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3) 기존의 통계체계

교육부문의 변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1986년 교육부문의 관심영역은 ‘교육기획’, ‘교육자원’, ‘교육효과’, ‘교육에 대한 태도’ 등의 관심영역으로 하여 세부관심영역과 개별지표가 설정되었다. 반면 1994년에는 관심영역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재편하여 교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성별차이를 교육기관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수’, ‘자녀교육목적’ ‘대학원졸업자의 취업률’ 등과 같은 개별지표들이 새로이 설정,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1994년의 체계는 1996년 다시 ‘교육기획’, ‘교육여건 및 자원’, ‘교육의 효과’ 등으로 재편된다. 그리고 ‘교육비 및 교육환경’, ‘교육효과’가 새로운 세부관심영역으로 추가된다. 개별지표의 수준에서는 인구 부문에 수록되었던 ‘6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가 1997년부터 세부관심영역 ‘교육수준’의 개별지표로 수록된다. 그리고 대학원생 분포(1997), 교육기획 미충족자 비율 및 이유(1998), 평생학습참여 및 교육이수 일수(1998),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1998) 등 새로운 개별지표들이 추가된다.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별지표로 설정되었으나, 해당 통계표가 수록되지 않았던 교육전문직 중 여성비율이 1998년부터 수록된다. 또한 ‘학생본인의 기대교육수준’과 ‘학생본인의 기대교육목적’이 기존의 ‘자녀기대 교육수준’과 ‘자녀교육의 목적’을 대신하여 1999년부터 수록된다.

<표 III-16> 교육부문 지표체계 변화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교육기획	학교교육	국민평균교육년수(성 및 연령계층)
			국민평균교육년수(성·지역 및 연령계층)*
			학생수 추이
			취학률(학교급 및 성별)
			취학률(성·지역 및 학교급별)*
			중퇴율(학교급 및 성별)
			중퇴율(성·지역 및 학교급별)*
			진학률(학교급 및 성별)
			진학률(성·지역 및 학교급별)*
			진학희망자대입학정원 비율*
			인구만명당 학위취득자(학사, 석사, 박사)
			계열별 여자고등학생분포 및 여자비율
			여성직업훈련현황
			국가기술자격취득자등록분포(등급 및 성별)
			국가기술자격취득자등록분포(성 및 기술분야별)*
	교육자원	교원	여교사 비율
			직위별 교원수 및 여자비율(고등학교 이하)
			직위별 교원수 및 여자비율(초급전문대학 이상)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육행정	교육행정직수 및 여자비율*
		교육비	1인당 교육비*
	교육효과	인력수급	취업률(학교급 및 성별)
			취업률(성·지역 및 학교급별)*
			취업률(성·지역 및 전공분야별)*
			전공분야별 여자대학생 분포 및 여자비율
			전공분야별 입학정원의 차이*
			여자대학과 남녀공학대학의 전공설치분포와 성별학생수*
			남녀공학 학교와 분리학교 수 및 분리학교 비율
		사회교육	유치원수
			유치원 아동수·교원수 및 취원율
			준학교수와 여학생 비율
			방송통신대학 여학생 비율
			개방대학 여학생 비율
			직업훈련원생 수 및 여자 비율
		생산성증가	교육투자의 수익률*
	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 기대교육수준(가구주·교육정도 및 자녀성별)
			자녀 기대교육수준(가구주·성·교육정도 및 자녀성별)*

(계 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4a- 1995	학교교육	국민교육수준	국민평균교육년수
			국민의 학력구성
			학위취득자수
			인구인명당 학위취득자수
			취학률
			중퇴율
			진학률
			유치원취원율
		학교	유치원수
			남녀공학학교와 분리학교수
		학생	유치원 아동수
			고등학생수
			여자대학생수와 여자비율(1994b부터 미수록)
			전문대학생수(1994b부터 수록)
			대학생수(1994b부터 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	자녀기대교육수준
			자녀교육목적(1994b부터 수록)
		졸업자의 취업 상황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률
			초급·전문대학졸업자의 취업률
			대학교졸업자의 취업률
			대학원졸업자의 취업률(1994b부터 수록)
		교원	여교사 비율
			교원수와 여자비율
			교원수
		교육전문직	교육전문직수(1994b부터 수록)*
	사회교육	학력인정교육 기관학생	준학교수와 여학생비율
			방송통신대와 개방대학 학교수, 학과수, 여학생수
		직업교육	직업훈련원생수와 여자비율
			여성직업훈련원생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분포-기술계
			국가기술자격취득자분포-기능계
		기타사회교육	학원수와 강사수와 수강인원
		졸업자의 취업상황	사회교육요원 자격증 취득자수 취업비율(1994b부터 추가)*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6-2000	교육기획	교육수준	국민 평균교육년수
			국민의 학력분포
			자녀기대 교육수준 (1998까지 수록)
			자녀교육의 목적 (1998까지 수록)
			6세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 (1997부터 수록)
			학생본인의 기대교육수준 (1999부터 수록)
			학생본인의 기대교육목적 (1999부터 수록)
		학교교육기획	유치원수, 원아수 및 취원율
			취학률과 진학률
			남녀공학학교와 분리학교수
			고등학생분포
			전문대학생분포
			대학생분포
			대학원생 분포 (1997부터 수록)
			학위취득자수 및 인구만명당 학위취득자
			교육기획 미충족자 비율 및 이유 (1998부터 수록)
		사회교육기획	준학교수와 여학생비율
			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 여학생비율
			사설학원수, 강사수 및 수강인원
			평생학습참여 및 교육이수 일수 (1998부터 수록)
		직업훈련	직업훈련원생 분포
			국가기술 자격등록자수
	교육여건 및 자원 (1998년 이전 교육여건)	인력자원	교원수(학교급, 직위 및 성별)
			교원수(성, 학교급, 직위 및 경력년수)
			교육전문직종 여성비율(1998부터 수록)
		교육비 및 교육환경 (1998부터 수록)	교육비부담 인식 및 부담요인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교육의 결과	인력양성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률
			초급·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1998부터 수록)
		교육효과 (1998부터 수록)	학교교육의 효과
			교육정도별 평균임금차

주: 1) *는 개별지표로는 설정되었으나 통계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임.

4)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관련 통계의 개발 및 추가.
-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증가와 이에 대한 성차의 반영.
- 공교육외에 사교육, 대안교육 등에 대한 현황을 반영하고, 공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규모와 문제점 및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통계를 마련.
-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의 이직률 증가 문제 반영.

나) 개편내용

- ‘교육기회’, ‘교육여건 및 자원’, ‘교육의 결과’라는 3개의 관심영역과 총 8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별지표를 해당되는 세부관심영역에 추가함.
- 과학기술분야의 여학생참여현황을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분포 및 계열별 취업률 분포 중 자연계를 이학계/공학계/가정계로 세분화함.
- 학위취득자수 및 인구 만 명당 학위취득자 통계 중 학위취득자 계열별 분포 추가함.
- 학생의 중퇴율과 교사의 이직 및 퇴직률을 추가함.
- ‘6세 이상 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는 ‘국민의 학력분포’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함.
- 사회교육기회의 영역에 ‘사이버대학’현황을 추가함.
- 고등교육기관 취학을 산정 방식을 현재의 방식에 하나를 더 추가함.
 $\text{현재: 취학률} = \frac{\text{각급학교 학생수}}{\text{각급학교 적령인구}} \times 100$
 $\text{추가: 취학률} = \frac{\text{각급학교 적령인구 학생수}}{\text{각급학교 적령인구}} \times 100$
- 학력별 평균임금차를 여자 고졸임금을 100으로 해서 작성함.
- 교육행정결정에의 참여를 보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 성별분포를 추가함.

<표 III-17> 교육부문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지표	집계항목	비고
교육기회	교육수준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연도, 성 및 연령계층별	
		국민의 학력분포	연도 및 성별	
		학생본인의 기대 교육수준	성 및 교육정도별	
		학생의 기대교육 목적	성 및 교육정도별	
	학교교육기회	유치원수, 원아수 및 취원율	연도 및 성별	
		취학률	연도, 학교급 및 성별	
		진학률	연도, 학교급 및 성별	
		남녀공화학교와 분리학교수	학교급별	
		고등학생분포	연도, 성 및 계열별	
		전문대학생 분포	연도, 성 및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	연도, 성 및 전공분야별	
		대학원생 분포	연도, 성 및 전공분야별	
		학위취득자수 및 인구만명당 학위취득자	연도 및 성별	
		중퇴율	연도, 성, 학교급 및 계열별	신규
		교육기회의 미충족자 비율 및 이유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사회교육기회	준학교 수와 여학생비율	연도별	
		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 여학생비율	연도별	
		사이버대학 여학생 비율	연도별	신규
		사설학원수, 강사수 및 수강인원	연도, 계열 및 성별	
		평생학습참여 및 교육이수 일수	성별, 교육유형별	
	직업훈련	국기기술 자격등록자수	기술분야, 등급 및 성별	
		직업훈련원생 분포	훈련기관 및 성별	
교육여건 및 자원	인력자원	교원수	학교급, 직위 및 성별	
			대학유형 및 성별	
			성, 학교급, 직위 및 경력년수	
		이직 및 퇴직률	성, 학교급	신규
		여성 교육전문직비율	직위별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지표	집계 항목	비고
교육여건 및 자원	교육비 및 교육환경	교육비부담 인식 및 부담요인	성별, 직업별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성별, 학교급별, 가구주교육정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성별, 학교급별	신규
교육의 결과	교육효과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견	성별	
		취업성취도	성별, 과목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신규
		비행학생 수	성별, 학교급별	신규
		평균입금차	성별, 교육정도별	
	인력양성	학교급별 종업자의 취업률	연도, 성 및 계열별 고등학생	
			연도, 성 및 전공분야별 전문대생	
			연도, 성 및 전공분야별 대학생	
			연도, 성 및 전공분야별 대학원생	
		박사인력활용	전공분야, 취업상태별	신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성별	

교육부문에서 개발이 필요한 통계는 주로 평생교육에 관련한 내용들이다.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평생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평생교육의 참여현황 역시 성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고려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환경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성인여성들이 문화, 취미교육 분야를 제외한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또한 여학생들의 이공계진출을 위한 통계자료들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과목별 성별 분포는 여학생들에게 생애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성교육과 성평등교육, 정보화교육 등에 대한 성별 참여정도도 교육부문의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통계들이다.

<표 III-18> 교육부문 통계개발 항목

관심영역	개발이 필요한 통계내용	생산방안
보육	보육시설의 성별, 자격별, 경력별 교원수	행정보고통계로 신설
학교교육	중학교, 고등학교의 성별 과목별 교원수의 부재	교육통계연보 보고통계에 추가
사회교육	성별, 연령별, 교과목별, 교육기관 별, 지역별 사회교육 참여 현황	별도의 조사

라. 경제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1998년의 경기불황이후 여성 실업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낮은 실업률로 인해 그 심각성이 통계로 발표되지 않음. 이에 따라 실업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안 실업률의 개발이 요구됨.
- 여성인력의 참가율이 1998년에 하강한 이후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나, 취업내용면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져, 근로조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 UN 북경회의 등에서는 경제활동외에 소득, 재산, 소비 등 경제적 자원획득에서의 성 불평등을 보여주는 통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은 관련통계가 빈약한 실정이다.

2) 국제적 경향

국제 기구의 경제활동 부문의 젠더통계들은 기본적으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다루고 있다. 임신과 출산의 부담이 있는 연령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또한 취업구조의 특징으로 주요 직종에서의 성별 분리, 임금차이, 시간제 근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전통적인 취업지원정책인 출산휴가와 함께 부성휴가를 많이 다루고 있다. 최근에 관심이 높아진 통계로는 고용주 여성비율, 무급가사노동과 시장노동과의 관련, 고용

보험에의 수급상황 등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자녀가 부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여 6세 미만 자녀가 있는지 여부, 막내 자녀의 연령, 16세 이하 자녀의 수에 따른 부모의 취업률과 취업시간의 차이를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표 III-19>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경제활동부문 젠더통계

	경제활동부문 주요 주제
World's Women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별 특성, 고용주, 실업, 장기실업, 비공식부문, 무급노동, 여가활동, 주요 직종의 근로조건, 시간제 근로, 출산휴가,
Human Development Report	경제활동참가율, 1인당 실질GDP, 전문직 및 기술직 여성비율, 장기실업률, 실업률, 여성의 무급가사노동, 전체 노동시간 (시장노동+비시장노동)
스웨덴	연도별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상태, 6세미만 자녀/막내자녀연령/16세미만 자녀수와 부모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시간, 임시직, 부문별 취업형태, 자영업자 분포, 주요 30대 직업의 성별분포, 남성, 여성의 주요 직종, 신체적 불편함, 산재, 결근현황, 출생국별 실업률, 잠재실업자, 임금, 여성집중직종과 남성집중직종의 임금비교, 소득, 세금, 사회보장수당, 연금,
캐나다	직업분리, 지역별, 학력별, 연령별 취업률, 자녀와 취업률, 출산휴가, 출산휴가와 부성휴가 수당, 임시직, 고용주, 노동조합, 실업, 고용보험수급, 가사노동, 자원봉사와 취업,

3) 기존의 통계체계

「여성통계연보」에서 가장 많은 통계표가 수록된 경제활동 부문의 경우, '소득', '고용구조', '근로조건', '직업안정' 등의 관심영역으로 구성된 체계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유지되었다. 1986년 관심영역의 하나를 구성하였던 '소득'은 1994년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의 체계에서 제외된 후, 1994년 「여성통계연보」의 관심영역으로 포함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가족부문'의 관심영역으로 이동, 수록되고 있다. 고용구조의 세부 관심영역인 '불완전취업'과 '실업' 역시 1996년 이전까지는 경제활동 부문 지표체계에 포함되었으나, 1996년 이후에는 지표체계에서 제외되었다. 1994년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추가된 '시간제취업'의 개별지표들은 1996년부터 그 일부가 세부관심영역 '취업특성'의 개별지표로 수록되고 있다.

1996년 경제활동 부분은 '인력현황', '여성취업현황', '근로조건', '고용안정', '노사관계', '취업에 대한 태도' 등으로 관심영역이 세분화되는 반면 세부관심영역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화된다. 관심영역에서의 변화는 우선, 기존의 세부관심영역 '경제활동참가'와 새로운 세부관심영역인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관심영역 '인력현황'이 추가된다. 또한 기존의 관심영역 '고용구조'의 개별지표들이 '취업구조'와 '취업특성' 등 3개의 세부관심영역으로 편성된다. 기존에는 해당 관심영역의 세부관심영역이거나 개별지표였던 노사관계와 취업에 대한 태도 등은 독립적인 관심영역을 이루게 된다. 반면 관심영역 '근로조건'의 경우, 비교적 1996년 이전의 체계가 유지된다.

세부관심영역 '농가·비농가의 취업구조'가 1998년부터 세부관심영역 '취업구조'의 개별지표로 수록되고, 개별지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가 세부관심영역 '취업구조'에 이동, 수록되거나, '부부의 취업형태' 등과 같은 새로운 개별지표들이 추가되었지만 경제활동 분야의 1996년 지표체계는 2000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표 III-20> 경제활동부문 지표체계 변화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6	소득	소득수준	도시·농촌가구의 평균소득 및 비율*
			월소득계층별 백분비 분포*
			소득10분위별 소득분포 및 소득집중도*
	고용구조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역·연령계층 및 혼인상태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지역·교육정도 및 혼인상태별)
			임금근로자 및 상용고비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지역 및 자녀의 연령별)
			취업여성의 분포
			어머니의 경제활동 상태별 가구수 및 자녀수*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고용구조	취업	취업자구성비
			여성취업자비율
			여성취업자 구성비 및 여자비율 추이
			여성취업자 추이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성 및 연령계층별)
			산업별 취업자 수 및 백분율(성 및 교육정도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추이(성 및 혼인상태별)
			산업별 취업자 수 및 백분율(성 및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및 여자비율(성 및 직업별)
			여성취업자의 재조업(중분류)별 분포 및 여자비율(직업별)
			여성취업자의 재조업(중분류)별 분포(연령계층별)
			여성취업자 비율 및 구성비(직업별)
			직업별(대분류) 취업자수 및 백분율(성 및 연령계층별)
			직업별 취업자수 및 백분율(성 및 교육정도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성 및 혼인상태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성 및 종사상지위별)
			성별 직업분리(중분류) 추이
			주요 직업별 도시여성근로자 비율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지역 및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성·지역 및 교육정도별)
			종사상의 지위별 여성취업자 구성비(지역 및 혼인상태별)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성·지역 및 연령계층별)
			분야 및 기관별 과학기술연구원 분포
			여성가구의 직업별 분포(종사상의 지위별)
			여성가구의 직업별 분포(연령계층별)
			여성가구의 직업별 분포(교육정도별)
			여성가구의 직업별 분포(혼인상태별)
			파고용률 및 안정고용률
			도소매, 음식숙박업(중분류) 종사자 및 사업체 분포
			취업형태별 분포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분포(성 및 취업형태별)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분포(성·종사상의 지위 및 산업별)*
			사업체당 평균근로자수*
			대기업체 근로자 비율*
			농촌의 비농업취업자수 및 비율
			농촌 취업자의 작업장소별 분포*
			농업노동 임금 및 여성임금비
			농가 노동 부하량(성·노동형태 및 월별)
			농가 노동 부하량(성 및 작목별)
			농지소유면적*
			작목 및 작부체계 분포*
			가족의 소유 및 종류*
			평균 농업노동개월수 및 실업일수*
			영농의사 결정 및 농장 관리실태
			협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임직원 현황*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고용구조	불완전취업	실업자추계(불완전취업자, 비구직 취업희망자)
			취업시간별 추가전직희망 취업자 분포(지역 및 성별)
			취업시간별 추가전직희망 취업자 분포(성 및 산업별)
		실업	실업률
			전산업별 실업자분포(성·연령계층별)*
			전산업별 실업자분포(성·교육정도별)*
			실업률 분포
			비구직 취업의사 표시자 분포(성·지역 및 연령계층별)
			비구직 취업의사 표시자 분포(성·지역 및 교육정도별)
			비구직 취업의사 비경제활동인구분포
			취업희망이유별 취업의사표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취업희망이유별 취업의사표시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분포(성·지역 및 구직기간별)
	근로조건	근로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인수근로시간수 및 일평균 근로시간수(성 및 산업별(대분류))
			월평균근로인수근로시간수 및 일평균 근로시간수(성 및 직업별(대분류))
		임금	명목·실질임금지수*
			월평균임금 및 여성임금비(성 및 산업별)
			월평균임금 및 여성임금비(성 및 직업별)
			월평균임금, 월평균근로시간*
			초임수준비교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
			부차적소득비율*
		근로복지시설 및 제재도	남여채용형태현황(성 및 산업별)*
			남여채용형태현황(성 및 직업별)*
			취업경로별 취업자 분포
			유급생리,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시간 실시적용 여성근로자 및 업체비율*
			근로여성의 시간외·야업 및 유일근로 분포*
			건강진단대상근로자수, 수검근로자수 및 직업별 유병근로자*
			재해도수율 및 재해강도율*
			산재보험 보상 산업재해 추이*
			의료보험가입근로자 비율*
			안전·보건관리자가 있는 업체 분포*
			근로감독관의 수 및 비율*
		근로환경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근로여건에 대한 태도*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1986	직업안정	직업선택	직업선택요인분포(성·지역 및 교육정도별)
			직업선택요인분포(성·지역 및 연령계층별)
			구직·구인배율 및 취업알선비율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직업안정	노동이동 및 계층이동	입직률 및 이직률
			이직사유 분포 (성 및 산업별)
			이직사유별 분포 (성 및 교육정도별)
			기혼유배우여성의 첫와 두의 직업분포
			근로자의 일일임금액 및 여성취업자의 임금비 추이
		노사관계	조직노동자수 및 조직률
			노조조직률*
1994a	고용구조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여성비율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경제활동참가	여성경제활동참가인구 (지역,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기혼여성의 유업인구 (지역, 연령계층, 자녀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인구 (지역, 연령계층, 혼인상태별)
			기혼여성의 유업인구 (지역, 자녀의 연령별)
			유업모를 가진 18세미만 아동분포
		취업	여성취업자 분포 (산업별)
			취업자 분포 (성, 연령계층, 산업별)
			취업자 분포 (성,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 분포 (산업별, 혼인상태별)
			취업자 분포 (성, 교육정도,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산업, 혼인상태, 종사상의 지위별)
			제조업 (중분류) 여성취업자 분포
		취업	여성취업자 분포 (직업별)
			취업자 분포 (성, 연령계층, 직업별)
			취업자 분포 (성, 교육정도, 직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직업별, 혼인상태별)
			취업자 분포 (성,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별)
			여성취업자 분포 (직업, 혼인상태, 종사상의 지위별)
			여성취업자 분포 (직업, 혼인상태, 취업시간별)
			여자비율추이 (직업별)
		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취업자수 (연령계층, 산업별)
			여성가구주 취업자수 (연령계층, 직업별)
			여성가구주 취업자수 (혼인상태, 산업별)
			여성가구주 취업자수 (연령계층, 직업별)
		5인미만업체 종사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및 사업체분포 종사자분포
			종사자 분포 (성, 규모별)
			종사자 분포 (성, 직업, 산업별)
			여성취업자 분포 (산업, 혼인상태, 종사상의 지위별)
			여성취업자 분포 (직업, 혼인상태, 종사상의 지위별)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4a.		시간제취업	여성취업자수
			취업자분포
			주당 36시간미만 여성취업자수(혼인상태별,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별)
			주당 36시간미만 여성취업자수(혼인상태별, 직업별, 종사상의 지위별)
			시간제(틈틈이 일함) 여성취업자수(혼인상태, 직업, 종사상의 지위별)
			시간제(틈틈이 일함) 여성취업자수(혼인상태, 산업, 종사상의 지위별)
			유업자 분포
		불완전취업	여성취업자 분포(산업, 취업시간, 추가전직의사여부별)
			실업자 추세
		실업	실업률(성별, 농가/비농가별)
			실업률(성, 교육정도, 혼인상태별)
			실업자 분포
			비구직 취업의사 표시자 분포(지역, 성, 연령계층별)
			비구직 취업의사 표시자 분포(지역, 성, 교육정도별)
		취업	농가노동 무하량
			비농업취업자수와 비율
	근로조건	근로시간	주당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시간수, 근로일수 및 일평균근로시간수(성, 산업별)
			월평균근로시간수, 근로일수 및 일평균근로시간수(성, 직업별)
		임금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성, 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성, 직업별)
			초임수준 비교
			근로자분포(성, 임금계층별)
			실질임금상승률 추이
	직업안정	직업선택	취업경로별 취업자분포
			구직, 구인배율, 취업알선비율
		노동이동	입직률과 이직률
			노동조합 조직률
		노사관계	조합원수, 노동조합수, 위원장수
1994b- 1995	고용구조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인구총괄(성,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총괄(지역, 성별)
			경제활동인구총괄(성,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총괄(성,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고	기혼여성의 유업인구(지역, 연령계층, 자녀의 연령별)
			기혼여성의 유업인구(지역, 종사상의 지위, 자녀의 연령별)
			유업모를 가진 18세미만 아동분포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4b- 1995	고용구조	취업	취업자분포 (성, 연령계층, 산업별)
			취업자분포 (성, 행정구역, 산업별)
			취업자분포 (성, 산업 및 혼인상태별)
			취업자분포 (성, 교육정도, 산업별)
		취업	취업자분포 (성, 연령계층, 직업별)
			취업자분포 (성, 행정구역, 직업별)
			취업자분포 (성, 직업 및 혼인상태별)
			취업자분포 (성, 교육정도, 직업별)
		조직에서의 지위	취업자분포 (성, 연령계층, 종사상의 지위)
			취업자분포 (성, 행정구역, 종사상의 지위)
			임금근로자 분포
		여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취업자수 (연령계층, 산업별)
			여성가구주 취업자수 (연령계층, 직업별)
		업체의 종업원규모	취업자 분포 (성, 산업, 규모별)
			취업자 분포 (성, 직업, 규모별)
		시간제 취업	취업자 분포 (성, 직업, 규모별)
		불완전취업	여성취업자 분포 (성, 취업시간, 추가전직의사여부별)
		실업	실업률 (성, 혼인상태별)
			실업률 (지역, 성별)
			실업률 (성, 연령계층별)
			실업률 (성, 교육정도별)
			비구직 취업의사 표시자 분포
		취업	비농업취업자수와 비율
1994b- 1995	근로조건	근로시간	월평균근로시간수, 근로일수 및 일평균 근로시간수 (성, 산업별)
			월평균근로시간수, 근로일수 및 일평균 근로시간수 (성, 직업별)
		임금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 (성, 산업별)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 (성, 직업별)
			초임수준 비교
			근로자 분포 (성, 임금계층별)
			월평균임금 추이
	직업안정	직업선택	취업경로별 취업자 분포
			구직, 구인배율, 취업알선비율
		노동이동	입직률과 이직률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
			조합원수, 노동조합수, 위원장수
	소득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 (1996부터 가족부문 수록)
			임주형태 (1996부터 가족부문 수록)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6-2000	인력현황	경제활동참가 규모 및 특성	경제활동 인구 (연도, 성 및 혼인상태)
			경제활동 인구 (연도, 지역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 (연도, 연령계층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 (연도, 교육정도 및 성별)
			경제활동 인구 (연도, 혼인상태, 교육정도 및 성별)
			기혼여성 유업인구 (지역, 연령계층 및 자녀의 연령별)
			기혼여성 유업인구 (지역, 종사상의 지위 및 자녀의 연령)
			유업모의 18세미만 아동 분포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연도, 지역 및 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 (연도, 지역, 상태 및 성별)
	여성취업 현황	취업구조	산업별 취업자 분포 (성 및 종업원 규모별)
			산업별 취업자 분포 (행정구역 및 성별)
			산업별 취업자 분포 (연도, 연령계층 및 성별)
			산업별 취업자 분포 (연도, 성 및 교육정도별)
			산업별 취업자 분포 (혼인상태별 (여성))
			직업별 취업자 분포 (성 및 종업원 규모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 (행정구역 및 성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 (연도, 연령계층 및 성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 (연도, 성 및 교육정도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 (혼인상태별 (여성))
		농가·비농가 취업구조 (1998 부터 취업구조의 개별지표화)	농가·비농가의 취업구조 (연도, 성 및 산업별)
			농가·비농가의 취업구조 (연도, 성 및 직업별)
			농가·비농가 여성의 취업구조 (혼인상태 및 산업별)
			농가·비농가 여성의 취업구조 (혼인상태 및 직업별)
		취업특성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연도, 연령계층 및 성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행정구역 및 성별) (1998부터 취 업구조의 개별지표로 이동, 수록)
			피고용율 추이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분포 (1998부터 수록)
			36시간 미만 취업자 분포 (혼인상태 및 산업별)
			36시간 미만 취업자 분포 (혼인상태 및 직업별)
			임금근로자 분포
			부부의 취업형태 (산업별, 직업별) (1998부터 수록)
	근로조건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일평균근로시간수 (산업 및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일평균근로시간수 (직업 및 성별)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근로조건	임금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연도, 산업 및 성별)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연도, 직업 및 성별)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직업, 기업규모 및 성별)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학력, 경력년수 및 성별)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성, 연령계층별)
			초임수준 비교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고용안정	취업경로	구직배율, 구인배율 및 취업알선 비율
		노동이동	입직률과 이직률
	노사관계	노조참여	노동조합조직률
			조합원수 및 위원장
	취업에 대한 태도	취업에 대한 태도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견해(1998부터 수록)
			직업선택 요인(1998부터 수록)
		근로조건 만족도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1998부터 근로조건의 개별지표로 이동, 수록)

주: 1) *는 개별지표서는 설정되었으나 통계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임.

4)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여성실업의 특성을 밝히고 정책화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게재함.
- 여성취업지원정책의 활용도를 파악하여, 정책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 불안정성 추세를 보여주는 통계를 개발하도록 함.
- 소득부문을 새로 신설하여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소득 관련 젠더통계자료 게재가 가능할 경우 보충함.

나) 개편내용

- 전체 적으로 기존의 관심영역 6개, 세부관심영역 11개, 개별지표 24개에서 관심영역 7개, 세부관심영역 12개, 개별지표 32개로 증가함.

<표 III-21> 경제활동 부문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비고
인력현황	경제활동참가 규모 및 특성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연도, 성 및 혼인상태별	
			연도, 지역 및 성별	
			연도, 연령계층 및 성별	
			연도, 교육정도 및 성별	
			연도, 혼인상태, 교육정도 및 성별	
			행정구역 및 성별	신규
		잠재실업자 및 실업률	연령계층 및 성별	신규
	비경제활동 인구	기혼여성 유업인구	연령계층 및 자녀의 연령별 종사상의 지위 및 자녀의 연령	
		유업모의 18세미만 아동 분포	행정구역 및 아동의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연도별, 연령계층별 연도별, 활동상태 및 성별	
여성취업 현황	취업구조	산업별 취업자 분포	성 및 종업원 규모별	
			시도 및 성별	
			연도, 연령계층 및 성별	
			연도, 성 및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여성)	
		직업별 취업자 분포	성 및 종업원 규모별	
			행정구역 및 성별	
			연도, 연령계층 및 성별	
			연도, 성 및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여성)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연도, 연령계층 및 성별 행정구역 및 성별	
		농가·비농가의 취업자 분포	성 및 산업별	
			성 및 직업별	
			혼인상태 및 산업별	
			혼인상태 및 직업별	
		사업체 대표자 분포	성별, 산업종류별, 시도별	신규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비고
여성취업 현황	취업특성	피고용율추이	연도 및 성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분포	성별, 산업별 성별, 직업별	
		36시간 미만 취업자 분포	혼인상태 및 산업별 혼인상태 및 산업별	
		임금근로자 분포 (관리직 종사자 포함)	연도, 직급 및 성별	
		부부의 취업형태	산업별, 부부의 취업상태별	
			직업별, 부부의 취업상태별	
근로조건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수,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수	산업 및 성별	
			직업 및 성별	
	임금	월평균 임금 및 여성임금비	연도, 산업 및 성별	
			연도, 직업 및 성별	
			직업, 기업규모 및 성별	
			학력, 경력년수 및 성별	
			성, 연령계층별	
		초임수준 비교	성, 교육정도 및 직업별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	성별	
	취업지원정책	육아휴직 사용률	성별, 공공/민간별, 기간별, 직종별, 기업규모별	신규, 현재 공무원만 가능
		가족간호휴직 사용률	성별, 공공/민간별, 기간별, 직종별, 기업규모별	신규, 현재 공무원만 가능
	근로조건만족도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성별	
고용안정	취업경로	구직배율, 구인배율 및 취업알선 비율	성별	
	노동이동	입직률과 이직률	연도, 성 및 산업별	
취업에 대한태도	취업에 대한 태도	여성취업자의 취업사유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	성별,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견해	성 및 교육정도별, 혼인상태별	
		직업선택 요인	성 및 교육정도별	
소득	소득수준	월평균가구소득	가구주 성별, 가구구분별	신규
		가구의 소득기여도	가구주 성별	신규
		소득계층의식	성별	신규

<표 III-22> 경제활동부문 통계개발 항목

관심영역	개발이 필요한 통계내용	생산방안
인적자원개발	주요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약사 등의 여성현황에 대한 자료 개발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재분석
고용안정	비정규직 여성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에 대한 통계개발	별도 조사
근로조건	직장내 성희롱 발생률과 신고율 관련 통계	별도 조사 또는 여성부 신고건수 또는 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문항 추가

- 「경제활동참가 규모 및 특성」의 개별 하위지표로 「잠재실업자 및 실업률」을 성별 연령계층별로 발표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개별 하위지표로 「비구직이유」를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로 다룸.
- 대표적인 취업지원정책의 하나인 육아휴직과 가족간호휴직의 사용률을 추가함.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사용률 통계작성은 가능하나 민간부분은 어려움.
- 관심영역에 소득부문을 새로 신설하고, 개별지표로 「월평균가구소득」과 「가구의 소득기여도」를 추가하고, 주관적 지표로서 「소득계층의식」을 추가함.
- 관심영역중 「노사관계」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으로 이전함.
- 여성경제인 지원을 위해 사업체대표자의 성별 분포통계를 추가함.

마. 보건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소득수준의 증대와 생활양식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상병구조가 바뀜.

- 건강보험의 의약분업실시로 보건의료이용행태의 변화가 예상됨.
-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동일하게 연장되지 못하고 노인기의 상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기의 질병과 건강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2) 국제적 경향

<표 III-23>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보건부문 젠더통계

	보건부문 주요 주제
World's Women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저체중아, 임신과 출산시 의료서비스제공, 모성사망률, 유산, AIDS, HIV, 암, 원인별 사망률, 흡연.
Human Development Report	평균수명, 유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임신부빈혈, 출산율, 피임실천율.
스웨덴	질병, 흡연, 청소년흡연, 비만, 운동실천율, 원인별 사망률, 유아사망률.
캐나다	질병, 우울증, 자살, 정신질환, 성관련질환, AIDS, HIV, 유산, 기대수명, 사망률, 심장병, 암, 유방암, 자궁암 수진율, 의료인력, 흡연, 음주, 건강유지방법.

국제 기구의 보건부문 젠더통계는 기존의 기본적 관심인 질병과 평균수명에서의 성별 차이와 함께 생식보건과 관련한 통계들 즉 모성사망률, 유산, 영아사망률, 5세 미만 유아사망률, 빈혈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영아, 모성사망률, 유아사망률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AIDS와 HIV를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건강의 수준향상을 위해 비만과 운동실천율을 다루고 있으며, 캐나다의 특이한 점은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여성관련 암 유병률과 수진율을 게재하고 있으며, 자살, 우울증 등 정신건강 통계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3) 기존의 통계체계

보건부문의 경우에도 세 시기로 나누어 지표체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우선 1986년 보건부문은 ‘보건상태’와 ‘보건의료서비스’로 관심영역이 구성되었다. 이것이 1994년 보건상태,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기존 보건의료서비스의 세부관심영역이었던 보건의료인력 등 3개의 관심영역으로 재편된다. 보건상태의 세부관심영역에는 개별지표의 추가와 함께, ‘보건의식 및 행태’가 새로이 추가된다.

한편, 1994년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보건부문 지표체계의 세부관심영역인 ‘여성의사의 특성’, 세부관심영역 이환의 개별지표 ‘의보대상자의 악성신생물 치료건수’, ‘산업재해 및 사망재해 근로자수’, ‘질병근로자 현황’, 세부관심영역 수진, 진료의 ‘한방기관 진료건수’, 모성보호의 개별지표 ‘분만장소 및 분만개조자’ 등이 1994년 「여성통계연보」에서는 제외된다.

1996년 이후 보건부문은 ‘건강상태’, ‘출산 및 사망’, ‘이환’, ‘보건의료 이용’, ‘의료인력’ 등의 관심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세부관심영역인 ‘모성보호’가 지표체계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세부관심영역이었던 출산과 사망이 하나의 관심영역인 ‘출산 및 사망’으로 설정되거나 의료서비스(1998), 체격(1999) 등 새로운 세부관심영역이 추가된다.²⁴⁾ 개별지표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에이즈관련 지표와 치매노인 현황 등이 추가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24) 세부관심영역 체계에 포함된 개별지표들은 주택부문과 함께 1986년에만 수록되었던 영양부문의 개별지표들 가운데 일부이기도 하다. 1986년 영양부문과 주택부문의 지표체계와 개별지표는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33-34/38, 참고

<표 III-24> 보건부문 지표체계 변화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보건상태	사망	기대여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성 및 지역별)
			신생아 및 후기 신생아 사망률
			임신소모율(지역 및 임신연도)
			임신소모율(지역 및 연령계층)
			주산기 사망률*
			17대 분류에 의한 사망자수(분류가능)(성별)
			17대 분류에 의한 사망자수(분류가능)(연령계층 및 성별)
			10대 사망원인 구성비(의사진단)
		출산	일반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연도별)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지역별)
			출생성비
			2500g이하의 영아출산율*
			초경폐경연령*
		질병	이환율 및 활동제한일수, 외병일수(2주간)
			10대 주요 상병
			주요 성인병 유병률
			성병 감염률*
			빈혈 감염률*
			소아과를 찾는 비율*
			주요 전염병 이환율 및 치명률*
1986	보건의료 서비스	모성보호	산전진찰률
			분만장소
			분만개조자
			피임실천율
			피임방법 구성비 및 피임실천율
			인공임신중절 경험율 및 합계인공임신중절률
			임신합병증 발생건수
			건강진단수검자수
		예방	예방접종률*
		치료	의사진료자 수 및 진료횟수(2주간)
			진료자수 및 일인당 진료비
			진료건당 진료비
			병상이용률*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인력	의료인수
			의료기사 수
			여자의사 분포(행정구역 및 전문과목별)
			의사분포
			여자의사 분포(취업별)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1994a	보건상태	사망	가대여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10대 사인 구조(분류가능)
		출산	조출생률, 연령별 출산률 및 합계출산률
			출생성비
		보건 의식 및 행태	개인의 건강평가
			흡연인구비율
			음주인구비율
		이환	이환율, 유병일수, 외병일수(2주간)
			외래환자 수진율 및 퇴원환자 재원일수
			의보대상자의 수진건수 및 수진율
			의보대상자의 악성신생물 치료건수(1994b부터 미수록)
			만성정신장애자수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강도율
			산업재해 및 사망재해 근로자수(1994b부터 미수록)
			질병근로자 현황(1994b부터 미수록)
	보건의료 서비스	수진, 진료	진료자수 및 치료일수
			의보대상자의 진료실적
			수진율 및 평균수진회수
			진료건수 및 건당진료비
			한방기관 진료건수(1994b부터 미수록)
			약국이용실적
		모성보호	산전진찰률
			분만장소 및 분만개조자(1994b부터 미수록)
	보건의료 인력	여성의료인력의 규모	의료인수
			의료기사수(1994b부터 미수록)
		여성의사의 특성	여성의사분포(성, 연령별)(1994b부터 미수록)
			여성의사분포(성, 전문과목별)(1994b부터 미수록)
			여성의사분포(성, 취업기관별)(1994b부터 미수록)
			여성의사분포(성, 취업기간별)(1994b부터 미수록)

(계 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4b~ 1995	보건상태	사망	기대여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10대 사인 구조 (분류가능)
		출산	조출생률, 연령별 출산률 및 합계출산률
			출생성비
		보건의식 및 행태	개인의 건강평가
			흡연인구비율
			음주인구비율
		이환	이환율, 유병일수, 외병일수(2주간)
			의료보합대상자의 수진건수 및 수진율
			만성정신장애자분포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율
	보건의료 서비스	수진, 진료	의보대상자의 수진율 및 평균수진회수
			진료자수 및 치료자수
			의보대상자의 진료건수 및 건당일수
			의보대상자의 약국이용건수 및 건당약제비
		모성보호	산전진찰률
			파임실천율
1996~ 1997	보건의료 인력	여성의료 인력의 규모	의료인수
		생존년수	기대여명
	건강상태	건강관련 행위	흡연인구비율
			음주인구비율
	출산 및 사망	출산	가족계획방법별 가족계획실천율
			합계인공유산율
		사망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사망률
			사망성비
			17대 상병별 사망자수 구성
	이환	상병평가	이환율,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등록장애인 분포
		재해, 장애 및 질병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율
			에이즈 발생현황
			에이즈 감염 관리자 현황
			의료보합가입자의 진료실적
	보건의료 이용	수진·진료	의료보합가입자의 수진율 및 평균 수진회수
			의료보합가입자의 17대 상병별 수진건수 및 수진율
			의료보합가입자의 약국이용실적
			의료보합가입자의 진료실적
	의료인력	여성의료 인력의 규모	의료인력수 및 여성비율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8~2000	건강상태	생존년수	기대여명
		체격 (1999부터 수록)	학생의 신장
			학생의 체중
			학생의 가슴둘레
		보건 의식 행태	출연인구비율
			음주인구비율
			건강관리방법 (1998부터 수록)
			개인의 건강상태 (1998부터 수록)
	출산 및 사망	출산	가족계획방법별 가족계획실천율
			합계인공유산율
		사망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사망률
			사망성비
			상병별 사망자수 구성
	이환	상병평가	상병률, 활동제한일수 및 외병일수
		재해, 장애 및 질병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율
			등록장애인 분포
			에이즈 발생현황
			에이즈 감염 관리자 현황
			치매 노인 현황 (1998부터 수록)
	보건의료 이용	의료이용	의료보험가입자의 진료실적 (1999 미수록)
			의료보험가입자의 수진율 및 평균 수진회수
			의료보험가입자의 상병별 수진건수 및 수진율 (2000 미수록)
			의료보험가입자의 약국이용실적 (1999 미수록)
		의료서비스 (1998부터 수록)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 불만 이유
	보건의료 자원	보건인력의 규모	의료인력수 및 여성비율

주: 1) *는 개별지표로는 설정되었으나 통계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임.

4)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암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암 유병률과 사망률, 주요 3대암 등에 대한 현상과 예방활동에 대한 통계를 취급.

- 건강한 삶의 유지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 ‘건강수명’, ‘암 수진율’, ‘비만율’ 등 건강관련 지표를 추가함.

나) 개편내용

- 관심영역은 5개를 그대로 두었지만, 세부관심영역의 경우 건강상태의 관심영역을 ‘영양섭취’와 ‘개인 건강평가 및 관리’로 세분함.
- 개별지표의 경우 주관적 지표 2개와 객관적 지표 11개 등 총 13개 지표를 추가하였음. 추가된 지표를 보면 주관적 지표로서 ‘금연에 관한 견해’와 ‘금주에 관한 견해’를 포함시켰고, 출산부분에서 유배우부인의 임신중결형태와 ‘제왕절개실시율’을 추가하였음.
- ‘사망’세부관심영역에 성별 암사망률을 추가하고, ‘개인의 건강평가 및 관리’에 여성3대암(유방암, 자궁암, 위암) 수진율 등을 추가하는 등 암관련 통계를 강화함.
- 상병의 세부관심영역 중 ‘재해, 장애 및 질병’을 ‘질병 및 재해’로 수정한 후 ‘유병률이 높은 직업관련질환’과 ‘주요 성인질환 유병률’을 포함하였음.
- 건강상태부분을 강화함. 여성의 수명이 남자보다 길게 나타나 삶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우위에 있으나, 남자에 비해 여성의 상병률이 높아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열등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기대여명 외에 ‘건강수명’을 추가하고 ‘체격’세부관심영역에서는 BMI(신체질량지수)를 추가함. 비만을 측정지수로서 WHR(Waste-heap ratio)가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으나 통계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통계수집이 용이하고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BMI를 사용함.
- 개별지표 중 ‘등록장애인 분포’는 보건의 상병 영역에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복지부분으로 이전함.
- 세부관심영역으로 ‘정부의 보건정책’을 신설하고 대표적인 통계로서 ‘모자보건사업 실적’을 추가함.

<표 III-25> 보건부문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비고
건강상태	생존연수	기대여명	성 및 연령별	
		건강수명	성별	신규
	체격	학생의 신장	성 및 연령별	
		학생의 체중	성 및 연령별	
		학생의 가슴둘레	성 및 연령별	
		BMI (신체질량지수)	성 및 연령별	신규
	영양섭취	한국인영양권장량	성별, 연령 및 영양소별	신규
		한국인영양섭취량	성별, 연령 및 영양소별	신규
	보건의식 행태	흡연량 및 흡연인구비율	성 및 연령별	제목변경
		금연에 관한 견해	성 및 연령별	신규
		음주횟수 및 음주인구비율	성 및 연령별	제목변경
		금주에 관한 견해	성 및 연령별	신규
	개인 건강평가 및 관리	건강관리방법	성 및 연령별	
		개인의 건강상태 평가	성 및 연령별	
		여성 3대암 수진율	연령별	신규
출산 및 사망	출산	피임실효율	연령별, 주기별 가족계획방법별	제목변경
		인공임신중절율 및 인공임신중절경험율	연령별, 주기별	제목변경
		유배우부인의 임신종결형태	연령별, 주기별	신규
		제왕절개실사율	연령별	신규
	사망	영아사망률 및 모성사망률	성별, 연도별	
		사망률	성별, 주기별	
		사망성비	연령별	
		상병별 사망자수 구성	연령별, 주기별	
		암사망률	성별	신규
상병	상병평가	상병률, 활동제한일수 및 외병일수	성별, 주기별	
	질병 및 부상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율	성별, 연도별	
		유병률이 높은 직업관련 질환	성별	신규
		주요성인질환 유병률	성별, 연령별	신규
		에이즈 발생현황	성별, 연령별	
		에이즈 감염 관리자 현황	성별, 연도별	
		치매 노인 현황	성 및 연령계층별	

(계속)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비고
보건 의료이용	의료이용	의료보험가입자의 성별 진료실적	성별, 연도별	
		의료보험가입자의 수진율 및 평균 수진회수	성별, 연도별	
		의료보험가입자의 성별약국이용실적	성별, 연도별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 만족도	성별	
		의료서비스의 불만이유	성별	
	정부의 보건정책	모자보건사업실적	지역별	신규
보건의료 자원	보건인력의 규모	의료인력수 및 여성비율	성별, 연도별	

보건부문에서 개발이 필요한 젠더통계로는 생식보건과 관련하여 초경발현 연령분포와 연령별 폐경을이다. 특히 폐경은 주요 갱년기 현상으로 여성의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통계가 빈약하다. 그 외에 여성의 대표적인 갱년기 질환으로 거론되는 요실금과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의 공식통계가 부재하여 민간통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정부의 공식조사가 요청된다. 이외에도 정신건강 관련 통계와 최근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다이어트 실태 등에 대한 통계가 남녀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요청되는 통계들이다.

<표 III-26> 보건부문 통계개발 항목

관심영역	개발이 필요한 통계내용	생산방안
생리	초경발현 연령분포와 연령별 폐경을	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실태조사」 문항 추가
정신건강	우울증, 자살률 등 유형률	별도 조사
건강관리	다이어트 실태	별도 조사
갱년기질환	요실금, 골다공증 유형률	국가기준 마련, 별도의 조사 실시

바. 복지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국민기초생활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수준이 향상되고, 저소득모자가정, 독거노인 등 여성빈곤에 대한 지원증가 가능.
- 4대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확대 실시.
- 복지서비스의 수요 증대로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2) 국제적 경향

스웨덴의 복지관련 젠더통계는 아동보육과 노인보호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아동규모와 보육사 및 시설현황의 다루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부성수당지급일수를 게재하고 있어,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인구 역시 전체 규모와 함께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정도, 종류, 서비스양 등을 파악하고 있어, 여성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여성의 취업률과의 관계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민여성, 소수여성, 원주민여성, 노인여성 등 이종으로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특수여성집단에 대한 현황과 지위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III-27> 주요 선진국의 복지부문 젠더통계

	복지부문 주요 주제
스웨덴	연령별 아동수, 자치시 보육사, 시설등록 아동수, 시립보육시설 아동수, 부성수당지급일수, 노인인구 중 장애인, 서비스가 필요한 규모
캐나다	막내자녀연령별 여성취업률, 보육시설수, 출산휴가
	이민여성: 출신국, 언어, 직업, 소득, 정부지원 등에 대한 통계 소수여성: 취업, 학력, 소득, 가족, 등 원주민여성: 규모, 거주지역, 평균수명, 자살, 교육, 취업, 실업 등 여성노인: 거주형태, 건강상태와 서비스, 수입

3) 기존의 통계체계

1986년 복지부문은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사회복지자원 등의 관심영역으로 구성되었다(<표 Ⅲ-28> 참고).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관심영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세부관심영역을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수혜대상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관심영역으로 구성된 1994년의 복지부문 지표체계에서 이들 세부관심영역은 해당 관심영역의 개별지표로 설정된다. 또한 공적부조의 개별지표로 ‘공적부조대상가구수 추이’와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세대가장 세대’로 설정되는데, 이들 개별지표는 2000년까지 유지된다. 사회보험의 세부관심영역에서는 국민연금이 연금보험을 대체하게 된다.

1996년 이후 복지부문의 지표체계는 기존의 국민연금 관련 개별지표와 공적연금 관련 개별지표로 구성된 세부관심영역 공적연금과 세부관심영역 고용보험 등으로 구성된 소득보장과 의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관심영역이 설정된다. 사회복지서비스에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개별 지표와 함께 ‘가사와 취업 병행 서비스’가 새로운 세부관심영역으로 추가되고, 기존의 세부관심영역 ‘사회복지인력’이 개별지표로 편성된다.

<표 Ⅲ-28> 복지부문 지표체계 변화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공적부조	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추이*
			취로사업 참가자 구성비*
			취로노임단가추이*
			의료보호 적용인구*
			의료보호 수진율*
			장제보호*
			교육보호*
	사회복지 서비스	아동복지	사회복지시설 및 수용자수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 입양 및 결연아동비
			결연아동수
			탁아시설 이용자수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사회복지 서비스	부녀복지	미망인 분포
			요보호 모자가구 및 모자보호시설 수용보호비
			미혼모 수용보호비
			부녀직업보호시설 수용보호비
			부녀상담 실시 상황
			가출여성 분포
		장애자복지	심신장애자 수용자수
			심신장애자의 재가서비스 수혜 현황*
			심신장애자의 취업 분포*
			부랑인 시설 수용자 수
			정신요양원 수용자 수
		노인복지	양로원 수용보호비
	사회보험	의료보험	공교, 직장 의료보험적용인구 및 여자비율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구성비
			의료보험급여현황
			피보험자 관계별 피부양자수*
		연금보험	연금보험 수혜율*
	사회복지 자원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분포
1994a- 1995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자현황(연령, 성, 연금종류별)
			국민연금가입자현황(성, 산업별)
			국민연금가입자현황(성, 표준소득별)
			반환일시금수급자(1994b부터 미수록)
			국민연금수급자현황(성, 연령, 급여종류별)
		의료보험	의료보험적용인구
			의료보험피보험자수 및 부양률
			의료보험피보험자 분포
	공적부조	공적부조	공적부조대상가구수 추이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보육시설수, 이용자수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수, 여성비율
			취업자녀수탁률 추정
			부녀상담실시 현황(1994b부터 미수록)
			부녀복지시설현황, 수용자수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수
	사회복지 인력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사수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6~2000	소득보장	공적연금	공적연금 가입자 현황
			공적연금 수급률 및 수급자 현황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성, 연령)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표준보수(소득) 월액)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업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성 및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성 및 규모별) (1998부터 수록)
		공공부조	모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공공부조 대상가구 분포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험 적용인구
			피보험자 분포
			피보험자수 및 부양률
			의료보험가입자의 약국이용실적 (1999부터 수록)
	사회복지서비스	요보호여성과 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수 및 여성비율
			부녀복지시설의 수용현황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 및 여성비율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현황(1999부터 미수록)
			아동상담소 상담 실적
			아동임양현황(1999부터 미수록)
		가사와 취업 병행 서비스	취업여성 자녀(0-5세) 수탁률 추정치
			취학전 자녀양육 실태
			취학전 자녀양육 의견(1999부터 미수록)
			보육시설 수 및 이용자수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문요원(1999부터 수록)

주: 1) *는 개별지표로는 설정되었으나 통계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임.

4)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4대보험(공적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기본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4대보험에서의 성별 수급현황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함.
-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통계연보」의 생활보호관계 통계를 개정된 법의 체계로 전환.

<표 III-29> 복지부문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집계항목	비고
사회보험	공적연금	공적연금 가입자 현황	성 및 연금제도별	
		공적연금 수급률 및 수급자 현황	연금종류, 제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성 및 연령 표준보수 (소득) 월액 업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성 및 급여종류별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성 및 산업별	
			성 및 규모별	
		출산휴직급여	연령별 건수	신규
		육아휴직급여	성별 연령별 건수	신규
	건강보험	의료보험 적용인구	성 및 제도별	
		피보험자 분포	성, 제도, 표준보수(소득) 월액 등급별	
		피보험자수 및 부양률	성 및 제도별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자수 및 재해율	성별, 연도별	이전
		산업재해보험 수급현황	성별, 액수별	신규
국민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성별, 연령별	개정
		자활사업대상자	성별, 연령별, 사업종류별	개정
	의료보호	의료보호대상자 현황	성별, 연령별	신규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복지 시설과 서비스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수 및 여성비율	성 및 시설종류별	
		여성복지시설의 보호현황	시설종류별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현황 및 여성비율	성 및 시설종류별	
		아동상담소 상담 실적	성, 발생유형, 조치내용별	
		장애인 분포	성별, 연도별	신규
		성폭력 상담소 실적	성별, 연령별 건수	신규
		가정폭력 상담소 실적	성별 연령별 건수	신규
		12세미만 아동규모	연령별, 지역별, 부모의 취업여부별	신규
	가사와 취업 병행 지원 서비스	취업여성 자녀(0-5세) 수탁률 추정치	연도별	
		취학전 자녀양육실태	보호자 취업여부별, 자녀연령별	
		보육시설 수 및 이용자수	운영주체별	
	사회복지인력	사회복지사	성 및 자격등급별	
		사회복지전문요원	성별, 시도별	

나) 개편내용

- 공적연금에 대한 수급현황 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성별 수급현황 중 현재 가능한 것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급여현황에 대한 통계를 추가함.
-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에 맞추어 출생급여수당과 조건부 급여에 대한 성별, 연령별 수급자 혹은 수급액 현황을 제시.
-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서비스 건수계제.

복지분야에서 향후 개발이 필요한 통계는 4대 보험의 수급현황이다. 성별, 연령별, 연금종류별, 등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별 수급규모와 수급액에 대한 통계가 향후 생산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과 여성노인인구의 생활상태에 대한 세부조사가 필요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는 가사와 취업병행 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보육사업과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의 설치 현황, 이용 현황, 수요 등에 대한 통계와 함께 노인보호에 대한 서비스의 수요 및 현황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

<표 III-30> 복지부문 통계개발 항목

관심영역	개발이 필요한 통계내용	생산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 부조	여성의 연령별, 노동상태별 여성가장세대, 모자세대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DB 활용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보고통계에 항목 추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생활보호대상자 분포	
보살핌노동 지원서비스	지역별, 설치주체별, 모의 취업유무별, 아동의 연령별, 보육시설 설치현황, 서비스 주 이용자 현황, 수요조사 및 이용률	별도 조사
가사와 취업 병행 지원 서비스	노인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성별, 연령별, 경제수준별 수요	별도 조사
보살핌노동 지원서비스	지역별, 설치주체별, 모의 취업유무별, 아동의 학년별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설치현황과 이용자, 수요조사 및 이용률	별도 조사

사.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초자치 단체의 여성활동에 대한 통계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
- 시민사회운동이 보다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동시에 사회변혁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여성운동과 시민사회운동과의 연계성에 대한 통계개발이 필요해짐.
- 여성공무원의 육성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행정부문에서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짐.

2) 국제적 경향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1979년의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의 비준 여부를 기본적인 통계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외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 최고위급의 여성비율을 중요한 통계로 다루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지방자치제의 발달과 노동조합의 정치적 위상이 반영되어 중앙과 지방의회, 위원회, 평의회, 정당, 노동조합 등 각종 정치적 조직에서 회원수, 집행위원수, 의장

<표 III-31> 국제기구와 스웨덴의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젠더통계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 주요 주제
World's Women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비준여부, 국회의원, 장관, UN의 상위직, 여성대통령 또는 수상
Human Development Report	투표권, 피선거권, 의회진출년도, 장관, 국회의원,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비준여부
스웨덴	성별 투표율,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정당별 당선자수, 성별의회구성비, 국회 및 지방선거에서 출신국별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성별 정당의 의장수, 의회위원회비율, 장관 여성비율, 중앙과 지방정부의 평의회위원수, 정당별 시의회, 중앙의회 당선자수, 노동조합 집행위원수와 조합원수, 노동조합 선거당선자수

수,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등에 대한 다양한 정치참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3) 기존의 통계체계

현재의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의 지표체계는 1986년 사회활동 부문의 지표 체계에 근간을 두고 있다. 1986년 사회활동 부문은 정치참여, 단체활동, 문화기회접촉도, 여가활용 및 만족도 등을 관심영역으로 설정, 관련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1986년 지표체계는 1994년 정치참여, 단체활동, 기존의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을 세부관심영역으로 하는 문화활동 등으로 관심영역이 구성된다. 1994년 지표체계는 다시 1996년에 기존의 TV, 신문, 컴퓨터 관련 개별지표로 구성된 '정보미디어 접촉도 및 활용'을 독립적인 관심영역으로 구성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새로운 개별지표가 추가된 문화활동, 미디어와 1996년 등장한 컴퓨터 관련 개별지표를 포함한 정보화 정도 및 인식이라는 관심영역으로 구성된 문화 및 정보가 분리되어 독립적인 부문을 구성한다(<표 Ⅲ-32> 참고). 그에 따라 1986년 사회활동 부문의 관심영역 가운데 정치참여와 단체활동 그리고 세부관심영역에서 개별 관심영역으로 설정된 행정참여 등으로 현재의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이 구성된다.

<표 Ⅲ-32>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지표체계 변화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정치참여	정치활동	유권자수 및 투표율
			국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 수
			주요 정당의 당원수 및 고위직자 수
		여성관련제도 및 기구의 파악	각부처 위원회 위원 참여현황
			여성위원이 참여한 위원회의 기능별 현황*
			공무원 분포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 분포
			행정고사·외무고사·사법고사·기술고사 합격자 분포
	단체활동	단체활동	사회단체 참여자 구성비*
			종교활동 참여자 구성비*
			성직자 구성비
			여성단체 총괄표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문화기획 접촉도	문화활동 참여	독서인구 (성·지역 및 교육정도별) *
			독서인구 (성·지역 및 연령계층별) *
			신문구독빈도
			신문의 관심부분
			잡지구독*
			문화시설이용*
			전통문화행사접촉도*
			전통문화공연횟수 및 전수자의 분포*
			인간문화재·예술원·화술원 회원 분포*
	여가활동 및 만족도	여가활동 및 만족도	여가활동방법 (성·지역 및 교육정도별)
			여가활동방법 (성 및 연령계층별, 지역별)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TV시청률 및 시청시간 (주간)
			TV기호 프로그램
			관광여행참가, 숙박관광자의 동반자 형태, 숙박관광이 없는 이유, 여가증가시 여가활동 계획, 휴일의 활동
1994a~ 1995	정치참여	정치활동	유권자수와 투표율
			국회의원 입후보자, 당선자수
			주요정당 여성당원수 및 고위직자수
		정책참여결정	정부각부처 위원회의 위원수
			공무원수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수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수 (1995부터 수록)
	단체활동	단체활동	여성단체 총괄표
			종교인구 (1994a에는 '문화 및 종교활동'에 수록)
			자원봉사참여율 (1994b부터 수록)
	문화활동	문화활동 (1994a에 는 문화 및 종교 활동으로 수록)	언론기관의 종사자 분포
			예술인 현황 (1994b부터 수록)
		여가활동	여가활동 만족도와 불만 이유
			여가활동 방법
			TV시청률과 시청시간
			독서인구비율 (1994b부터 수록)
			신문구독빈도 (1994b부터 수록)
			신문의 관심부분 (1994b부터 수록)

(계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6-1997	정치활동	유권자 정치활동	유권자수 및 투표율
		여성의 정치진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당선자수
			주요 정당 당원수 및 고위직수
		정책결정과정참여	정부 각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공무원	공무원 여성수 및 비율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수
			공무원 채용고시 합격자 여성비율
	단체활동	단체/사회활동	여성단체 총괄표
			자원봉사 참여율
			종교인구 구성비
			언론종사자 현황
	문화활동	여가활동	독서인구비율
			연간 독서량 및 독서 종류
			공연 및 전시참여 현황
			여가활동 방법
			여가활동 만족도
	정보미디어 접촉도 및 활용	미디어접촉도	TV시청률 및 시청시간
		미디어 활용 양상	신문 읽는 시간
			신문의 관심 부문
			선호 TV 프로그램
1998-2000	정치참여	유권자 정치활동	유권자수 및 투표율
		여성의 정치진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당선자수
			주요 정당 당원수 및 고위직자수
	행정참여	공무원	공무원 여성수 및 비율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수
			공무원 채용고시 합격자 여성비율
		정책결정참여	정부 각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사회 및 단체활동	단체/자원활동	여성단체 총괄표
			자원봉사 참여율
		종교활동 및 사회활동	종교인구 구성비
			언론종사자 현황

주: 1) *는 개별지표로는 설정되었으나 통계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임.

4)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의 보직과 직급에 관한 통계를 취급하고, 대표적 육성정책인 여성채용목표제의 효과를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통계를 포함.

나) 개편내용

- ‘행정참여’관심영역에 ‘부처별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합격자 현황’을 게재하여, 동 정책의 효과를 확인.

<표 III-33>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지표	집계항목	비고
정치참여	유권자 정치활동	유권자수 및 투표율	성, 연도, 선거별	
	여성의 정치진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자 당선 자수	성, 연도별	
		국회상설위원회의 여성비율	위원회별	신규
		주요정당의 고위직자수	성 및 연령별	
행정참여	공무원	공무원 수 및 비율	성, 기관별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수	성, 중앙/지방, 직급별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부처별	신규
		공무원 채용고시 합격자 여성비율	성, 기관별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합격자 현황	고시종류별	신규
	정책결정참여	정부 각부처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	지방자치단체별	신규
사회 및 단체활동	단체/자원 활동	여성단체 총괄표	연도별	
		자원봉사참여율	성, 연령별	
	종교활동 및 사회활동	종교인구구성비	성, 종파별	
		언론종사자 현황	성, 언론사별	

- ‘행정참여’의 ‘정책결정참여’ 세부관심영역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상설위원회의 여성비율’을 포함하여 입법과정에서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여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총선 등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정치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지역)별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여성유권자의 정치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향후 여성유권자연맹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에게 요청하여, 투표행위에서의 성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민단체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서의 여성참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여성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표 III-34>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 통계개발 항목

관심영역	개발이 필요한 통계내용	생산방안
정치활동	성별, 연령별, 지역별 유권자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선거총합 원자료 재분석
사회활동	시민단체활동에서의 여성참여현황: 성별, 연령별 회원수, 유급종사자수, 임원수 자원봉사활동: 성별, 연령별, 지역별, 봉사내용별 종사자수	별도 조사

아. 문화 및 정보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전반적으로 증진하였으며, 주 5일 근무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여가활용과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승할 예정이다.

- 최근 4~5년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정보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의 수혜면에서 여성이 불리한 현상이 나타남.

2) 국제적 경향

- 캐나다는 정보부문을 별도의 장으로 취급하지 않고 교육부문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률에 대한 성별, 연령별 차이를 다루고 있다.
- UN의 *World's Women*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성별 사용률을 포함하여 대학에서의 신문방송학 전공자, 저널리스트, 세계뉴스매체의 성별 비율 등 다양한 대중매체분야에서의 여성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I-35>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문화 및 정보부문 젠더통계

	문화 및 정보 부문 주요 주제
World's Women	전화, PC, 인터넷 사용률, 신문방송전공자비율, 저널리스트 여성비율, 세계뉴스매체의 여성비율.
캐나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성별 연령별 사용률.

3) 기존의 통계체계

문화 및 정보부문은 1998년에 새로 신설한 부문으로 그 이전에는 정치 및 사회참여부문의 관심영역의 하나로 포함했었다. 이 부문은 문화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정보화 사회의 도입과 관련한 성별 평등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표 III-36> 문화 및 정보 부문의 지표체계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8-2000	문화활동	문화생활	독서인구비율
			종류별 서적구입 비율 (1998부터 수록)
			공연 및 전시참여 현황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출처 (1998부터 수록)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참여율 및 만족도 (1998부터 수록)
		여가활동	여가활동 방법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불만이유 (1998부터 수록)
	미디어접촉도 및 활용	미디어접촉도 및 활용	TV시청률 및 시청시간
			선호 TV프로그램
			TV내용의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1998부터 수록)
			비디오 시청시간 (1998부터 수록)
			신문의 관심 부문
	정보화 정도 및 인식	정보화 정도	컴퓨터 사용유무 및 습득경로 (1998부터 수록)
			컴퓨터 사용 용도
			컴퓨터 사용능력 및 시간 (1998부터 수록)
			통신기기 개인보유 현황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입수 경로 (1998부터 수록)
			정보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1998부터 수록)
			정보화의 필요성 및 대책 (1998부터 수록)

4)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문화의 수요증진과 여성의 적극적인 문화생산활동에 대한 통계의 반영
- 여가와 자기개발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인식
-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성별 수혜현황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는 지표 설정

나) 개편내용

-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성별 여가시간 조사결과를

추가함. 향후 가능하면 여가시간의 활용에서의 성별 차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려 함.

- 문화의 적극적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문화예술이 참여현황을 추가함.
- 정부의 정보화 추진정책에 대한 남녀수혜자 수의 비교를 포함하여 정책 결과의 측면에서의 성별 평등성을 추구함.

<표 III-37> 문화 및 정보부문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지표	집계항목	비고
문화활동	문화활동	등록문화예술인	성별	신규
	문화생활	독서인구비율	성별	
		종류별 서적구입 비율	성별, 교육정도별	
		공연 및 전시참여 현황	성별, 교육정도별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출처	성별, 지역별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참여율 및 만족도	성별, 지역별, 연령계층별	
	여가활동	여가시간	성별	신규
		여가활동방법	성별	
		여가활용 만족도	성별	
		여가활동 불만이유	성별	
미디어 접촉도 및 활용	미디어접촉도 및 활용	TV 시청률 및 시청시간	성별, 연령계층별	
		선호 TV 프로그램	성별, 교육정도별	
		TV 내용의 만족도 및 불만족이유	성별, 교육정도별	
		비디오 시청시간	성별, 연령계층별	
		신문 읽는 시간	성별,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신문의 관심 부문	성별, 연령계층별, 지역별	
정보화 정도 및 인식	정보화정도	컴퓨터 사용유무 및 습득경로	성별, 교육정도별, 지역별	
		컴퓨터 사용 용도	성별, 교육정도별, 지역별	
		컴퓨터 사용능력 및 시간	성별, 지역별	
		통신기기 개인보유현황	성별, 연령계층별, 지역별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입수 경로	성별, 교육정도별, 연령별	
		정보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성별	
		정보화의 필요성 및 대책	성별, 지역별, 연령별	
	정보화 정책	정보화 정책 수혜자	성별, 사업별	신규

자. 안전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직장내 성희롱,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등 성희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각해져,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가정폭력 역시 폐쇄공간에서 발생하여, 그 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2) 국제적 경향

국제기구의 관련통계는 주로 배우자폭력과 성폭력에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여성할례에 대한 현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전쟁 등으로 인한 난민 중 여성비율을 다루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가족유형별 폭력노출률 등을 다루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주관적 두려움 역시 주요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역시 범죄희생자의 규모와 특성을 다루고 있으며 신고범죄의 통계를 보충하는 조사범죄 통계를 병행하고 있어 정확한 범죄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피해여성의 보호시설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표 III-38>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안전부문 젠더통계

	안전부문 주요 주제
World's Women	배우자폭력, 성폭력, 여성할례, 난민보호소
Human Development Report	강간
스웨덴	연령별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피해, 피고인과의 관계, 가족유형별 폭력노출률, 연령별 범죄율, 재판결과별 범죄율
캐나다	범죄희생자, 연령별, 배우자폭력, 신고범죄와 조사범죄의 차이, 안전감, 타살, 피해여성 보호시설 현황, 고소율, 범죄율, 재소자수

3) 기존의 통계체계

안전 부문의 지표체계의 변화는 주로 1994년을 기점으로 나타난다. 즉 1985년 공안 부문이 범죄발생이라는 단일한 관심영역과 여성범죄유형, 여성범죄의 특성 등과 같은 세부관심영역으로 구성된다. 1994년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개별지표로 구성된 관심영역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추가된다. 1996년에는 기존의 세부관심영역 보고된 강간 범죄와 관심영역 여성범죄로 이루어진 폭력과 범죄의 발생과 피해와 법집행 등으로 체계가 개편된다. 1996년 이후의 변화로는 관심영역 법집행의 세부관심영역으로 법준수에 대한 의견(1998)이 추가되고 사회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도와 전화폭력 경험률(1998) 등과 같은 개별지표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표 III-39> 안전 부문의 지표체계 변화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86	범죄발생	여성범죄유형	총범죄자수 및 증가추이
			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자 수
			주요 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의 구성비 추이
			형법범죄 및 특별법범죄의 유형별 분포
			여성구성비가 높은 범죄의 분포
			주요 절취 재범자 분포*
			소년·소녀 범죄자수 및 비율
		여성범죄의 특성	범죄율 및 구성비 추이
			범죄율 추이
			범죄종기 분포
			범죄자 분포 및 범죄율 추이
			범죄자 분포 (성·범죄유형 및 직업별)
			범죄자 분포 (성·범죄유형 및 생활정도별)
			범죄 처분결과
1994a-1995	범죄로부터의 안전	보고된 강간 범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자수
			강간등 주요범죄율에 대한 공식통계와 피해자조사결과와의 비교
			여성생애동안의 성폭력의 경험 및 신고율
		안녕감	강간범죄자의 연령, 학력, 재범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계 속)

연도별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지표
1994a~ 1995	여성범죄 의 특성	여성범죄의 추이	범죄자수 및 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자 비율
			형법법과 특별법법의 범죄자수
			주요 범죄의 여성비
		여성범죄자의 특성	연령, 학력, 재법률
			범죄동기
			형법법과 특별법법의 기소율
1996~ 2000	안전에 대한 의식	안전감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감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1998부터 수록)
	폭력과 범죄의 발생과 피해	범죄피해와 여성 에 대한 폭력과 범죄	강간등 주요범죄에 대한 공식통계와 피해자 조사결과와의 비교
			여성 생애동안의 성폭력 경험 및 신고율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자수
			강간범죄자의 재법률
			전화폭력 경험률 (1998년부터 수록)
		범죄 발생과 여성 범죄자	범죄자수 및 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비율
			형법법과 특별법법의 범죄자수
			주요범죄의 여성범죄자수 및 여성비
			여성범죄자 분포
			여성범죄자 비율
			청소년범죄자 중 여성비율
	법집행	교정과 처우	형법법과 특별법법의 기소율
		법준수에 대한 의식 (1998부터 수록)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주: 1) *는 개별지표로서는 설정되었으나 통계표가 수록되지 않은 경우임.

4)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성폭력,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통계를 발굴, 게재하도록 함.

나) 개편내용

-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자료를 추가함.
- 성폭력, 가정폭력에 연령별 발생률 또는 피해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추가, 공식적 자료가 없을 경우 신뢰할 만한 민간자료를 발굴하여 대치하고 향후 정부의 공식통계자료 개발을 유도함.

<표 III-40> 안전부문 개편안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개별 지표	집계항목	비고
안전에 대한 의식	안전감	성별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성별, 지역별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감	성별, 교육정도별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성별, 지역별	
폭력과 범죄의 발생과 피해	범죄피해와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	강간 등 주요범죄에 대한 공식통 계와 피해자 조사결과와의 비교	범죄유형별	
		여성 생애동안의 성폭력 경험 및 신고율	성폭력유형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자수	연도별	
		강간범죄자의 재범률	연령, 교육정도별	
		전화폭력 경험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	연령별	신규 (공식통계없음)
		인터넷 성희롱과 성폭력	연령별	신규 (공식통계없음)
		가정폭력	성별, 연령별	신규 (공식통계없음)
	범죄 발생과 여성 범죄자	범죄자수 및 인구10만명당 범죄발생비율	성별, 연도별	
		형법법과 특별법법의 범죄자수	성별, 연도별	
		주요범죄의 여성범죄자수 및 여성비	주요범죄별, 연도별	
		여성범죄자 분포	학력, 연령,	
			범죄동기별	
		청소년범죄자 중 여성비율	연도별	
		여성범죄자 비율	범죄유형별, 연도별	
법집행	교정과 처우	형법법과 특별법법의 기소율	성별	
	법준수에 대한 의식	자기평가 및 타인평가 준법수준	성별, 지역별	

차. 남북한 비교부문 신설

1) 여건의 변화

-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과거 냉전시대에 비해 높아지면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사회비교의 필요성이 높아짐. 남북한 여성의 지위와 현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 통일시 여성의 지위상승을 도모하는 기초정책자료를 제공함.
- 그러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입수가능한 통계자료가 제한적임. 이에 따라 가용한 통계의 범위내에서 남북한 비교 부문을 새로 신설하고 향후 북한 통계가 구입될 경우 보충함.

2) 통계체계 신설안

- 인구, 가족, 교육, 경제활동 등 각 부문별 기본통계를 게재함.

<표 III-41> 남북한 비교부문 신설안

	개별 지표	비고
	남북한 비교	
	총인구	
	총가구과 평균가구원수	
	출생시 성비	
	합계출산율	
	평균가구원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실업률	
	기대여명(평균수명)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조이혼률	
	의료인 중 여성비율	
	교육기관수와 학생수	
	인구만명당 대학생수	
	대학교수수와 여교수 비율	
	여성단체수 및 회원수	
	성별 예술인 현황	
	대중매체 종사자 성비	
	아동보육시설현황	
	의회 및 장·차관 여성비율	

카. 국제비교부문 체계의 개편

1) 여건의 변화

- OECD의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수준의 중상위권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수준에 걸맞는 여성의 권한확대와 지위상승이 국제사회에서 요구됨.

2) 기존의 통계체계

1994년 처음으로 「여성통계연보」에 분야별 구분 없이 국가별 주요 지표를 수록한 이후, 1996년부터는 된 후, 1996년부터는 분야별로 국가별 지표를 수록하고 있다(<표 Ⅲ-42> 참고).

<표 III-42> 국제비교부문의 수록 항목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인구	평균가구원수	0	X	X	X	X	X
	초혼연령	0	X	X	X	X	X
	모성사망률	0	X	X	X	X	X
	분만개조자에 의한 출산비율	0	X	X	X	X	X
	조출생률	X	0	0	0	0	0
	조사망률	X	0	0	0	0	0
	영아사망률	0	0	0	0	0	0
	조혼인율	X	0	0	0	0	0
	조이혼율	X	0	0	0	0	0
	합계출산율	0	0	0	0	0	0
	평균수명	0	0	0	0	0	0
	출생아수	X	X	X	X	X	0
	출생성비	X	0	0	0	0	0
	모의 연령별 출산구성비	X	0	0	0	0	X
교육	중·고등학교생 남녀비	0	X	X	X	X	X
	대학생 남녀비	0	X	X	X	X	X
	취학률 (초, 중, 고등)	0	0	0	0	0	0
	여교사비율 (초, 중, 고등)	X	0	0	0	0	0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기관 학생수	X	0	0	0	0	0
경제활동	여성경제활동인구비율 (남성대비)	0	X	X	X	X	X
	여성취업자중무급가족종사자비율	0	X	X	X	X	X
	비농업무문 남녀임금비	0	X	X	X	X	X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X	0	0	0	0	0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0	0	0	0	0	0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 분포	X	0	0	0	0	0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 현황	투표권 획득연도	0	X	X	X	X	X
	의원 중 여성비율	0	0	0	0	0	0
	장·차관급 여성비율	0	0	0	0	0	0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0	0	0	0	0	0
1인당 국민총생산		0	X	X	X	X	X
인간개발지수 순위		0	X	0	0	0	0
국가별 남녀평등 지수		X	X	0	0	0	0
국가별 남녀권한척도		X	X	0	0	0	0
국가별 평등기회 척도		X	X	X	0	0	0
국가별 성희롱과 폭력		X	X	X	0	0	0
사회문제	강간 (100, 000명 당)	X	0	0	0	0	X
	혼인의 출산율	X	0	0	0	0	X
	이혼율	X	0	0	0	0	X
안전한 식수 공급률		0	X	X	X	X	X
위생시설 (화장실, 하수)의 수혜인구비율		0	X	X	X	X	X

3) 통계체계 개편안

가) 개편방향

-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관련된 통계의 국제비교를 추가함.

나) 개편내용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지원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률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을 도모함.

<표 III-43> 국제비교 부문 개편안

국제비교	개별 지표	비고
	인구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취학률	
	여성고사비율 및 성별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자수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대중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신규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 분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	신규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현황	
	국가별 남녀평등 지수	
	국가별 남녀권한척도	
	국가별 평등기회척도	
	국가별 성희롱과 폭력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활성화 방안

1.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생산	117
2.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자 실태 분석	119
3. 「여성통계연보」 및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126
4. 부문별 활용정도	137
5. 이용활성화 방안	141

1.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생산

가. 생산개요

「여성통계연보」는 여성지위와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입안자에 대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다.²⁵⁾ 현재 「여성통계연보」는 매년 총 800부 가량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중 연구자와 여성개발원 원내 연구자에게 100부, 필수 배포처와 회원용으로 550부, 그리고 유상판매용으로 150부가 배포되고 있다. 필수 배포처는 정부부처, 대학, 여성단체, 여성관련 연구소 등을 선정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유상판매는 한국여성개발원과 교보서점 등 대형서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여성통계연보」의 발행부수는 통상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인쇄되는 보고서와 비교하여 많은 편인데, 이것은 「여성통계연보」가 다른 보고서와 달리 여러 부처와 연구자들의 기초자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통계연보」는 발행부수의 제한을 극복하고 여성통계의 대중화를 위해 1998년에 이르러 보고서 통계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여성통계」²⁶⁾의 특징은 책자로 인쇄된 보고서 형식을 그대로 웹에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기존 보고서에 익숙한 이용자가 불편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검색기능과 그래프 기능을 제공하여 네티즌으로 하여금 원하는 여성통계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생산과정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는 2001년 현재 두 개의 부서에서 각

25) 「여성통계연보」의 자세한 연혁은 제3장 제1절을 참조할 것

26) 본 보고서에서는 책자로 발간되는 여성통계를 「여성통계연보」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는 여성통계를 인터넷 「여성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각 생산하고 있다. 「여성통계연보」는 매년 노동통계연구부에서 기본연구과제로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 「여성통계」는 정보협력부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한달 반 가량 갱신 작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여성통계연보」의 보고서는 통상 2명의 연구자가 6개월(7월~12월)간 수행한다. 보고서 작성은 「여성통계연보」에 게재된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해 생산된 주요 젠더 통계가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여 최근 생산된 통계자료로 갱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대개 보고서가 당해 12월 말에 발간되어야 하므로, 통계수치는 11월 말 발간된 각종 통계를 수록하게 된다. 게재 연도는 가능하면 최근 연도의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시계열적 요인이 중요한 통계의 경우 주기별로 통계를 실고 있다. 그리고 성별 혹은 주요한 변수로 분리되지 않은 통계의 경우 구입 가능한 원자료²⁷⁾를 통해 재분석하여 작성하고, 성별 분리 통계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비율 등을 재계산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여성통계는 「여성통계연보」 보고서가 발간되면 이를 바탕으로 자료갱신이 이루어진다. 갱신작업은 전담직원을 통해 통상 한달 반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이에 통상 인터넷 「여성통계」는 「여성통계연보」에 비해 한 두달 늦게 서비스된다. 인터넷 「여성통계」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인터넷 서비스 중 대표적인 통계서비스로 본원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네티즌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이다. 2001년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의 총 접속자 수는 9,733건으로 이중 여성통계를 방문하여 통계를 확인한 건수가 29,885건²⁸⁾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접속건수는 한국여성개발원의 홈페이지에

27) 원자료 구입은 대개 통계청에서 생산된 자료를 구입하여 분석한다. 주로 구입하는 원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통계조사」, 「인구동태조사」 등이며, 원자료를 사용한 통계의 경우 '출처'라는 표현대신 '자료'란 표현으로 자료원을 밝히고 있다.

28) 홈페이지 접속건수 보다 인터넷 「여성통계」의 접속건수가 많은 것은 인터넷 「여성통계」의 접속건수는 부문별로 카운터의 합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한명의 접속자가 한국여성개발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번의 카운터타에 체크되지 않지만 인터넷 「여성통계」의 경우 부문별로 체크되기 때문에 접속건수보다 높은 방문횟수를 보이게 된 것이다.

접속하여 각종 정보를 검색한 총 건수의 14%를 차지하는 비율로서 한국여성개발원의 정보서비스로 가장 중요한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2.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자 실태 분석

가. 「여성통계연보」의 이용현황

1) 이용 정도와 용도

「여성통계연보」의 이용 정도를 보면, 1년에 1~2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38.7%이고, 한 달에 1회 이상 본다는 응답자는 27.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직업별로 보면 연구원과 교수집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공무원 집단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통계연보」의 작성 이 여성관련 연구자와 여성정책입안자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무원 집단의 이용률은 의외로 낮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IV-1> 성별, 직업별 「여성통계연보」 이용정도

단위: %

항 목	구 분	한 달에 1회 이상	세 달에 1-2회 정도	1년에 1-2회 정도
성 별	계	27.3	34.0	38.7
	여 자	28.7	34.7	36.7
	남 자	22.7	31.8	45.5
직업별	공무원	20.7	36.8	42.5
	연구원, 교수	35.8	32.1	32.1
	기 타	23.1	30.8	46.2

주: 기타는 학생, 사무직원 등을 포함.

「여성통계연보」의 사용용도를 보면 연구·학술·학습 활동과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의 용도가 각각 47.9%와 32.3%로 높았고, 사업 및 경영계획수립과 업무의 개인적 관심사 때문이란 의견도 각각 12.0%와 7.8%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공무원과 연구직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많았던 여성은 정책수립 및 평가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연구·학술·학습활동 등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예상했던 것과 같이 공무원의 경우 정책수립 및 평가(63.5%)의 용도로, 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학술·학습활동(87.8%)의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IV-2> 「여성통계연보」 사용용도

단위: %

항 목	구 분	정책수립 및 평가	연구·학술· 학습활동	사업 및 경영계획수립	업무의 개인적인 관심
성 별	계	32.3	47.9	12.0	7.8
	여 자	62.8	14.0	11.6	11.6
	남 자	23.5	57.7	12.1	6.7
직업별	공무원	63.5	7.1	20.0	9.4
	연구원, 교수	6.1	87.8	4.9	1.2
	기 타	12.0	56.0	8.0	24.0

주: 기타는 학생, 사무직원 등을 포함.

2) 입수경로 및 가격

입수경로를 보면, 72.7%의 「여성통계연보」이용자는 도서관 및 소속기관 자료실을 통해 「여성통계연보」를 열람하고 있었고, 19.7%가 여성개발원 정기구독회원으로, 그리고 7.7%가 개별구입을 통해 「여성통계연보」를 입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구입의 경우 「여성통계연보」의 가격이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적당하거나 싸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7.1%로 절반이 조금 넘었으나 비싼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2.9%에 이르렀다.

<표 IV-3> 「여성통계연보」의 입수 경로

단위: 명, %

	빈 도	비 율
여성개발원 정기구독회원	36	19.7
개별 구입 (여성개발원 또는 서점)	14	7.7
도서관 및 소속기관 자료실 열람	133	72.7
전 체	183	100.0

3) 문의 사항 해결 및 장점

이용자의 대부분은 「여성통계연보」를 보다가 문제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여성개발원에 문의'(22.5%)하기 보다 '다른 기관의 통계간행물을 참고'(41.4%)하거나 '해당통계표의 출처에 나와 있는 원래의 통계를 찾아봄'(35.6%)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정부부처에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성개발원에 문의'하는 정도는 여자에 비해 남성이 높았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의 경우가 다른 직업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4> 문제점/문의사항 해결 방법

단위: 명, %

	빈 도	비 율
해당 통계표의 출처에 나와 있는 원래의 통계를 찾아봄	68	35.6
여성개발원에 문의	43	22.5
다른 기관의 통계간행물을 참고	79	41.4
해당 정부부처에 문의	1	0.5
전 체	191	100.0

「여성통계연보」 이용자들은 다른 통계에 비해 「여성통계연보」의 장점을 '남녀비교가 가능하게 만든 점'(62.2%)과 '여러 부문을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

서로 만든 점'(61.1%)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원래의 통계자료보다 구입이 쉬운 점과 여성의 시각으로 작성한 점에 대한 장점은 이용자에게 큰 장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 「여성통계연보」의 장점

단위: 명, %

	빈 도	비 율
여러 부분을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만든 점	118	61.1
남녀비교가 가능하게 만든 점	120	62.2
원래의 통계자료보다 구입이 쉬운 점	16	8.3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점	27	14.0
여성의 시각으로 작성한 점	1	0.5
전 체	193	100.0

주: 중복응답임.

나.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현황

1) 사용정도

한국여성개발원은 1998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여성통계를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 「여성통계」는 여성개발원의 정보협력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통계연보」 보고서를 기반으로 매년 자료를 갱신하고 있다. 인터넷 「여성통계」의 장점은 책으로 발간되는 「여성통계연보」의 분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디자인하여 통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여성통계연보」에서는 보고서 부피의 한계로 인해 주기별 혹은 매년의 변화추이를 모두 수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인터넷 「여성통계」는 이런 제약이 없어 매년 삭제 없이 최근 자료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longitudinal data)을 얻을 수 있는 편리점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인터넷 「여성통계」는 「여

성통계연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즉, 설문을 통해 인터넷 「여성통계」에 대한 사용경험을 질문한 결과 「여성통계연보」보고서 이용자의 45.2%만이 인터넷 「여성통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고, 54.8%는 이용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직업별로는 공무원보다 연구원 및 교수들의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6>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경험

단위: %

구 분	있 다	없 다
전 체	45.2	54.8
여 자	41.8	58.2
남 자	56.8	43.2
공무원	45.5	54.5
연구원, 교수	50.6	49.4
기 타	26.9	73.1

이에 인터넷 「여성통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했다.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6%가 인터넷 「여성통계」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응답했고, ‘활자에 익숙하거나 책이 편리해서’가 13.1%,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 11.1%로 응답한 반면, 인터넷 이용여건이 안되거나,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의 이유를 말한 응답자는 2%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8년 인터넷 「여성통계」의 데이터 베이스를 완성한 후 여러 차례의 시연회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지만 이후로 지속적인 홍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여성통계의 이용자가 공무원 혹은 30대 중반 이상이어서 인터넷 「여성통계」보다 보고서 형태의 인쇄물이 더 친근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 성별로는 이유에 대한 큰 차이 없이 남성은 ‘있는 것을 몰랐다’는 응답이, 그리고 여성은 ‘활자에 더 익숙해서/책이 편리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성에 비해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 인터넷 「여성통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있는 것을 몰랐음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때문	인터넷을 이용할 여건이 안됨	원자에 더 익숙 해서 /책이 편리해서	타홈페이지 이용 (통계청)	출력해야하 는 번거로움	보고서 입수가 용이해서	관심없음
전 체	63.6	11.1	3.0	13.1	2.0	2.0	1.0	4.0
여 자	61.7	11.1	2.5	14.8	1.2	2.5	1.2	4.9
남 자	72.2	11.1	5.6	5.6	5.6	0.0	0.0	0.0
공무원	59.1	11.4	2.3	15.9	4.5	2.3	0.0	4.5
연구원, 교 수	64.9	8.1	2.7	16.2	0.0	2.7	2.7	2.7
기 타	72.2	16.7	5.6	0.0	0.0	0.0	0.0	5.6

2) 인터넷 「여성통계」의 선호도

인터넷 「여성통계」의 선호도는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는 89명(「여성통계연보」 이용자의 45.2%)의 응답자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먼저 두 매체 중 어떠한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가를 질문한 결과, 성별 차이 없이 「여성통계연보」책자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공무원의 경우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이 「여성통계연보」 책자 이용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성과 직업별로 보면 책자의 이용이 높은 집단은 남성과 연구원 및 교수집단으로 각각 60.0%와 61.9%로 책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여성 혹은 공무원의 경우 이들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I-8>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 중 주로 이용하는 매체

단위: %

항 목	구 분	「여성통계연보」 책자	인터넷 「여성통계」	비슷하다
성 별	계	52.8	39.3	7.9
	여 자	50.0	40.6	9.4
	남 자	60.0	36.0	4.0
직업별	공무원	42.5	52.5	5.0
	연구원, 교수	61.9	26.2	11.9
	기 타	57.1	42.9	0.0

책자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78.3%의 응답자가 ‘인쇄형태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0.9%의 응답자는 ‘「여성통계연보」 책자가 인터넷 「여성통계」에 비해 빨리 갱신되기 때문’에, 6.5%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4.3%의 응답자는 ‘「여성통계연보」 책자가 ‘시계열 통계를 보기에 편리하기 때문’으로 대답했다.

<표 VI-9> 「여성통계연보」 책자를 더 자주 이용하는 이유

단위: %

인쇄형태가 익숙하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	「여성통계연보」 책자가 인터넷 「여성통계」보다 빨리 갱신된다	시계열 통계를 보기가 편리하다
78.3	6.5	10.9	4.3

반면 인터넷 「여성통계」를 더 자주 이용하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료를 더 빨리 입수할 수 있어서’가 40.0%로 가장 높았고, ‘필요한 내용만 볼 수 있기 때문’이 34.3%, ‘통계내용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 25.7%로 나타났다.

<표 VI-10> 인터넷 「여성통계」를 더 자주 이용하는 이유

단위: %

필요한 내용만 볼 수 있으므로	통계내용을 저장할 수 있어서	자료를 더 빨리 입수할 수 있어서
34.3	25.7	40.0

요약하면, 두 매체 모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대체로 인터넷 「여성통계」에 비해 책자로 발간되는 「여성통계연보」를 더 선호하고 있었고, 「여성통계연보」를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인쇄형태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여성통계」를 더 선호할 경우는 ‘자료입수가 빨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여성통계연보」 및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가.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

「여성통계연보」를 이용해본 응답자는 「여성통계연보」의 품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용자의 64.8%가 「여성통계연보」의 품질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0.5%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보다 연구원, 교수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VI-11> 「여성통계연보」 품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단위: %

항 목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성 별	계	3.1	61.7	34.7	0.5
	여 자	4.0	62.4	32.9	0.7
	남 자	0.0	59.1	40.9	0.0
직업별	공무원	2.3	51.7	46.0	0.0
	연구원, 교수	5.0	70.0	23.8	1.3
	기 타	0.0	69.2	30.8	0.0

1) 수록 내용에 대한 만족도

수록 내용의 만족도는 내용의 포괄성, 내용의 간결성, 성별 통계제시 정도,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 등을 통해 이용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했다. 응답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척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나, 보통이란 응답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수록내용의 포괄성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65.8%의 이용자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47.4%만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수록내용의 간결성

과 특집의 주제 선정 및 내용에 관한 만족도는 절반정도의 응답자가 만족하는데 그쳐서, 전반적인 만족도에 비해 항목별 만족도는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표 VI-12> 「여성통계연보」의 수록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록내용의 포괄성	6.7	59.1	31.6	2.6	0.0
수록내용의 간결성	5.7	47.4	42.8	3.6	0.5
성별 통계 제시정도	8.3	54.9	32.6	4.1	0.0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	2.6	44.8	45.3	6.8	0.5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	4.2	45.5	43.5	6.8	0.0

직업별로는 연구원과 교수 집단의 만족도가 공무원 집단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학생 등의 집단과는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공무원 은 내용의 포괄성과 성별통계제시 정도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표 VI-13> 직업별 「여성통계연보」의 수록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항 목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록내용의 포괄성	공무원	2.3	61.6	34.9	1.2	0.0
	연구원, 교수	12.3	54.3	29.6	3.7	0.0
	기타	3.8	65.4	26.9	3.8	0.0
수록내용의 간결성	공무원	2.3	40.7	52.3	4.7	0.0
	연구원, 교수	7.3	53.7	36.6	2.4	0.0
	기타	11.5	50.0	30.8	3.8	3.8
성별통계 제시정도	공무원	1.2	57.6	37.6	3.5	0.0
	연구원, 교수	17.1	51.2	26.8	4.9	0.0
	기타	3.8	57.7	34.6	3.8	0.0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	공무원	0.0	38.4	52.3	9.3	0.0
	연구원, 교수	5.0	48.8	38.8	6.3	1.3
	기타	3.8	53.8	42.3	0.0	0.0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	공무원	0.0	47.6	47.6	4.8	0.0
	연구원, 교수	9.9	44.4	37.0	8.6	0.0
	기타	0.0	42.3	50.0	7.7	0.0

보였고,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에 대해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연구원과 교수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만족정도를 보이지만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50%이상으로 공무원에 비해 훨씬 만족하고 있었다.

「여성통계연보」는 1996년 이래 매년 특집²⁹⁾을 게재하여 다른 통계보고서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집내용은 대개 여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관심부분을 주제로 선정하여 15쪽 전후의 페이지를 할당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에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정도를 수록내용의 만족항목에 넣어 질문하였다. 결과, 절반에 가까운 49.7%의 응답자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43.5%는 보통으로, 그리고 6.8%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연구원과 교수집단이 '만족한다'(54.3%)는 응답과 '불만족한다'(8.6%)는 응답 모두에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생 등 기타 집단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집의 불만족 이유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80.0%로 가장 높았고, 주제가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16.7%로 다음을 차지했다. 하지만 특집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의 경우 연구원과 교수에 비해 주제가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직업별 「여성통계연보」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 불만족 이유
단위: %

구 분	주제가 시의 적절하지 못함	내용이 불충분함	특집 자체가 불필요함
전 체	16.7	80.0	3.3
공무원	25.0	75.0	0.0
연구원, 교수	14.3	78.6	7.1
기 타	0.0	100.0	0.0

29) 특집 내용을 보면, 1996년 OECD 회원국 여성의 현황, 1997년 여성노인, 1998년 여성실업의 국제비교, 1999년 여성기업인의 증가추이와 경영활동 현황, 2000년 여성공무원 현황과 변화추이 등의 내용을 특집내용으로 실었다.

2) 편집과 형식의 만족도

가) 통계표 제시 형식

「여성통계연보」에 제시된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분리를 하고 있고 여성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선정하여 통계를 분리·수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제목과 표기는 영문과 함께 사용함으로 한국여성연구에 관심 있는 외국 연구자들을 배려하였으며, 통계제시는 최신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주기별 계계를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편집에 있어 남녀분리를 원칙으로 하다보니 합계가 없거나 영문과 함께 표기함에 따라 표가 복잡해 보이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여성통계연보」의 편집형태에 대한 만족정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질문 결과를 보면, 먼저 「여성통계연보」의 통계표 제시형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2.6%, 만족 55.2%, 보통 39.2%, 불만족 3.1%로서 만족하다는 응답이 57.8%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연구원과 교수의 만족도가 공무원과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보통이거나 불만족한 경우가 54.0%로 과반수가 넘었다. 불만족의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는 용어해설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50.0%로 나타났고 표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33.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견해는 여성통계연보가 여러 부분을 하나의 책에 수록하고 제한된 공간에 영문과 주기별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각 통계표에 대해 주 혹은 용어해설³⁰⁾을 충분히 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IV-15> 「여성통계연보」의 통계표 제시형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2.6	55.2	39.2	3.1	0.0
공무원	0.0	46.0	50.6	3.4	0.0
연구원, 교수	3.7	66.7	27.2	2.5	0.0
기 타	7.7	50.0	38.5	3.8	0.0

30 「여성통계연보」는 주요의 용어해설 및 주요 산식은 「용어해설 및 산식 자료원」에 수록하고 있다.

나) 책의 크기

「여성통계연보」는 1994년 첫 발간 이래 책의 크기를 4×6판(가로 세로의 비율)으로 하여 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크기는 통계청의 정기간행물과 동일한 크기이며, 많은 통계간행물들이 이와 동일한 크기로 발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책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통계연보」의 편집과 형식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부분이다. 즉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69.1%로 높게 나타났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5%로 낮게 나타났다. 불만족한 경우는 책의 크기를 현재보다 작게 하기를 원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보다 1/2의 크기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37.5%로 가장 높았고 2/3의 크기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25.0%를 보였다. 반면, 현재보다 크게 해야한다는 의견은 12.5%로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V-16> 「여성통계연보」의 크기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7.9	61.2	26.4	4.5	0.0
공무원	2.5	59.5	31.6	6.3	0.0
연구원, 교수	16.2	59.5	21.6	2.7	0.0
기 타	0.0	72.0	24.0	4.0	0.0

<표 IV-17> 바람직한 「여성통계연보」의 크기

단위: %

현재 크기의 2/3정도	현재 크기의 1/2정도	현재보다 크게	현재보다 약간적게
25.0	37.5	12.5	25.0

주: 불만족한 이용자의 응답임.

다) 특집/내용분석/그림/통계표 분량에 대한 만족도

「여성통계연보」의 구성은 특집,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체계, 용어해설 및 산식, 자료원 등의 개요부분과 통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표는 10개 부

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고 각 부문은 간략한 내용분석³¹⁾과 그림을 수록한 후 통계표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표는 여성관련 지표체계를 고려하여 매년 새로 생산되는 통계를 추가로 수록하며, 여성관련 지표로서 그 의미를 상실한 통계표의 경우 삭제하고 있다. 그림과 내용분석은 큰 틀의 변화 없이 당해 쟁점이 되거나 변화된 통계의 추이를 서술하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통계표는 매년 추가되고 주기성을 고려한 통계표의 작성으로 인해 「여성통계연보」의 부피가 매년 증가하게 되었다.³²⁾ 이는 「여성통계연보」가 여성정책과 연구에 필요한 통계를 충분히 수록하고자 하는 의도였지만, 책이 너무 방대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여성통계연보」의 구성 분량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결과 현재 정도의 분량에 과반수 이상(52.8%)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불만족한 결과 또한 다른 응답에 비해 높아 남성의 경우 13.6%가 불만족하고 연구원과 교수는 9.9%가 현재의 분량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8> 특집/내용분석/그림/통계표 구성 분량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항 목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성 별	계	3.1	49.7	38.9	8.3	0.0
	여 자	3.4	51.0	38.9	6.7	0.0
	남 자	2.3	45.5	38.6	13.6	0.0
직업별	공무원	0.0	43.0	48.8	8.1	0.0
	연구원, 교수	6.2	54.3	29.6	9.9	0.0
	기 타	3.8	57.7	34.6	3.8	0.0

불만족 이유는 통계표와 분석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이를 증가시키거나 치밀한 분석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주였다. 특히 내용분석은 현재보다

31) 총 10개 부문에서 국제비교를 제외하고 9개 부문에 대한 내용 분석을 부문별로 하고 있다.

32) 「여성통계연보」는 표 목차 부분을 제외하고 1994년 393쪽에서 2000년 497쪽으로 100쪽 이상 증가하였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90.9%로 매우 높았고, 통계표의 증가와 특집내용의 증가도 80% 이상이 현재 수준에서 더 증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와 같이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높은 이유는 「여성통계연보」의 전문통계 부족 때문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여성통계연보」가 대중성과 함께 해결해야 할 큰 숙제중의 하나이다³³⁾.

<표 IV-19> 「여성통계연보」 본량의 증감에 대한 견해

단위: %

구 분	늘려야 함	줄여야 함
특 집	80.0	20.0
내용분석	90.9	9.1
그 린	57.1	42.9
통 계 표	87.5	12.5

3) 이용상의 만족도

발간주기, 통계의 정확성, 통계신속성, 용어해설, 구입의 용이함, 사용의 편리함 등은 통계보고서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여성통계연보」는 1차 생산된 통계를 재가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계청 등의 통계생산 부서에 비해 통계의 신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통계생산 부서의 통계보고서가 발간된 후 이를 재가공하게 되며, 원자료를 통해 재분석의 경우도 동일하게 통계생산 부서의 보고서가 발간되어야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여성통계연보」에 실린 통계의 대부분은 통계생산 연도와 비교하여 1년 혹은 2년 뒤의 통계를 수록함에 따라 정책수립에 필요한 최근 통계를 지원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수립을 위해 「여성통계연보」를 보는 공무원에게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다. 실제 이용상의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이용상의 만족요소 중 통계의 신속성은 가장 낮은 만족정도를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³⁴⁾.

33) 이에 대한 해결방안 본 장의 제 3절 이용활성화 방안을 볼것.

「여성통계연보」의 이용에 있어 가장 만족스런 부분은 발간주기(매우 만족 10.8%, 만족 58.2%)이며 다음으로 사용의 편리함(매우 만족 6.3%, 만족 52.3%), 통계의 정확성(매우 만족 3.4%, 만족 49.7%)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해서 언급했듯 통계의 신속성은 26.6%(매우만족+만족)의 이용자만이 만족하고 있었고, 용어해설과 구입의 용이함 또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39.6%와 44.8%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표 IV-20> 「여성통계연보」의 이용시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발간주기	10.8	58.2	19.1	11.9	0.0
통계의 정확성	3.4	49.7	43.6	3.4	0.0
통계의 신속성	2.2	24.4	54.4	17.8	1.1
용어 해설	1.7	37.9	51.4	9.0	0.0
구입의 용이함	5.7	39.1	44.3	10.9	0.0
사용의 편리함	6.3	52.3	39.2	1.7	0.6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통계의 신속성은 사실 통계발간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발간주기가 짧을 경우 그 만큼 빨리 발표된 통계를 재가공하여 발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간주기에 불만족한 이용자들에게 바람직한 발간주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2%가 6개월의 주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고, 분기별로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도 2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의 경우가 연구원과 교수들에 비해 짧은 주기의 발간을 원하고 있었다. 반면 연구원과 교수의 경우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0.0%로 비교적 높게 응답하고 있었다.

<표 IV-21> 직업별 바람직한 발간 주기

단위: %

구 분	분 기 별	6개월	2~3년
전 체	21.7	65.2	13.0
공 무 원	28.6	71.4	0.0
연구원, 교수	20.0	60.0	20.0
기타(학생 등)	16.7	66.7	16.7

나.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는 「여성통계연보」의 이용 경험자 197명 중에서 인터넷 「여성통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45.2%의 응답자에게 질문한 것으로 만족도에 대한 항목은 「여성통계연보」와 동일하게 하였다.

먼저 인터넷 「여성통계」의 전반적인 만족정도를 질문한 결과, 만족비율이 38.8%(매우 만족 포함)로서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에 비해 19.6%포인트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공무원이 연구원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 만족도

단위: %

항 목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성 별	계	1.2	37.6	51.8	8.2	1.2
	여 자	1.7	35.0	53.3	8.3	1.7
	남 자	0.0	44.0	48.0	8.0	0.0
직업별	공무원	0.0	32.5	62.5	5.0	0.0
	연구원, 교수	2.6	44.7	39.5	10.5	2.6
	기 타	0.0	28.6	57.1	14.3	0.0

2) 수록내용의 만족도

인터넷 「여성통계」의 전반적 만족도가 「여성통계연보」에 비해 크게 낮았지만, 수록내용의 만족도는 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수록내용의 포괄성을 보면 만족도가 44.7%로서 과반수 미만의 만족율을 보였고 51.8%는 보통을, 그리고 9.4%의 응답자는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외 다른 평가지표의 만족도를 보면 수록내용의 간결성 47.0%, 성별 통계제시 정도 51.9%,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 43.6%로서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에 비해 조금 낮거나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사실 인터넷 「통계연보」가 「여성통계연보」를 기반으로 통계를 갱신함에 따라 최신통계갱신에 있어 「여성통계연보」보다 1~2개월 늦은 것 이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방대한 통계를 주기별, 연도별로 수록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통계표 이외에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평가와 만족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여성통계연보」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신속한 갱신에서 오는 만족감의 부족과 인쇄본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편견 때문으로 보인다.

<표 IV-23> 인터넷 「여성통계」의 내용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록내용의 포괄성	3.5	41.2	51.8	3.5	0.0
수록내용의 간결성	3.5	43.5	47.1	5.9	0.0
성별 통계제시정도	5.9	45.9	43.5	4.7	0.0
통계의 지표화 작업정도	1.2	42.4	43.5	12.9	0.0

2) 편집과 형식의 만족도

인터넷 「여성통계」의 첫 화면은 가장 최근자료의 통계를 볼 수 있게 편집되어 있고, 하단에 행, 열, 연도, 출력형태, 단위 등을 통해 원하는 통계만을

검색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검색은 모든 행과 열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초기화되어 있으며, 출력형태에 따라 그림과 통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성통계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여성통계연보」에 수록된 제목과 단어에 대한 검색기능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통계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여성통계」는 영문을 함께 표기함으로서 복잡하다는 느낌을 주고, 그림의 경우 원하는 형태로의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염두해 두고 인터넷 「여성통계」 편집과 형식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결과를 보면 통계표 제시형식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44.1%로 나타났고, 그래프 제시형식은 36.9%의 만족정도를 보여 통계표 제시형식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IV-24> 인터넷 「여성통계」의 편집과 형식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표 제시 형식 만족도	1.2	42.9	47.6	7.1	1.2
그래프 제시 형식 만족도	1.2	35.7	54.8	6.0	2.4

3) 이용상의 만족도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에 있어 가장 높은 만족을 보인 항목은 통계의 정확성으로 61.9%의 응답자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 53.1%에 비해 높은 만족비율로서, 인쇄본으로 발간된 「여성통계연보」가 재 수정하기 어려운 반면 인터넷 「여성통계」의 경우 수시로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 상대적으로 만족도를 보인 이유로 보인다.

통계활용 디자인과 관련된 통계수치의 저장방법과 사이트 접속방법은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이용자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저장방법은 엑셀(Excel) 형

태로 자료를 내려 받게 설계된 것과 전산기기 교체로 인해 접속속도를 떨어지지 않게 유지했기 때문으로 본다.

통계의 신속성은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긴 하나 E-mail을 통한 질문 또는 건의 시 답변의 만족도와 더불어 불만요소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시 만족도

단위: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통계수치의 저장방법	2.4	45.8	48.2	3.6	0.0
사이트의 접속속도	2.4	39.8	48.2	9.6	0.0
검색방법	2.4	42.2	49.4	4.8	1.2
E-mail을 이용한 질문 또는 건의시 답변 만족도	0.0	25.0	62.5	10.4	2.1
통계의 정확성	1.2	60.7	36.9	1.2	0.0
통계의 신속성	1.2	43.9	42.7	8.5	3.7
용어의 해설	1.2	35.4	53.7	8.5	1.2

4. 부분별 활용정도

「여성통계연보」가 10개 부문이라는 다양한 부문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점은 한편으로 특정 분야에 깊은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게 만족할 만큼의 통계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나 정책수립자들은 「여성통계연보」 이외 다양한 통계보고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특화된 각 기관의 여성통계보고서에 대한 이용현황을 질문한 결과,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이용이 가장 높은 76.8%(자주 사용 혹은 가끔 사용의 비율의 합)을 보였고, 다음으로 노동부의 「여성과 취업」이 70.7%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

용하고 있었다. 이외 비교적 높은 사용정도를 보인 보고서를 보면 여성부의 「여성의 생활과 지위」, 행정자치부의 「여성과 공직」, 보건복지부의 「여성보건복지: 현상과 통계」,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와 법무부 통계는 다른 통계보고서에 비해 다소 낮은 이용정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각 기관 보고서의 사용정도가 「여성통계연보」의 부문별 사용정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부의 「여성과 취업」은 경제활동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를 다룬 것으로 「여성통계연보」에서도 이용경험이 가장 높은 부문일 뿐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반면 가장 사용정도가 낮은 법무부의 「법무부 여성통계」는 안전과 법에 대한 여성통계를 전문화한 것으로 「여성통계연보」에서도 가장 낮은 사용정도를 보였다. 이것은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여성통계가 경제활동, 교육, 가족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부처 또한 이런 분야에서 여성문제를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26> 기관별 여성통계보고서의 이용현황

단위: %

	자주 사용	가끔 사용	거의 사용 않음	들어본 적 없음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14.7	62.1	19.5	3.7
(여성보건복지: 현상과 통계) (보건복지부)	4.9	45.1	42.4	7.6
(여성과 공직) (행정자치부)	9.2	44.3	39.7	6.9
(여성의 생활과 지위) (여성부)	10.2	47.6	33.7	8.6
(법무부 여성통계) (법무부)	3.3	29.0	49.2	18.6
(여성과 취업) (노동부)	13.6	57.1	20.9	8.5
(경기여성통계) 등 (지방여성통계) (지방자치단체)	4.5	28.5	50.3	16.8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9.4	40.9	36.5	13.3
(World's Women) (UN)	3.6	27.8	47.9	20.7

앞에서 보여진 여성관련 통계보고서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자와 정책입안자들은 각 기관에서 발간되는 통계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통계 보고서들이며, 이외에도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통계 보고서는 각 부문의 전문화된 통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의 경우도 이들 부처에서 생산되는 통계가 주요 자료원으로 하여 발간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는 각 부문의 주요지표의 사용정도를 통해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활용을 알고자 하였다. 비교대상은 통계청과 관련 정부부처 통계 간행물로 하였고, 구체적인 비교지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를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응답결과는 부문별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통계연보」의 활용이 가장 높았고, 통계청의 간행물은 출생성비, 이혼율, 경제활동참가율, 평균수명 등에서 비교적 높은 이용을 보였으며, 통계청 외 정부부처 간행물은 국민연금 가입자, 일반직 공무원 수, 성폭력 경험을 등에서 높은 이용을 보이고 있다. 「여성통계연보」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이용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통계간행물에서 쉽게 찾기 힘든 성별분리 통계를 한 포에 수록하고 있다는 점과 원래 보고서에서 분석하지 않고 있는 변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여성통계연보」를 많이 보게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통계청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나, 여성통계연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변수를 결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고, 취업률과 같은 지표의 경우도 「교육통계연보」 등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나, 「여성통계연보」는 이들에 대한 지표를 모두 계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통계연보」가 다른 기관의 통계보고서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 「여성통계」의 경우는 다른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정도를 보였다.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전반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통계DB 사이트가 가장 높은 사용정도를 보였

고, 한국여성개발원의 인터넷 「여성통계」와 다른 정부부처의 인터넷 사이트는 비슷한 이용을 보이고 있었다. 통계청 통계DB 사이트의 장점은 광대한 통계DB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도 신속성과 정확성을 갖춘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보통 인터넷을 통한 통계 서비스는 통계간행물이 발간된 후 일정기간동안 갱신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은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동시에 통계 DB를 갱신이 이루어짐으로서 최신 자료의 수집을 원하는 연구자와 공무원에게 좋은 자료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통계청의 통계 DB가 다른 통계 사이트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표 IV-27> 각 항목별 통계자료 이용현황

단위: %

	한국여성개발원		통계청		관련 정부부처		통계 이용한 적 없음
	「여성통계 연보」 해자	인터넷 「여성통계」 사이트	통계청 간행물	통계청 인터넷 사이트	관련부처 간행물	관련부처 인터넷 사이트	
출생성비	31.3	5.6	25.1	22.1	5.1	3.1	7.7
이혼율	33.0	6.2	20.1	16.0	5.7	2.6	16.5
성별 대학 취업률	38.5	8.2	8.2	9.2	14.9	6.2	14.9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41.5	7.2	21.5	14.9	6.7	5.1	3.1
성별 평균수명	29.7	3.1	24.1	20.0	5.6	3.1	14.4
성별·국민연금 가입자	17.3	2.6	9.4	9.9	19.4	7.9	33.5
직급별·일반직 공무원수	18.6	2.1	12.9	5.7	29.9	17.5	13.4
성별·컴퓨터 사용능력	18.9	6.8	12.1	9.5	13.7	5.8	33.2
성별 성폭력 경험률	34.4	10.9	2.6	2.6	20.8	7.8	20.8
국가별 여성권한지수	47.2	8.3	3.6	3.6	13.5	9.3	14.5

5. 이용활성화 방안

가. 여성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 이용자는 여성통계의 개선 방안에서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내용의 포괄성과 신속성으로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포괄성 부분은 금번 조사결과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고, 신속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³⁵⁾를 보인 부분으로서 포괄성과 더불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자료입수의 가능성, 자료취급의 편리함, 자료가공의 수월성, 자료의 신뢰성 등은 각각 9.7%, 10.2%, 7.1%, 0.5%로 두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IV-28>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 개선 방향의 최우선순위
단위: %

항 목	비 율
내용의 포괄성	36.2
신속성	36.2
자료입수의 가능성	9.7
자료취급의 편리함	10.2
자료가공의 수월성	7.1
자료의 신뢰성	0.5
전 체	100.0

결과적으로 여성통계의 개선방향의 최우선 순위는 내용의 포괄성과 신속성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고, 이는 곧 통계 보고서 발간주기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연결된다.

35) 신속성의 경우 「여성통계연보」의 만족도는 26.6%(만족 이상)으로 이용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낮은 만족정도를 보였다.

1) 발간주기

가) 「여성통계연보」

「여성통계연보」는 책제목에서 알 수 있듯 매년 1회 발간되고 있는 통계보고서이다. 처음 한국여성개발원의 통계보고서는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라는 제목으로 비정기적으로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1986년과 1993년에 발간되었는데, 당시 이 보고서는 여성의 지위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최초의 통계 보고서로 큰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비정기적인 발간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여성지위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라는 이름으로 보고서의 명칭을 바꾸어 매년 1회 발간하게 된 것이다.

매년 1회 발간되는 「여성통계연보」의 발간주기는 본 조사에 의하면 69.0%의 이용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불만족하다는 응답 또한 11.9%³⁶⁾로 나타났지만, 다수의 응답자는 통계연보의 발간 주기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다수의 응답자가 발간주기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통계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통계연보」 이용에 있어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발간주기는 적합하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발간주기와 신속성은 사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간주기가 빨라지면 최근 생산된 통계를 그만큼 빨리 수록하여 발간할 수 있을 것이고, 길어질 경우 그만큼 최근자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통계연보」는 매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생산된 통계보고서를 기준으로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11월 말 이후 생산된 통계는 다음해 여성통계에 수록되게 된다. 즉 「여성통계연보」와 동일한 연도에 발간되는 통계보고서일지라도 12월에 발간된다면 그와 같은 통계는 1년 늦게 수록될 수 밖에 없다.

「여성통계연보」의 신속성 문제는 발간주기를 6개월 혹은 분기별로 한다면

36)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발간주기가 길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들의 86.9%는 「여성통계연보」가 6개월 혹은 분기별로 발간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발간주기를 줄이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발간주기를 줄일 경우 첫째 당장 예산과 인력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둘째로는 실효성의 문제이다. 「여성통계연보」의 통계는 대부분 정부부처 혹은 관련기관 등에서 1차 가공되어 나온 통계간행물을 사용하거나 재분석하여 수록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기관에서 나온 통계의 발간 주기가 대개 1년이며,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와 같이 발간 주기가 5년인 간행물도 있다. 물론 발간 주기가 월별 혹은 분기별인 통계간행물도 있으나, 이런 통계의 경우는 대부분 12월에 제공하는 연말평균자료를 「여성통계연보」에 수록하게 된다. 더욱이 「여성통계연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간행물이 대부분 1년 주기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혹은 6개월 주기의 발간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실효성을 고려하여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인터넷 「여성통계」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통계서비스는 갱신 주기를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지만 관례상 전반적인 수정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갱신기간은 보통 「여성통계연보」가 발간된 후 1~2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통계오류 등의 지적 사항은 즉시 수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통계 DB는 자료의 광대함, 자료 갱신(updating)의 신속성, 수정의 용이성, 쉬운 자료접근 등으로 이용자가 쉽게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통계청의 통계 DB(KOSIS)가 가장 애용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인터넷 통계 DB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터넷 통계 DB는 자료갱신에 있어 수시 갱신체제를 가지고 있어 자체 생산 보고서 발간과 인터넷 통계 DB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 인터넷 통계 DB의 갱신이 거의 동시에 종료하여 사용자가 바로 인터넷을 통해 통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⁷⁾.

37) 물론 통계청의 통계 DB(KOSIS)는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통계를 모두 DB로 작성하여 서비스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은 포함시켜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근 통계갱신은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의 경

<표 IV-29> 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간행물의 발간주기 및 부문

발간주기	통계간행물	생성기관	부 문
매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경제활동
	고용보철통계월보	노동부	복지
1년	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인구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인구, 가족, 보건, 국제비교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인구와 국제비교를 제외한 모든 부문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경제활동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인구와 국제비교를 제외한 모든 부문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보건
	국제통계연감	통계청	국제비교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보건,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보건, 복지
	건강보철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 복지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
	공무원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복지
	사회연금통계	사회연금관리공단	복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교육, 경제활동
	여성과 취업	노동부	복지
	행정자치부통계연보	행정자치부	정치 및 사회참여
	범죄분석	대검찰청	인전
	International Statistics Yearbook	ILO	국제비교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국제비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국제비교
3년	전국 출생력 및 가족보전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가족, 보건
5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인구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인구, 가족, 교육, 정치 및 사회참여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가족
비정기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	가족
	대통령선거총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및 사회참여
	국회의원선거총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및 사회참여
	국민투표총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및 사회참여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총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및 사회참여
	시·도의회의원선거총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및 사회참여
	여성단체현황	보건복지부	정치 및 사회참여

- 주: 1. 통계간행물이 아닌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연구 보고서에서 인용한 통계와 발간이 중단된 자료원은 제외함.
 2. 「여성통계연보」에 수록되는 「매월노동통계보고서」의 통계는 연평균자료임.
 3. 「사회통계조사보고서」는 매년 발간되고 있으나, 동일한 주제에 대한 발간은 약 3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음.
 4.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이외에도 각 부문의 지표계산에 사용되고 있음.

우 발간이후 곧 바로 갱신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통계 DB는 보고서가 발간된 후 약간의 시간을 두고 갱신되고 있다.

여성개발원의 인터넷 「여성통계」 또한 일반 인터넷 통계 DB가 갖는 여러 장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최신통계의 신속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나 노동부처럼 자체 통계를 생산을 통해 자료를 갱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통계의 가공능력과 전문가의 부족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 갱신이 「여성통계연보」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통계연보」의 작성이 연구자의 기본 과제로서 노동통계연구부에서 작성되고, 인터넷 「여성통계」는 정보협력부의 기본 업무로 각기 실시함에 따라 수시 갱신은 체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인터넷 「여성통계」가 통계청의 통계 DB(KOSIS)은 물론이고 다른 기관의 통계 DB와 비교해서도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 발간형태

여성통계는 책자와 인터넷 외에도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CD라는 새로운 매체로 발간될 수 있다. 현재 통계보고서를 CD와 함께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통계청으로 2001년 총 60종의 보고서 중 16종을 CD와 함께 발간하였다. CD은 책자와 인터넷의 장점을 골고루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인터넷이 가지는 빠른 검색과 편집기능, 그리고 책자와 같이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사용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CD는 방대한 양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록할 수 있어 요즘 매우 유용한 발간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조사는 이를 감안하여 CD를 포함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발간 매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³⁸⁾ 결과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한 매체는 인터넷으로 시의성, 자료입수의 가능성, 자료취급의 편리성, 자료가공의 수월성 등에서 가장 우수한 발간 매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책자의 경우 내용의 포괄성에서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CD가 가장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38) 이 질문은 어떤 매체를 선호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어떤 매체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느냐를 묻은 질문으로 응답자의 매체 선호와는 다른 질문이다.

<표 IV-30>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발간 매체

단위: %

항 목	책 자	인터넷	CD
내용의 포괄성	50.3	31.6	18.1
시의성 (신속성)	16.4	83.6	0.0
자료입수의 가능성	21.1	77.8	1.2
자료취급의 편리함	42.5	51.7	5.7
자료가공의 수월성	20.7	69.0	10.3

이와 같은 이용자의 생각은 인터넷 통계 사이트 이용에 다소 낮은 만족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인터넷 「여성통계」가 이용자의 편의에 부합하여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통계서비스의 질이 이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로서, 만약 이런 부분의 개선이 있을 경우 인터넷 「여성통계」는 크게 높아질 것이고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란 가정을 할 수 있다.

나. 여성통계 이용의 활성화 방안

「여성통계연보」의 활성화 방안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통계연보」만을 한정하여 활성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 「여성통계연보」만을 한정할 경우 그 활성화 방안은 인력과 비용의 증가시키는 방안으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발간 주기를 최대한 짧게 하고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내용의 중성함과 신속성을 확보한다면, 이것은 이용자의 입장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개선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력과 비용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다 개선된 여성통계의 생산은 인터넷 「여성통계」와 연관하거나 통계생산매체의 다양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 시스템으로 전환

앞의 조사결과에서 언급되었지만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 만족도에서 신속성은 45.1%(만족 이상)을 보여 비교적 높은 만족정도를 보였지만, 역으로 보면 54.9%가 불만족하거나 보통정도의 만족을 보인 것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인터넷 「여성통계」의 갱신 방법은 「여성통계연보」가 발간된 후 약 한달 반 정도의 수정기간을 통해 갱신되고 있다. <표 IV-30>에 의하면 많은 응답자의 경우 인터넷 통계 서비스가 가장 신속하게 최근 통계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여성개발원의 인터넷 「여성통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료의 갱신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시 갱신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인터넷 「여성통계」와 「여성통계연보」의 연구자가 다르다는 문제이며, 둘째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갱신이 「여성통계연보」를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이다. 정보협력부에서 갱신되는 인터넷 「여성통계」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여성통계연보」의 발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여성통계연보」의 연구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통계연보」의 연구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여 최근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분기별로 나누어 인터넷 「여성통계」의 갱신에 제공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연구자의 연구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줄 수 있을 것이다.

2) 발간 형태의 다양화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시스템 도입과 「여성통계연보」의 연구기간조정이 여성통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발간형태의 다양화는 여성통계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여성통계연보」는 전문화와 대중화이 두 측면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

다. 왜냐하면 「여성통계연보」는 종합통계보고서로서 총 10부문의 통계를 수록함에 따라 한 분야의 통계를 다양한 내용과 지표로 수록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와 더불어 「여성통계연보」는 대중화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계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사회적 관심을 갖는 여성지표에 대해 보기 쉬운 표나 그림 등으로 표현해서 보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성통계연보」 편집 상태를 보면 부문별로 최소한의 그림만을 삽입하고 있으며, 통계표의 경우 초보자가 보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용어해설도 한 곳에 모아 설명되어 있어 초보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들이 많다.

이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감적인 방안은 「여성통계연보」에 보다 다양한 통계표를 추가하고 통계표 또한 보기 쉬운 형태의 그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여성통계연보」의 분량³⁹⁾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10개 부문 모두에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보고서를 매년 생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여성통계의 발간 방식을 다양화⁴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양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분야별 전문통계 소책자와 핸드북 형태의 통계보고서를 「여성통계연보」와 더불어 발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분야별 전문통계는 전문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2~3가지 부문을 묶어 각 부문별 통계와 지표수를 확대하여 게재함으로 심도 있는 여성연구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게 하며, 핸드북은 한국여성의 현황에 대한 기초적 통계를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일반 이용자와 외국인, 연구자에게 보급함으로서 여성통계를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한다면 「여성통계연보」의 전문성과 대중성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9) 2000년 「여성통계연보」의 분량은 목차부분을 제외하고 총 498쪽이며, 2001년의 경우는 445쪽이다.

40) 본 연구는 「여성통계연보」 외에 발간이 필요한 젠더 통계에 관한 질문하였다. 그 결과 68.0%의 응답자가 분야별 전문통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9%가 국제비교통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중복응답이었음)

발간주기는 분야별 소책자의 경우 매년 발간하되 1년에 2~3개 부문을 묶어 발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여 4년 주기로 모든 부문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하며, 핸드북의 경우 생산목적과 통계의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왜냐하면, 핸드북의 경우 여성통계의 대중성을 위해 한국여성의 현황을 쉽게 알리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실제 연구자와 정책입안자에게 부족한 정보를 줄 수 있어, 매년 생산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분야별 소책자의 발간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72.6%가 찬성하고 있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의 74.7%가 찬성하였으며, 연구원과 교수의 69.1%가 전문화된 소형 통계물의 발간에 찬성의사를 밝혔다(<부표 52> 참조).

<표 IV-31> 발간형태의 다양화 방안 제안

통계보고서	주 기	목 적	주 사용대상
여성통계연보	1년	여성연구 기초정책수립 및 평가	연구자, 정책입안자, 일반사용자, 외국인
전문소책자	1년 (매년 2~3개 부문)	여성전문연구 정책수립 및 평가	연구자, 정책입안자
핸 드 북	3년	기초여성현황 기초정책수립	정책입안자, 일반사용자, 외국인

3) 통계 서비스 및 품질의 향상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부문에서 가장 낮은 항목 중 하나는 통계 서비스 부문이다. 「여성통계연보」는 일단 발간하여 배포된 이후에는 연구자나 이용자에 의해 통계오류가 발간될지라도 이에 대해 독자의 통보해주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여성통계연보」의 통계 정확도에 대해 53.1%(만족 이상)의 이용자만이 만족하고 있었고 나머지 이용자는 보통이거나 불만족하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여성통계」의 경우 E-mail 등을 통한 의문사항과 질문에 대한 답변 부

분⁴¹⁾이 만족도에 대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통계의 품질 향상은 여러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통계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와 후속서비스 강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통계의 정확성의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력을 확충하여 통계를 세밀히 확인하는 방법이다. 특히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표본조사의 경우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가 발간되면 승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전 통계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인구동태조사」와 같은 신고에 의해 집계되는 통계는 이전 10년 통계를 모두 확인해서 수정해야 된다. 「여성통계연보」는 이와 같은 통계에 대해 확인하고 통계를 수정하고 있으나, 통계표의 증가와 짧은 연구기간, 그리고 「여성통계연보」의 수행해야하는 또 다른 기본 과제 등의 이유로 세세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터넷 「여성통계」는 「여성통계연보」를 기초로 최신 연도를 중심으로 수정함에 따라, 이전 통계에 대한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통계의 신속성 확보는 「여성통계연보」의 발간 주기 단축과 인터넷 「여성통계」의 수시 입력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결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인력과 예산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에 여성통계연보의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을 위해 제안했던 분기별 갱신 방안이 있고, 둘째로는 「여성통계연보」담당자가 직접 인터넷 「여성통계」와 「여성통계연보」를 동시에 갱신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은 기존 여성통계 발간 및 서비스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분기별로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고, 후자는 통계의 신속성을 함께 고려한 좀 더 근본적인 통계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이다.

본 연구자는 후자의 방법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한국여성개발원

41) E-mail 등을 이용한 의문사항이나 질문상황에 대한 답변의 만족도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에서 묻었으며, 결과 응답자의 62.5%가 보통 정도라는 응답을 했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5.0%, 그리고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2.5%로 나타났다.

의 여성통계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장 이와 같은 체계로의 전환은 약간의 혼란이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통계연보」 연구자들이 인터넷 「여성통계」의 수정을 위한 기술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즉 여성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전자에서 제시한 분기별 갱신부터 시작한 후, 2~3년 후 갱신(updating)의 기능적 능력을 습득한 후, 연구자가 직접 수시 갱신 체계로 전화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통계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여성통계 관련 후속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여성통계에 대한 문의점이나 문의 사항을 부문별로 연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E-mail 등으로 보내온 질문들을 즉각 응답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통계의 수정과 질문 사항은 「여성통계연보」 담당자가 전담하고 이외 각 분야 통계에 대한 질문은 전공 연구자가 응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통계연보」의 정기구독 회원과 구입자, 그리고 필수 배포처의 E-mail과 주소를 DB화하여 통계오류와 수정사항이 발생 시 즉시 E-mail 혹은 전화, 편지 등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여성통계」의 경우 자료 갱신과 더불어 어떤 자료가 갱신되었는가를 통계 이용자에게 알리고,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여성통계의 이용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통계연보」의 시의적절한 체계 개편과 아울러 「여성통계연보」 및 인터넷 여성통계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UN과 주요 선진국의 젠더통계의 제도적 장치와 주요 생산물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선진국들은 젠더통계의 생산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고 젠더통계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독립적인 단위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다. 현재 한국은 생산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는 있으나 통계생산 담당 부서는 없는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계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젠더통계의 생산을 위해서는 통계청 내의 하부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주요 생산물 현황을 보면 여성의 지위와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통계 내용 외에 젠더통계 생산하는 방법 혹은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 등 통계의 생산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통계관련 책자가 발간되고 있어 한국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조사현황을 보면 인구, 교육, 취업 등의 관련통계들은 이미 국가의 기초통계들로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있으나, 특수하게 여성과 관련되는 통계, 혹은 보고통계로 잘 잡히지 않는 통계, 예를 들어 보육아동 관련 통계나 성폭력, 가정폭력 통계등은 자체 조사를 통하여 생산하고 있어 한국도 향후 통계청이나 다른 부처에서 제공되지 않지만 여성에게 중요한 통계들은 생산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은 성별 불평등 현상을 성별비교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평등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젠더통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동시에 포괄성, 압축성, 간결성, 이해가능성, 시의적절성, 생산여부 등 통계책자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이루어 졌다. 전체 체계면에서는 현재 10개 부문에서 '남북한 비교'부문을 새로 신설하여 11개 부문으로 확장하였다. 부문별 개편안 중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인구부문에서는 세부관심영역을 인구의 동태성과 정태성을 나누어 균형을 맞추었으며, 인구이동은 국제화 시대임을 감안하여 국내이동과 국외이동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족부문에서는 가족과 가구관련 통계를 분리하였으며, 여성가구주 중 특히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편모가구주, 독거노인가구주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가족관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주관적 지표를 추가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공교육의 부실화, 교사의 이직문제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에서의 성차를 볼 수 있는 통계를 제안하였다. 경제활동부문에서는 여성의 실업상태를 보여주는 대안실업률을 제시하고, 비구직사유를 추가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경기구조조정 이후 더욱 심각해진 취업불안정성을 다룰 수 있는 통계와 성별 소득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단순한 기대수명의 연장보다는 건강한 상태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건강수명을 추가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검진 실태 등을 추가하였다. 복지부문에서는 국민의 4대 기본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가입률 뿐 아니라 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볼 수 있는 통계를 제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생활보호」관심영역을 「국민기초생활보장」관심영역으로 교체하고, 개별지표의 내용도 보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포함하였다.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육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위직급 여성공무원의 분포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보충하였다. 문화 및 정보부문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자의 성별 통계를 추가하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이는 정보화사업의 수혜결과에 대한 성별차이를 파악하는 통계를 제안하였다. 안전부문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를 제안하였으나 현재 제한적인 통계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보고통계와 실제 발생건수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통계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남북한 비교부문은 통일 후 여성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새로 신설한 부문이다. 남북한 여성의 현상과 지위를 비교하는 기본적인 통계를 제안하였다. 국제비교부문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지원정책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률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을 도모하였다.

「여성통계연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인터넷 「여성통계」와 긴밀한 연계하에서 모색되었다. 즉 각각에 대한 이용현황과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두 매체의 성격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부적인 개선안을 보면 첫째는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인터넷 「여성통계」의 갱신 방법은 「여성통계연보」가 발간된 후 이를 바탕으로 약 한달 반 정도의 수정기간을 통해 갱신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여성통계」가 일반 인터넷 통계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신속한 자료갱신이란 장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자료갱신을 위해 「여성통계연보」의 연구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여 수시로 최근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분기별로 나누어 인터넷 「여성통계」의 갱신에 사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연구자의 연구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발간형태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인터넷 「여성통계」의 신속한 갱신시스템 도입과 「여성통계연보」의 연구기간조정이 여성통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발간형태의 다양화는 여성통계의 전문화와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한 것으로, 그 방안으로 분야별 전문통계 소책자와 핸드북의 형태를 「여성통계연보」와 병행하여 발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 발간 주기는 그 목적에 따라 전문통계 소책자의 경우 1년에 2~3개 부문씩 생산하여 4년 주기로 10개 부문 모두를 발간하고, 핸드북의 경우 생산목적과 사용대상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생산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안은 통계서비스 및 품질의 향상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개발원은 여성통계의 발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통계 서비스에는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조사결과에서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의 만족도 부분에서 가장 낮은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통계 서비스 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통계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여성통계에 대한 문의점이나 문의 사항을 즉각 응답해 주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즉 단순한 통계의 수정과 질문 사항은 「여성통계연보」 담당자가 전담하고 이외 각 분야 통계에 대한 질문은 전공 연구자가 응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통계연보」의 정기구독회원과 구입자, 그리

고 필수 배포처의 E-mail과 주소를 DB화하여 통계오류와 수정사항이 발생 시 즉시 E-mail 혹은 전화, 편지 등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인터넷 「여성통계」의 경우 자료 갱신과 더불어 어떤 자료가 갱신되었는가를 통계 이용자에게 알리며,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여성통계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참고문헌

- 강동식(1991), “「삶의 질」, 지표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 33집, pp. 437-459.
- 김양희·윤혜미(1996), 「여성사회지표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문유경(1999), 「성 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문유경·주제선(2001), 「여성보건복지 : 현상과 통계」, 보건복지부.
- 문유경·주제선(2001), 「노동통계의 성 인지적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문유경·전기택(2001), 「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행정부문」, 여성부.
- 경기도(2000), 「경기통계연보」.
- 노동부(2001),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보고서」.
- 노동부(2001), 「매월노동실태조사」.
- 법무부(2000), 「법무부 여성통계」.
- 여성부(2000), 「여성의 생활과 지위」.
- 연세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8), 「한국의 주관적 사회지표에 관한 연구」, 서울연세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Ⅰ,Ⅱ)」.
- 한국여성개발원(1986, 19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한국여성개발원(각연도), 「여성통계연보」.
- 한국청소년개발원(2000), 「한국의 청소년 지표」.
- 행정자치부(2000), 「여성과 공직」.
-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2001),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0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1998), 「고용구조조사보고서」.
- 통계청(200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통계청(2000),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 통일원(1991), 「남북한 사회·문화 지표」.

Carley, M(1983), *Social Measurement and Social Indicators: Issues of Policy and Theo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UN, *Compendium of Statistic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Women* 1986, New York: UN, 1989,

—, *Handbook for National Statistical Data Bases on Women and Development*, New York: UN, 1990,

ECE/UNDP, "Gender Statistics website for monitoring chang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Joint ECE/UNDP Workshop on Gender Statistics for Policy Monitoring and Benchmarking(Orvieto, Italy, 9-10 October 2000), Working Paper No.29., Statistical Commission and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DP(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UN(1995), *The World's Women 1995: Trends and Statistics*.



부록

1. 부 표	183
2. 설문지	181

1. 부 표

<부표 1> 「여성통계연보」의 입수경로

단위: %

구 분		여성개발원 정기구독회원	개별 구입(여성개발원 또는 서점)	도서관 및 소속기관 자료실 열람
전 체		19.7	7.7	72.7
성 별	여자	22.4	7.7	69.9
	남자	10.0	7.5	82.5
직업별	공무원	10.1	5.1	84.8
	연구원,교수	26.3	10.0	63.8
	기타	29.2	8.3	62.5

<부표 2> 「여성통계연보」의 가격

단위: %

구 분		비싼 편이다	적당하다	싼 편이다
전 체		42.9	50.0	7.1
성 별	여자	45.5	45.5	9.1
	남자	33.3	66.7	0.0
직업별	공무원	25.0	75.0	0.0
	연구원,교수	50.0	50.0	0.0
	기타	50.0	0.0	50.0

<부표 3> 「여성통계연보」에 대한 문제점/문의사항 해결 방법

단위: %

구 분		해당 통계표의 출처에 나와 있는 원래의 통계를 찾아본다	여성개발원에 문의한다	원래의 통계 이외에 다른 기관의 통계간행물을 참고한다	행정부에 문의한다
전 체		35.6	22.5	41.4	0.5
성 별	여자	33.8	21.6	43.9	0.7
	남자	41.9	25.6	32.6	0.0
직업별	공무원	31.0	23.8	44.0	1.2
	연구원,교수	38.6	21.7	39.8	0.0
	기타	41.7	20.8	37.5	0.0

<부표 4> 「여성통계연보」의 수록내용 포괄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6.7	59.1	31.6	2.6	0.0
성 별	여자	7.4	57.0	32.2	3.4	0.0
	남자	4.5	65.9	29.5	0.0	0.0
직업별	공무원	2.3	61.6	34.9	1.2	0.0
	연구원,교수	12.3	54.3	29.6	3.7	0.0
	기타	3.8	65.4	26.9	3.8	0.0

<부표 5> 「여성통계연보」의 수록내용 간결성(압축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5.7	47.4	42.8	3.6	0.0
성 별	여자	5.3	49.3	41.3	4.0	0.0
	남자	6.8	40.9	47.7	2.3	0.0
직업별	공무원	2.3	40.7	52.3	4.7	0.0
	연구원,교수	7.3	53.7	36.6	2.4	0.0
	기타	11.5	50.0	30.8	3.8	0.0

<부표 6> 「여성통계연보」의 성별통계제시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8.3	54.9	32.6	4.1	32.6
성 별	여자	10.1	55.7	30.2	4.0	30.2
	남자	2.3	52.3	40.9	4.5	40.9
직업별	공무원	1.2	57.6	37.6	3.5	37.6
	연구원,교수	17.1	51.2	26.8	4.9	26.8
	기타	3.8	57.7	34.6	3.8	34.6

<부표 7> 「여성통계연보」의 통계 지표화 작업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2.6	44.8	45.3	6.8	0.5
성 별	여자	3.4	46.6	43.9	5.4	0.7
	남자	0.0	38.6	50.0	11.4	0.0
직업별	공무원	0.0	38.4	52.3	9.3	0.0
	연구원,교수	5.0	48.8	38.8	6.3	1.3
	기타	3.8	53.8	42.3	0.0	0.0

<부표 8> 「여성통계연보」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4.2	45.5	43.5	6.8	0.0
성 별	여자	5.4	43.9	41.9	8.8	0.0
	남자	0.0	51.2	48.8	0.0	0.0
직업별	공무원	0.0	47.6	47.6	4.8	0.0
	연구원,교수	9.9	44.4	37.0	8.6	0.0
	기타	0.0	42.3	50.0	7.7	0.0

<부표 9> 「여성통계연보」 특집의 주제선정 및 내용 불만족 이유

단위: %

구 분		주제가 시의적절하지 않다	내용이 불충분하다	특집 자체가 불필요하다
전 체		16.7	80.0	3.3
성 별	여자	18.5	77.8	3.7
	남자	0.0	100.0	0.0
직업별	공무원	25.0	75.0	0.0
	연구원,교수	14.3	78.6	7.1
	기타	0.0	100.0	0.0

<부표 10> 「여성통계연보」의 통계표 제시 형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2.6	55.2	39.2	3.1	0.0
성 별	여자	2.7	58.0	36.0	3.3	0.0
	남자	2.3	45.5	50.0	2.3	0.0
직업별	공무원	0.0	46.0	50.6	3.4	0.0
	연구원,교수	3.7	66.7	27.2	2.5	0.0
	기타	7.7	50.0	38.5	3.8	0.0

<부표 11> 「여성통계연보」의 책 크기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7.9	61.2	26.4	4.5	0.0
성 별	여자	8.8	62.0	24.8	4.4	0.0
	남자	4.9	58.5	31.7	4.9	0.0
직업별	공무원	2.5	59.5	31.6	6.3	0.0
	연구원,교수	16.2	59.5	21.6	2.7	0.0
	기타	0.0	72.0	24.0	4.0	0.0

<부표 11> 특집/분석/그림/통계표 구성 분량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3.1	49.7	38.9	8.3	0.0
성 별	여자	3.4	51.0	38.9	6.7	0.0
	남자	2.3	45.5	38.6	13.6	0.0
직업별	공무원	0.0	43.0	48.8	8.1	0.0
	연구원,교수	6.2	54.3	29.6	9.9	0.0
	기타	3.8	57.7	34.6	3.8	0.0

<부표 12> 특집의 분량 바람직한 구성

단위: %

구 분		늘린다	줄인다
전 체		80.0	20.0
성 별	여자	50.0	50.0
	남자	100.0	0.0
직업별	공무원	100.0	0.0
	연구원,교수	66.7	33.3

<부표 13> 분석의 분량 바람직한 구성

단위: %

구 분		늘린다	줄인다
전 체		90.9	9.1
성 별	여자	100.0	0.0
	남자	83.3	16.7
직업별	공무원	100.0	0.0
	연구원,교수	80.0	20.0
	기타	100.0	0.0

<부표 14> 그림의 분량 바람직한 구성

단위: %

구 분		늘린다	줄인다
전 체		57.1	42.9
성 별	여자	75.0	25.0
	남자	33.3	66.7
직업별	공무원	0.0	100.0
	연구원,교수	80.0	20.0

<부표 15> 통계표의 분량 바람직한 구성

단위: %

구 분		늘린다	줄인다
전 체		87.5	12.5
성 별	여자	80.0	20.0
	남자	100.0	0.0
직업별	공무원	100.0	0.0
	연구원,교수	80.0	20.0

<부표 16> 발간 주기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0.8	58.2	19.1	11.9	0.0
성 별	여자	11.3	59.3	17.3	12.0	0.0
	남자	9.1	54.5	25.0	11.4	0.0
직업별	공무원	9.1	55.7	27.3	8.0	0.0
	연구원,교수	14.8	61.7	11.1	12.3	0.0
	기타	4.0	56.0	16.0	24.0	0.0

<부표 17> 바람직한 발간 주기

단위: %

구 분		사분기	6개월에	2-3년
전 체		21.7	65.2	13.0
성 별	여자	22.2	61.1	16.7
	남자	20.0	80.0	0.0
직업별	공무원	28.6	71.4	0.0
	연구원,교수	20.0	60.0	20.0
	기타	16.7	66.7	16.7

<부표 18> 통계의 정확성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3.4	49.7	43.6	3.4	0.0
성 별	여자	3.7	50.7	42.6	2.9	0.0
	남자	2.3	46.5	46.5	4.7	0.0
직업별	공무원	1.2	42.2	53.0	3.6	0.0
	연구원,교수	6.9	54.2	37.5	1.4	0.0
	기타	0.0	62.5	29.2	8.3	0.0

<부표 19> 통계의 신속성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2.2	24.4	54.4	17.8	1.1
성 별	여자	2.2	24.8	52.6	19.0	1.5
	남자	2.3	23.3	60.5	14.0	0.0
직업별	공무원	2.4	20.5	56.6	20.5	0.0
	연구원,교수	2.7	30.1	50.7	13.7	2.7
	기타	0.0	20.8	58.3	20.8	0.0

<부표 20> 용어의 해설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7	37.9	51.4	9.0	0.0
성 별	여자	2.2	35.1	53.7	9.0	0.0
	남자	0.0	46.5	44.2	9.3	0.0
직업별	공무원	0.0	40.7	53.1	6.2	0.0
	연구원,교수	4.1	38.4	46.6	11.0	0.0
	기타	0.0	26.1	60.9	13.0	0.0

<부표 21> 구입의 용이함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5.7	39.1	44.3	10.9	0.0
성 별	여자	7.6	42.0	36.6	13.7	0.0
	남자	0.0	30.2	67.4	2.3	0.0
직업별	공무원	1.3	32.5	58.4	7.8	0.0
	연구원,교수	11.0	46.6	32.9	9.6	0.0
	기타	4.2	37.5	33.3	25.0	0.0

<부표 22> 사용의 편리함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6.3	52.3	39.2	1.7	0.6
성 별	여자	6.8	57.1	33.1	2.3	0.8
	남자	4.7	37.2	58.1	0.0	0.0
직업별	공무원	3.8	41.3	55.0	0.0	0.0
	연구원,교수	11.0	63.0	23.3	2.7	0.0
	기타	0.0	56.5	34.8	4.3	4.3

<부표 23> 인구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77.7	22.3
성 별	여자	75.5	24.5
	남자	85.7	14.3
직업별	공무원	81.6	18.4
	연구원,교수	74.1	25.9
	기타	76.0	24.0

<부표 24> 가족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76.2	23.8
성 별	여자	77.3	22.7
	남자	72.1	27.9
직업별	공무원	68.2	31.8
	연구원,교수	83.8	16.3
	기타	80.0	20.0

<부표 25> 교육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80.4	19.6
성 별	여자	82.9	17.1
	남자	71.4	28.6
직업별	공무원	73.6	26.4
	연구원,교수	86.6	13.4
	기타	84.0	16.0

<부표 26> 경제활동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85.6	14.4
성 별	여자	85.5	14.5
	남자	86.0	14.0
직업별	공무원	84.1	15.9
	연구원,교수	89.0	11.0
	기타	80.0	20.0

<부표 27> 보건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54.2	45.8
성 별	여자	54.7	45.3
	남자	52.4	47.6
직업별	공무원	55.2	44.8
	연구원,교수	52.5	47.5
	기타	56.0	44.0

<부표 28> 복지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75.3	24.7
성 별	여자	75.5	24.5
	남자	674.4	25.6
직업별	공무원	73.9	26.1
	연구원,교수	79.0	21.0
	기타	68.0	32.0

<부표 29> 정치 및 사회참여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72.4	27.6
성 별	여자	72.5	27.5
	남자	72.1	27.9
직업별	공무원	71.6	28.4
	연구원,교수	72.2	27.8
	기타	76.0	24.0

<부표 30> 문화 및 정보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56.7	43.3
성 별	여자	58.9	41.1
	남자	48.8	51.2
직업별	공무원	50.0	50.0
	연구원,교수	58.0	42.0
	기타	76.0	24.0

<부표 31> 안전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30.5	69.5
성 별	여자	27.0	73.0
	남자	42.9	57.1
직업별	공무원	27.6	72.4
	연구원,교수	33.3	66.7
	기타	32.0	68.0

<부표 32> 국제비교 부문 이용 여부

단위: %

구 분		이용	비이용
전 체		71.0	29.0
성 별	여자	72.8	27.2
	남자	64.3	35.7
직업별	공무원	64.4	35.6
	연구원,교수	80.2	19.8
	기타	64.0	36.0

<부표 33> 인터넷 「여성통계」 이용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2	37.6	51.8	8.2	1.2
성 별	여자	1.7	35.0	53.3	8.3	1.7
	남자	0.0	44.0	48.0	8.0	0.0
직업별	공무원	0.0	32.5	62.5	5.0	0.0
	연구원,교수	2.6	44.7	39.5	10.5	2.6
	기타	0.0	28.6	57.1	14.3	0.0

<부표 34> 「여성통계연보」와 인터넷 「여성통계」 중 주 이용자료

단위: %

구 분		[여성통계연보] 책자	인터넷 [여성통계]	비슷하다
전 체		52.8	39.3	7.9
성 별	여자	50.0	40.6	9.4
	남자	60.0	36.0	4.0
직업별	공무원	42.5	52.5	5.0
	연구원,교수	61.9	26.2	11.9
	기타	57.1	42.9	0.0

<부표 35> 책자를 더 자주 이용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인쇄형태가 익숙하다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	통계자료가 인터넷(여성통계보다 빨리 갱신(updating)된다	시계열 통계를 보기가 쉽다
전 체		78.3	6.5	10.9	4.3
성 별	여자	74.2	3.2	16.1	6.5
	남자	86.7	13.3	0.0	0.0
직업별	공무원	82.4	11.8	5.9	0.0
	연구원,교수	84.0	0.0	16.0	0.0
	기타	25.0	25.0	0.0	50.0

<부표 36> 인터넷을 더 자주 이용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필요한 내용만 볼 수 있으므로	통계내용을 저장할 수 있어서	자료를 더 빨리 입수할 수 있어서
전 체		34.3	25.7	40.0
성 별	여자	46.2	19.2	34.6
	남자	0.0	44.4	55.6
직업별	공무원	28.6	33.3	38.1
	연구원,교수	45.5	18.2	36.4
	기타	33.3	0.0	66.7

<부표 37> 인터넷을 이용하신 적이 없는 이유

단위: %

구 분		있는 것을 몰랐다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	인터넷을 이용할 여건이 안 된다	활자에 더 익숙해서 (책이 편리해서	타 홈페이지 이용 (통계청)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보고서 입수가 용이해서	관심없다
전 체		63.6	11.1	3.0	13.1	2.0	2.0	1.0	4.0
성 별	여자	61.7	11.1	2.5	14.8	1.2	2.5	1.2	4.9
	남자	72.2	11.1	5.6	5.6	5.6	0.0	0.0	0.0
직업별	공무원	59.1	11.4	2.3	15.9	4.5	2.3	0.0	4.5
	연구원,교수	64.9	8.1	2.7	16.2	0.0	2.7	2.7	2.7
	기타	72.2	16.7	5.6	0.0	0.0	0.0	0.0	5.6

<부표 38> 인터넷 「여성통계」의 수록내용 포괄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3.5	41.2	51.8	3.5	0.0
성 별	여자	5.0	38.3	51.7	5.0	0.0
	남자	0.0	48.0	52.0	0.0	0.0
직업별	공무원	0.0	37.5	60.0	2.5	0.0
	연구원,교수	5.3	42.1	47.4	5.3	0.0
	기타	14.3	57.1	28.6	0.0	0.0

<부표 39> 인터넷 「여성통계」의 수록내용 간결성(압축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3.5	43.5	47.1	5.9	0.0
성 별	여자	5.0	38.3	48.3	8.3	0.0
	남자	0.0	56.0	44.0	0.0	0.0
직업별	공무원	0.0	37.5	57.5	5.0	0.0
	연구원,교수	5.3	50.0	36.8	7.9	0.0
	기타	14.3	42.9	42.9	0.0	0.0

<부표 40>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제시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5.9	45.9	43.5	4.7	0.0
성 별	여자	8.3	43.3	41.7	6.7	0.0
	남자	0.0	52.0	48.0	0.0	0.0
직업별	공무원	0.0	37.5	60.0	2.5	0.0
	연구원,교수	13.2	47.4	31.6	7.9	0.0
	기타	0.0	85.7	14.3	0.0	0.0

<부표 41>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 지표화 작업정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2	42.4	43.5	12.9	0.0
성 별	여자	1.7	38.3	45.0	15.0	0.0
	남자	0.0	52.0	40.0	8.0	0.0
직업별	공무원	0.0	37.5	50.0	12.5	0.0
	연구원,교수	2.6	39.5	42.1	15.8	0.0
	기타	0.0	85.7	14.3	0.0	0.0

<부표 42>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표 제시 형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2	42.9	47.6	7.1	1.2
성 별	여자	1.7	39.0	47.5	10.2	1.7
	남자	0.0	52.0	48.0	0.0	0.0
직업별	공무원	0.0	27.5	65.0	7.5	0.0
	연구원,교수	2.7	51.4	35.1	8.1	2.7
	기타	0.0	85.7	14.3	0.0	0.0

<부표 43> 인터넷 「여성통계」의 그래프 제시 형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2	35.7	54.8	6.0	2.4
성 별	여자	1.7	30.5	57.6	8.5	1.7
	남자	0.0	48.0	48.0	0.0	4.0
직업별	공무원	0.0	27.5	70.0	2.5	0.0
	연구원,교수	2.7	35.1	45.9	10.8	5.4
	기타	0.0	85.7	14.3	0.0	0.0

<부표 44>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2	60.7	36.9	1.2	0.0
성 별	여자	1.7	59.3	37.3	1.7	0.0
	남자	0.0	64.0	36.0	0.0	0.0
직업별	공무원	0.0	37.5	60.0	2.5	0.0
	연구원,교수	2.7	81.1	16.2	0.0	0.0
	기타	0.0	85.7	14.3	0.0	0.0

<부표 45>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2	43.9	42.7	8.5	3.7
성 별	여자	1.7	41.4	41.4	12.1	3.4
	남자	0.0	50.0	45.8	0.0	4.2
직업별	공무원	0.0	35.9	53.8	7.7	2.6
	연구원,교수	2.7	45.9	35.1	10.8	5.4
	기타	0.0	83.3	16.7	0.0	0.0

<부표 46> 인터넷 「여성통계」의 용어 해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1.2	35.4	53.7	8.5	1.2
성 별	여자	0.0	29.3	60.3	10.3	0.0
	남자	4.2	50.0	37.5	4.2	4.2
직업별	공무원	2.6	30.8	61.5	5.1	0.0
	연구원,교수	0.0	35.1	48.6	13.5	2.7
	기타	0.0	66.7	33.3	0.0	0.0

<부표 47> 인터넷 「여성통계」의 통계수치 저장방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2.4	45.8	48.2	3.6	0.0
성 별	여자	3.4	44.8	46.6	5.2	0.0
	남자	0.0	48.0	52.0	0.0	0.0
직업별	공무원	0.0	35.0	62.5	2.5	0.0
	연구원,교수	5.6	52.8	36.1	5.6	0.0
	기타	0.0	71.4	28.6	0.0	0.0

<부표 48> 인터넷 「여성통계」의 접속속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2.4	39.8	48.2	9.6	0.0
성 별	여자	3.4	44.8	41.4	10.3	0.0
	남자	0.0	28.0	64.0	8.0	0.0
직업별	공무원	0.0	30.0	57.5	12.5	0.0
	연구원,교수	5.6	41.7	44.4	8.3	0.0
	기타	0.0	85.7	14.3	0.0	0.0

<부표 49> 인터넷 「여성통계」의 검색방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2.4	42.2	49.4	4.8	1.2
성 별	여자	3.4	43.1	44.8	6.9	1.7
	남자	0.0	40.0	60.0	0.0	0.0
직업별	공무원	0.0	35.0	60.0	5.0	0.0
	연구원,교수	5.6	44.4	41.7	5.6	2.8
	기타	0.0	71.4	28.6	0.0	0.0

<부표 50> E-mail을 이용한 질문 또는 건의 시 답변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 체		0.0	25.0	62.5	10.4	2.1
성 별	여자	0.0	22.6	61.3	16.1	0.0
	남자	0.0	29.4	64.7	0.0	5.9
직업별	공무원	0.0	21.4	64.3	14.3	0.0
	연구원,교수	0.0	18.8	68.8	6.3	6.3
	기타	0.0	75.0	25.0	0.0	0.0

<부표 51> 여성통계 내용 수시 갱신 시 「여성통계연보」 변화 방향

단위: %

구 분		현행과 같이 매년 책자형식으로 발간한다	2-3년에 한번씩 발간한다	5년에 한번씩 발간한다	발간하지 않는다
전 체		85.5	8.3	2.6	3.6
성 별	여자	87.9	8.7	1.3	2.0
	남자	77.3	6.8	6.8	9.1
직업별	공무원	81.6	10.3	3.4	4.6
	연구원,교수	88.9	6.2	2.5	2.5
	기타	88.0	8.0	0.0	4.0

<부표 52> 전문화된 소형 통계물 발간하는 것에 대한 의사

단위: %

구 분		매우 찬성	찬성	그저 그렇함	반대	매우 반대
전 체		42.5	30.1	18.7	7.3	1.6
성 별	여자	46.3	26.2	18.1	8.1	1.3
	남자	29.5	43.2	20.5	4.5	2.3
직업별	공무원	41.4	33.3	19.5	5.7	0.0
	연구원,교수	44.4	24.7	18.5	11.1	1.2
	기타	40.0	36.0	16.0	0.0	8.0

2001 연구보고서 230-18

「여성통계연보」의 체계 개편과 이용활성화 방안 모색

2002년 4월 12일 인쇄
2002년 4월 19일 발행

발행인 : 잠 하 진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6,000원>

ISBN 89-8491-028-7 98310